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 170 호

유용한 정보

세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스승님이 알려 주신 팁

특별 보도

- ▶ USA 투데이 할리우드 영웅상
- ▶ 2006년 안전 농장 연례 행사

전세계 우수 정책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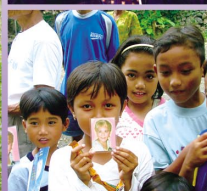
동물 친구들의 복리를 위해 애쓰는 정당

이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일

세계 봉사에 전념하는 빌 게이츠

동물의 감성 세계

동물은 영리한 중생이다



사랑의 당부

다른 존재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라

청하이 무상사/ 2006. 1. 8. 영국 서리 (원문 영어)

이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이 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이제는 조류 독감 같은 일들 때문에 텔레비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수천 마리의 닭과 오리들을 잡아 자루에 던져 넣고 묶어서 쓰레기장에 버립니다.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게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그들을 산 채로 묻어 버립니다! 산 채로 태우든가요.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온 세상이 채식을 하고 그렇게 많은 닭들을 기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게 둔다면 그들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 맙소사! 나는 이 모든 걸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 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마다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젊은 시절 그랬어요. 내가 쓴 시 ‘이 마음을 어찌할까’를 떠올려보면 알 겁니다. 그 시는 그런 아픔에서 비롯됐지요. 젊은 시절 큰 깨달음을 얻기 전에도, 히말라야에 가기 전에도 이 모든 일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도 결혼 생활을 즐길 수 없었지요. 텔레비전을 보고 나면 오랫동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적십자사에서 일했지만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나는 젊었을 때 죽어 가는 사람들과 고통, 전쟁 등 온갖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무슨 일에도 아주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 사람들이 건강하고 귀여운 아이들을 앞에 가리개도 없이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물론 따뜻한 옷을 입혔겠지만 찬바람이 아이의 얼굴을 때릴 수도 있고 길거리나 다른 곳의 더러운 파편들이 아이에게 날아들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은 키가 커서 눈 높이가 높아 상관없지만 아이는 아래쪽에 있으니까요. 나는 그런 모습을 봐도 그 아기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연약한 아기들 눈에 뭐가 들어갈 수도 있고 나쁜 이물 질이나 찬 공기가 코로 들어가 아기를 괴롭힐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남을 생각할 줄 모릅니다. 때로 그들은 트럭 뒤에 붙잡을 데도 없는 상태로 개를 싣고 갑니다. 그런 상태로 뜨거운 6월의 태양 아래를, 또는 아주 더운 나라를 달리면 개들은 이리저리 미끄러지다가 다리를 다치기도 하고 태양의 열기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라면 견딜 수도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무감각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든 상대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이 이해되고 내 일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나에게 여러분이 얼마나 깨달았는지, 여러분이 어떤 등급의 성인인지 묻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며 불쌍한 동물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면 자신의 등급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보다 총명해야 마땅합니다. 보다 총명해지면 모든 것을 예전보다 더욱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뜨게 되면 더욱 잘 보이겠지요! 그러니 자기 자신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언제 5세기에 도달하고 언제 스승이 될 것인지 나에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몇 마리 동물을 구해 또 다른 고통으로 내몰고 외면하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니 다시 가슴이 아파지는군요. 내가 이 세상 모든 개들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학대받거나 고통 받는 동물을 보거나 옳지 않은 일을 본다면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단지 곤란하다는 이유로 그 상황을 외면해선 안 됩니다. ★

감로법어

칭하이 무상사/ 1992. 6. 18. 미국 뉴저지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256**

배려심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며 여러분을 보다 민감한 높은 의식으로 고양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칭하이 무상사/ 1996. 4. 2. 태국 방콕 (원문 중국어) **비디오테이프 No. 542**

우리는 무엇을 하든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일을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그리 많이 생각지 않지요. 다른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망설이지 않고 바로 행합니다. 이것이 성인의 품성입니다.

CONTENTS

차례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뉴스잡지 170호

출판일자 : 황금시대 3년(2006년) 10월 14일

설립년도 : 1990년 4월 1일

발행처 :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 Hsieh Hsin-lin

인쇄처 :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 (02) 577-2158/ (042) 543-9250

www.godsdirectcontact.or.kr

chinghaikpt@yahoo.co.kr

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인터넷 상에 한국어·중국어 간체 및 번체·영어·어울락어·스페인어·프랑스어·독일어·태국어·일본어·인도네시아어·포르투갈어·몽골어 등 전세계 각국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 2 **스승님 말씀**
사랑의 당부-다른 존재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라
- 3 **감로법어**
- 5 **다채로운 이벤트**
미국/ 인도네시아
- 9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도덕성과 용기, 자기 존중의 마음을 발휘하면 타인의 존중을 받는다
- 10 **특별 보도**
USA 투데이 할리우드 영웅상/ 2006년 안전 농장 연례 행사/ 동아시아 NGO 포럼
- 18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청정한 삶이 온 세상을 천국으로 만든다
- 20 **전세계 우수 정책 시리즈**
브루나이/ 캐나다/ 동물 친구들의 복리를 위해 애쓰는 정당/ '동물 애호당'에 수여한 상장
- 25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일**
세계 봉사에 전념하는 빌 게이츠
- 26 **관음 웹사이트**
- 27 **스승과 제자 사이**
노래를 통한 영성의 고양/ 새 출발: 신을 갈망하는 마음
- 28/ 36 **스승님의 농담**
절묘한 타이밍/ 치료, 아니면 치료?
- 30 **신의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며**
관음법문으로 자라난 우수한 차세대 수행자
- 34 **청하이 무상사 TV 프로그램**
마음을 깨우치는 특별한 프로그램: '재난은 인류의 부정적인 생각에서 비롯된다'
- 37 **무상 예술**
천상의 음악과 시를 통한 신의 사랑
- 38 **골라 뽑은 수행 문답**
모든 존재는 보이지 않는 사랑의 힘으로 연결되어 있다/ 가족의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자/ 영혼과 신을 새롭게 연결하자/ 신의 사랑의 빛나는 모범이 되라
- 42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스와질란드와 모잠비크/ 남아프리카/ 미국/ 브라질/ 일본/ 중국/ 대한민국/ 호주/ 카타르와 그리스/ 터키/ 오스트리아/ 모로코
- 69 **이야기 세상**
모로코에서의 감동적인 만남
- 70 **채식 시대**
전세계 엘리트 채식주의자 (후속 명단)
- 72 **동물의 감성 세계**
사랑의 기운이 천적을 친구로 만들다/ 동물의 총명함과 모성애/ 물에 빠진 여덟 살짜리 주인을 구해낸 충견/ 동물은 영리한 중생이다
- 76 **양서 입문**
동물의 영적 세계-『동물의 영혼』을 읽고 나서
- 78 **유용한 정보**
새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스승님이 알려 주신 팁
- 80 **사랑의 실천**
인도네시아/ 청하이 무상사와 국제협회의 인도네시아 요그야카르타 지진 구호 활동 지출 일람표/ 미국
- 86 **사랑의 바다에서 온 물방울**
위대한 성인의 세심한 사랑을 목격하며
- 87 **매체 보도**
위크엔드 발리타
- 89 **수행 수상록**
'단순한 기쁨'을 깊이 체험하다
- 90 **청하이 무상사 영성 서적 시리즈**
- 96 **전세계 연락처**
- 99 **영혼의 고양**
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시집/ 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CD
- 100 **스승님의 최신 그림**

미국 캘리포니아 소식

시대의 조류: 캠퍼스 내 모든 구성원들이 채식주의를 받아들이다

새너제이 뉴스그룹 (원문 영어)

[캘리포니아 팰러앨토] 황금시대 3년(2006년) 5월 18일 목요일 스탠포드 대학에서 ‘베그페스트(Ve-gFest)’라는 완전 채식 축제가 열렸다. 이 특별한 행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동물에 대한 윤리적 대우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학생 단체인 ‘농장 동물 권리(Animal Rights on the Farm, ARF)’에 의해 마련되었다. (‘농장’은 스탠포드 대학의 애칭이다. 스승님께서는 이곳에서 1991년에 강연을 하신 바 있다.) ARF는 동물 실험 반대를 비롯해 채식 생활 방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들을 설파하고 있으며, 이 대학의 많은 학생들이 동물의 권익 보호에 관심을 갖고 있다.

완전 채식을 홍보하기 위해 ‘베그페스트 2006’ 주최측에서는 점심 시간 동안 캠퍼스 중앙에 있는 야외 공간인 ‘화이트 플라자(White Plaza)’에서 수천 명의 학생과 교수진, 교직원들에게 완전 채식 음식과 간식을 무료로 나눠 주었다. ARF는 행사 몇 주 전, 이 지역의 몇몇 채식 식당에 행사 참여를 요청했었다. 새너제이의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채식 식당도 이런 좋은 취지의 행사에 채식 음식을 제공하기로 한 식당 중 하나였으며, 동수가 운영하는 토푸 콤 체이(Tofoo Com Chay) 식당 또한 기꺼이 찬조했다.

스탠포드 ‘베그페스트 2006’ 행사에 새너제이 채식 식당과 토푸 콤 체이 식당을 대표해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새너제이 센터 동수들이었다. 우리는 많은 방문객들에게 채식 음식과 함께 ‘대안적인 삶’ 전단을

나눠 주었다. 몇몇 사람들은 우리의 채식 요리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으며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채식 요리 강좌에도 참가 신청을 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맛있는 채식 바비큐 소고기를 어디서 구했어요?”라고 묻기도 했다. 스탠포드 대학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대안적인 삶’ 전단을 흔쾌히 받아갔다. 실제로 몇몇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전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우리가 채식의 이로움을 말해 주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이해한다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또한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스탠포드 대학에는 학생들이 공동체 형식으로 같이 생활하는 6개의 공동 주택이 있다. 이 공동 주택의 학생들은 자치 조직을 만들어 주택 및 마당 관리, 기타 운영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집행한다. 이에겐 조정, 임대료, 및 공공시설 사용료 지불, 음식 준비, 청소 등의 일이 포함된다. 우리가 인터뷰한 학생들은 1970년에 세워진 ‘비둘기자리(Columbae)’
♥♥♥♥ 라는 공동주택에 살고 있었다. 스탠포드 대학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비둘기자리’는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공동 관리하는 채식주의자들의 공동 주택으로서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사회를 개혁하고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해보니 많은 학생들이 환경론 수업을 듣고 있었고 채식주의가 지구와 생태 환경에 매우 이롭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또한 동물의 권리와 공장식 축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설문지를 준비해서 공항 내 채식 식당 설립에 대한 반응을 묻는 동시에 서명도 받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지지를 표하며 기꺼이 서명해 주었다. 결국 정부와 기업은 현재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채식 인구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베그페스트’가 끝난 다음날 ARF는 스탠포드 대학 철학과 교수인 로버트 존스 박사(Dr. Robert C. Jones)

♥♥♥♥♥♥♥♥ 와 크리스 보보니치 박사(Dr. Chris Bobonich) ♥♥♥♥♥♥♥♥ 를 모시고 간담회를 갖는 자리를 마련했다. 보보니치 교수는 윤리적 방안을 비롯해 다른 존재에 대한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덕적인 선택이라는 점에 이르기까지 채식에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연설했으며 존스 교수는 영양학적이고 환경학적인 요소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완전 채식주의자에 관련해 자주 묻는 두 가지 질문, 단백질은 어디서 얻는가와 우유를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칼슘을 얻는가에 대해 존스 교수는 과도한 단백질과 지방으로 인해 더 많은 병이 생긴다고 하면서 서구식 식단에서는 단백질 결핍 문제가 거의 생기지 않으며 채식으로도 1일 권장 단백질 섭취량인 50그램을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채소에서 얻어지는 칼슘이 우유에서 얻어지는 칼슘보다 흡수가 더 잘 된다는 점도 설명했다.

존스 박사는 2004년 연구에 근거해 현재 인류의

식용을 위해 도살되는 동물이 미국에서만 매년 110억 마리나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공장식 축산으로 인해 고통 받는 동물의 참상에 대해 묘사하면서 이런 동물들에 대한 우리의 잔인한 행태를 숨김없이 보여 주는 사진들이 있는데 강연에서는 이 끔찍한 사진들을 보여 주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메일로 요청하라고 했다.

두 강연자 모두 매우 흡인력 있고 박식하고 논리 정연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동물이 받고 있는 고통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는 것이다. 강연회에 참석한 스탠포드 교직원과 학생들은 채식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상당히 수긍하는 듯했다. 이토록 지성적이고 자비로운 사람들이 미국의 저명한 대학을 더욱 빛내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감동적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고장·국가·세계에 긍정적이고 유익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채식주의가 이미 눈에 띄는 시대적 조류가 되어 감에 따라 세상의 모든 중생들의 영적 의식 또한 엄청나게 높아졌다. 이 모두가 신이 축복해 주신 덕분이다! ☆

참고:

<http://www.vrg.org/nutrition/protein.htm>

<http://www.vegansociety.com/html/food/nutrition/calcium.php>

http://www.upc-online.org/slaughter/2000slaughter_stats.html

<http://www.veganoutreach.org/articles/chart.html>

<http://www.vegansociety.com/html/food/nutrition/protein.php>

<http://www.vegansociety.com/html/food/nutrition/calcium.php>

인도네시아 소식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랑과 깨달음의 씨앗을 뿌리다

요그야카르타 뉴스그룹 (원문 인도네시아어)

[요그야카르타] ‘대안적인 삶’ 전단을 통해 전세계
구석구석에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스승님의 지시

를 받은 후 요그야카르타의 동수들은 황금시대 3년 (2006년) 2월부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이 임무를 수

행하기 시작했다.

1. 보건부서와 고위급 인사, 병원 방문객, 친구, 동료, 손님 및 대학생 등에게 전단 배포하기.
2. 기차역과 버스 터미널, 재래 시장, 변화가, 채식 식당, 발리 사원 및 미륵사에서 전단 나눠 주기.
3. 동수들이 운영하는 상점에 전단 비치하기.
4. 공공 게시판 및 대학교 게시판에 전단 부착하기.

조산원으로 일하는 한 사저는 전국 소아마비 예방 접종 주간에 직장 동료와 환자, 그리고 가족 계획 건강 서비스(Family Planning and Health Services), 인도네시아 조산원 협회 스라겐 지부(Indonesian Midwife Association Sragen Branch), PKK(Pendidikan Kesejahteraan Keluarga) 등 자신의 일과 관련 있는 여러 기관 및 단체에 혼자서 전단 4천 장을 배포했다. 이 중 PKK는 촌락 단위의 부녀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의 가정 복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3월 초, 배포 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대안적인 삶’ 전단 4,400부와 ‘채식 노벨 수상자와 과학자’ 전단 4,400부를 요그야카르타에서 가장 큰 양대 신문사인 『콤파스(Kompas)』와 『KR신문』에 끼워 넣어 배포했다. 이렇게 해서 2월부터 4월까지 총 2만 2천 장의 전단이 배포되었다. 위와 같은 일련의 활동을 통해 정말 큰 축복을 느낀 동수들은 이제는 더욱더 의욕적으로 이 동물 구제 활동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5월에 우리의 아름다운 스승님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요그야카르타 센터는 지역민들에게 스승님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채식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 전달할 기회를 찾았다. 스승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아셨던 듯 요그야카르타 센터는 갑자기

공지를 받아 몇몇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우리는 단 1주일 만에 아래의 세 가지 행사를 준비해냈다!

주를 참미하라!
5월 7일 요그야카르타 센터는 가자마다 대학(Gadjah



Mada University) 의과대 제2홀에 부스를 차리고 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기회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심신의 웰빙을 위한 명상과 요가’였다. 동수들과 위원회의 상호 협력 덕분에 200명이 넘는 손님이 참석해 스승님의 견본책자와 뉴스잡지, 명상 관련 팸플렛, ‘대안적인 삶’ 전단을 받았다. 세미나가 끝난 후 마젤랑(Magelang)의 한 사저가 손수 만든 맛있는 채식 빵을 제공했는데 순식간에 손님들과 위원회 사람들의 입으로 모두 사라졌다. 한 손님은 채식 빵이 이처럼 맛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5월 8일부터 11일까지 요그야카르타 센터는 요그야카르타 주립대학 도서관에서 열린 도서전에 참가했다. 참관객들 대부분이 무슬림 대학생들이었는데, 그 중 많은 여학생들이 질밥(여성용 두건)을 두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스승님의 얼굴에서 뿜어 나오는 신성한 흡인력에 이끌려 견본책자를 가져가거나 출판물을 훑어보았다. 약 8백 권의 견본책자와 뉴스잡지, 명상 팸플렛 및 ‘대안적인 삶’ 전단이 방문객들에게 배부되었다.

이 도서전은 요그야카르타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은 요그야 TV(Jogja TV)에도 보도되었다. 스승님의 책과 VCD, 포스터, 그리고 우리 부스를 녹화한 내용이 5월 17일 수요일 밤에 방송됨으로써 요그야카르타와 주변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스승



님을 뵙고 축복을 받게 되었다.

도서전 마지막 날 우리는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하고 스승님의 터키 이스탄불 강연 비디오인 '마음의 평정'을 상영했다.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 방편법을 가르쳐 준 다음 우리는 손님들과 다른 참관객들에게 채식 빵을 제공했다.

이어서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요그야카르타 센터 동수들은 자발적으로 도와주러 온 자카르타, 수라바야, 마젤랑, 퍼발링가(Purbalingga), 반자르네게라(Banjarnegara) 및 발리 동수들과 함께 와이삭 축전(Waisak Commemoration)에 참석해 '대안적인 삶' 전단을 배포했다.

40여 명의 동수들로 구성된 우리 팀은 멘뒿 사찰(Mendut Temple), 보로부두르 사원(Borobudur Temple), 폰독 텅갈 호텔(Pondok Tingal Hotel), 키야이 랑겐 투어 가든(Kyai Langgeng Tour Garden), 야시장, 버스 터미널, 기차역, 요그야카르타 궁, 말리오보로(Malioboro: 요그야카르타의 쇼핑 센터) 등에서 이틀 만에 8만 장의 전단을 배포했으며 이에 매우 뿌듯함을 느꼈다!

이 활동 기간 내내 우리는 많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멘뒿 사찰에서 전단을 나눠 주던 한 사제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세마랑(Semarang) 시에 배부하겠다며 전단 1천 부를 요청 받고선 기뻐 어쩔 줄 몰라했다!

우리 협회와 명상법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견본책자를 읽고 스승님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이들도 있었다.

우리는 보로부두르 사원 입구에 스승님의 포스터를 전시했는데 아이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의 포스터 앞에 멈춰 서서 오랫동안 쳐다보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 관광버스 안에서 전단을 나눠 주던 한 사제는 전단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버스의 가이드처럼 맨 앞에서 설명해 주었다고 한다.

이 즐거운 전단 배포 활동의 마지막은 5월 14일에

스승님의 생신을 경축하며 멋지게 마무리되었다. 인도네시아 여러 센터에서 온 동수들에게 있어 이날은 사랑하는 스승님이 주신 신성한 임무를 다 마친 직후 모두 함께 모여 경축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아주 뜻 깊은 날이었다. 우리는 먼저 스승님께서 영원토록 건강하시고 오래 사시기를 기도한 후 스승님 법상 앞에서 진실한 마음을 담아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그후 요그야카르타 센터에서 스승님께 바치는 수행가곡 '세상을 구하시어 아름다운 영혼(A Graceful Soul for the World)'을 들으며 다같이 식사를 했다.

동수들 모두 중생들에게 사랑과 깨달음의 씨앗을 뿌리는 이 고귀한 임무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에 큰 축복을 느꼈으며 기쁨으로 충만해졌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채식을 하고 스승님과 그 가르침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



도덕성과 용기, 자기 존중의 마음을 발휘하면 타인의 존중을 받는다

칭하이 무상사/ 1986. 9. 24. 포모사 타이베이 (원문 중국어)

어떤 남자가 군에 입대하자마자 대위 밑에서 일하게 됐어요. 대위는 매우 혹독했고 졸병들에게 자신의 명령을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물론 군인의 본분은 절대적인 ‘복종’이라고 하면서요. 어느 날 이 대위가 그 신병에게 자기 처소에 페인트칠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페인트칠이 끝나자 이번에는 솔을 씻으라고 시켰는데 신병이 아무리 찾아봐도 솔을 씻을 만한 천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대위는 근처에 쌓여 있던 다른 부대원들의 옷을 가리키며 그 중 아무거나 꺼내서 솔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어린 군인은 이 상황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난처해했습니다. 대위의 명을 따르려면 다른 사람의 옷을 훔쳐서 걸레로 쓰게 되는 건데, 다른 사람의 옷을 훔친 것이 발각되면 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렇다고 상관에게 불복종하자니 군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고민하다가 그는 옷을 훔치지 않기로 마음 먹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위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상관은 부하가 감히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에 매우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못 하겠다는 건가?” 신병은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저 훔치지 않겠다는 결심을 보여주듯 단호한 표정으로 상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대위는 그 부하가 결심을 굳혔다는 것을 알고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존경을 받을 만한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존중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존중할 것입니다. 군법에서도 절도를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병은 어떤 경우라도 훔치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던 겁니다.

사실 군인의 의무가 ‘복종’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도덕심’으로 인해 그는 이치에 맞고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줍니다. 그래서 천국도, 지옥도 우리 자신이 만든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뭘 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깨닫지 못한 사람의 말을 따라 그가 시키는 대로 한다면 우리는 독립적인 생각과 의지력이 부족한 탓에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

할 리 우 드 영 용 상

특 별 보 도

USA TODAY

USA 투데이

할리우드 영웅상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엔터테인먼트 팀 (원문 영어)

‘무한한 꿈’ 소속 장애 아동들과 자리를
함께한 지나 베순 여사. ♥♥♥♥♥♥♥♥
(앞줄 가운데 금발 여성).

황금시대 3년(2006년) 5월 17일, 전세계 판매 부수가 수백만 부에 달하는 신문 『USA 투데이(USA Today)』가 주관하는 제1회 ‘USA 투데이 할리우드 영웅상(USA Today Hollywood Hero Award)’ 시상식이 캘리포니아 비벌리힐즈의 비벌리힐즈 힐튼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칭하이 무상사는 특별 손님으로 초청되었으나 바쁜 일정 때문에 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대리인을 통해 지나 베순 여사(Ms. Zina Bethune)와 어린이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이 시상식은 비영리 조직과 함께 지속적으로 박애 활동을 전개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탁월한 공헌을 한 할리우드 연예인에게 상을 수여하고자 열린다. 올해 제1회 USA 투데이 할리우드 영웅상은 심신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업적이 큰 베

순 여사에게 수여되었다. 그녀가 기획하고 있는 ‘무한한 꿈(Infinite Dreams)’이라는 일은 이름이 말해 주듯이 신체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이 춤과 예술이라는 형식을 통해 자신의 육체적·정신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무한한 꿈’은 유엔의 ‘우수 메달(Medaille d'Excellence)’을 비롯해 여러 차례 수상한 바 있다.

베순 여사 자신도 전에 고관절발육부전, 척추측만증, 임파부종 등 심각한 육체적 장애들을 겪었으며 9차례나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그 중에는 실험적인 단계의 수술도 있었다. 그녀는 한때 조지 발란신(George Balanchine)에게 무용 훈련을 받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다시 걷고 춤추는 훈련을 했다. 베순 여사는 자신이 직접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능

력을 다해 장애 아동들이 공연 예술을 통해 용감하게 육체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칭하이 무상사는 언젠가 예술가에 관한 질의 응답 가운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음악가들과 예술가들은 매우 높은 의식 수준에서 온 반(半) 성인(聖人)입니다. 그들은 아름다움을 통해 세상에 봉사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춤과 예술에 대한 열정, 장애 아동들이 육체적 단점을 극복하고 신성한 예술에 몰두하도록 돕는 베순 여사의 희생과 헌신 속에서 그녀의 성인다운 품성을 엿볼 수 있다.

“무용 예술은 육체와 선입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베순 극무용과 무한한 꿈 (Bethune Theatredanse and Infinite Dreams)’의 예술 감독인 베순 여사의 말이다. “어쨌든 정신은 장애가 없습니다. 춤이란 아이가 팔다리를 얼마나 멀리 뻗을 수 있는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하고 공유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인 거

죠. 우리는 ‘얼마나 움직일 수 있니?’ 하고 묻지 않습니다. ‘와서 우리와 함께 춤추자’ 라고 하지요.”

공연 중에 한 작은 소년이 말했다. “그들은 내가 걸을 수 없다고 했지 춤을 출 수 없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진실로 신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기적을 이루시는지를 명백하게 보여 준다. 베순 여사의 말처럼 정말 영혼에는 장애가 없으며 이 육신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

육신의 본질에 대해 칭하이 무상사는 유럽 순회 강연 중 헝가리 부다페스트 강연에서 이렇게 말씀하

셨다. “영적인 경험에 의하면 우리는 한낱 육신이 아니라 여러 층으로 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위대하고 또 위대합니다. 오묘한 우주 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이 물질적인 행성에 존재하는 것과 동시에 서로 다른 여러 의식 차원에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 천국을 방문했다가 우리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시 이 육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이 이 육신이 아니며 진실로 신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건

두뇌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주적 힘과 하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존재, 진정한 존재, 이 행성에 사는 천상의 존재가 되어 이 세상에 살면서도 기쁨과 행복만을 누릴 것입니다. (뉴스잡지 107호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참고)

칭하이 무상사는 인류를 위한 사심 없고 자비로운 봉사에 일평생을 바쳐

우리의 육체·정신·영혼의 요구를 들어 주셨다. 스승님은 20년 넘게 세계 각지를 여행하면서 그때그때 요청되는 자선 활동과 관음법문을 통해 사랑과 깨달음의 메시지를 나누어 주셨다. 그 어떤 재정 지원이나 기부금도 받지 않은 채 그림, 패션 디자인, 보석 디자인, 작곡(이는 그 중 몇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등과 같은 창작 활동을 통한 소득으로 모든 인도주의 활동과 영적 사명을 수행하고 계신 칭하이 무상사야말로 살아 계신 진정한 스승의 귀감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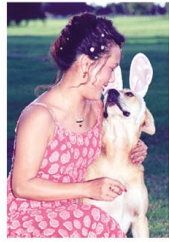
만찬 손님들을 위해 공연을 한 '무한한 꿈'의 장애 아동들.



2006년 안전 농장 연례 행사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엔터테인먼트 팀 (원문 영어)



Bea Arthur



Casey Affleck



Rosanna Arquette



William Baldwin



Kim Basinger



Peter Onyiah



Rue McClanahan



Mary Tyler Moore



Shelley Morrison



Kathy Najimy



Meredith Baxter



Ed Begley Jr.



Thora Birch



Linda Blair



Michael Bolton



Martina Navratilova



Kevin Nealon



Chynna Phillips



Bernadette Peters



Cassandra Peterson



Rep. Curt Weldon
(R-Pennsylvania)



Rep. Robert Wexler
(D-Florida)



Chevy Chase



Erik Estrada



Jorja Fox



Jennie Garth



Woody Harrelson



Stefanie Powers



Bonnie Raitt



Melissa Rivers



Charlotte Ross



Susan Sarandon



Sen. Fritz Mondale
(D-Washington)



Rep. Jerrald Nadler
(D-New York)



Emmylou Harris



Tippi Hedren



Christine Hynde



Natalie Imbruglia



Morgan Spurlock and
Alex Jamieson



Fred Schneider



Matthew Scully



William Shatner



Ally Sheedy



Gloria Steinem



Rep. Christopher Shays
(R-Connecticut)



Rep. Hilda Solis
(D-California)



Allison Janney



Ashley Judd



Ali MacGraw



Bill Maher



Dave Matthews



Charlee Theron



Lily Tomlin



Goran Visnjic



Betty White



Tracy and Noah Wyle



Rep. Lynn Woolsey
(D-California)



Sen. Ron Wyden
(D-Oregon)



Rep. Gary Ackerman
(D-New York)



Rep. William Lacy Clay
(D-Missouri)



Rep. Donald Claessens
(D-Minnesota)



Rep. Dennis Davis
(D-Illinois)



Rep. Russ D'Amico
(D-Connecticut)



Rep. Mike Doyle
(D-Pennsylvania)



Rep. John Lantos
(D-Georgia)



Rep. Carolyn McCarthy
(D-New York)



Rep. Jim McDermott
(D-Washington)



Rep. James McGovern
(D-Massachusetts)



Rep. Peter Stark
(D-California)



Rep. Chris Van Hollen
(D-Maryland)



Rep. Anna Eshoo
(D-California)



Sen. Dianne Feinstein
(D-California)



Rep. Michael Honda
(D-California)



Rep. Eddie Bernice
Johnson (D-Texas)



Sen. John Kerry
(D-Massachusetts)



Rep. Barbara Lee
(D-California)



Rep. Grace Napolitano
(D-California)



Rep. Donald Payne
(D-New Jersey)



Rep. Steven Rothman
(D-New Jersey)



Rep. Adam Schiff
(D-California)

'안전농장' 명예위원회

‘뉴욕’이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고층 빌딩과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화려하고 매력적인 도시가 떠오른다. ‘빅 애플(Big Apple)’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각양각색의 모습을 담고 있는 이 대도시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타임스 스�어, 센트럴 파크의 고향이자 전세계 패션과 금융의 중심지이다. 브로드웨이, 카네기홀, 매디슨 스�어 가든은 세계 각지에서 온 여행자들을 사로잡는 수많은 볼거리 가운데 몇몇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약 5년 전 2001년 9월 11일 맨해튼 금융 중심지인 세계무역센터에서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했다. 칭하이 무상사는 즉시 재난 희생자들을 위한 성금을 보냈고, 우리 협회 회원들도 곧바로 재해 지역으로 가서 구호 작업을 돕고 구조대원들에게 채식 음식을 제

공했다.

우리 협회 회원들은 황금시대 3년(2006년) 5월 20일 저녁에 열린 전혀 다른 성격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 비극이 서린 도시를 다시 찾게 되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뉴욕 시프리아니 월스트리트(Cipriani Wall Street)에서 ‘안전 농장(Farm Sanctuary)’이 주관하는 ‘안전 농장 20주년 행사’가 열렸기 때문이다. 뉴욕의 지표로서 뉴욕 시의 한 블록을 다 차지하고 있는 이 건물은 거대한 코린트식 네 기둥으로 둘러싸인 모습으로 그리스풍 건축 양식을 위풍 당당하게 재현하고 있다.

1986년에 설립된 ‘안전 농장’은 이 나라 최고의 농장 동물 보호소이자 동물 권리 옹익 단체이다. 이



조직의 주요 임무는 공장식 축산 농장에서 자행되는 잔인한 동물 학대 행위를 고발하고 저지시키는 한편 채식을 통해 동물에 대한 자비심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김 베이싱어(Kim Basinger), 마이클 볼튼(Michael Bolton), 애슐리 주드(Ashley Judd), 윌리엄 샤프너(William Shatner), 샤를리즈 테론(Charlize Theron) 같은 유명인사들이 이 단체의 명예위원으로 있다.

동물들의 비참한 처지를 가엾게 여기신 칭하이 무상사는 언젠가 우리 협회 회원들과의 비공식 모임에서 동물들에 대한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하신 바 있다. “동물에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영혼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도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칭하이 무상사는 채식을 하도록 격려하고 채식을 대안적인 삶으로 널리 장려하고 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 협회의 ‘대안적인 삶’ 전단 배포 활동이 이를 잘 입증한다.

동물을 위한 스승님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안전 농장’은 스승님을 이 자비롭고 뜻 깊은 행사에 초대했다. 그러나 스승님은 바쁜 일정 때문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대리인을 보냈다.

많은 유명인사들이 사회자와 수상자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동물 보호 운동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대릴 한나(Daryl Hannah), 알리시아 실버스톤(Alicia Silverstone), 데이빗 보레아나즈(David Boreanaz), 데니스 쿠치니치(Dennis Kucinich) 의원, 페르시아 화이트(Persia White), 그랜트 알렉산더(Grant Aleksander), 제임스 크롬웰(James Cromwell), 에밀리 디스채널(Emily Deschanel), 리사 에델스타인(Lisa Edelstein), 제시 아이슨버그와 하밀 케이트 아이슨버그(Jesse and Hallie Kate Eisenberg) 남매, 데이브 폴리(Dave Foley), 그렉 저먼(Greg Germann), 마리엘 헤밍웨이(Mariel Hemingway), 스우지 커츠(Swoosie Kurtz), 질 라슨(Jill Larson), 모비(Moby), 단 피라로(Dan Piraro), 린제이 와그너(Lindsay Wagner), 제임스 레이놀즈(James Reynolds), 폴 소르비노(Paul Sorvino), 로레타 스위트(Loretta Swit), 스티브 발렌타인(Steve Valentine), 조안 반 아르크(Joan van Ark)와 데브라 윌슨(Debra Wilson)

등이 이에 포함되어 있었다.

행사는 명사들과 특별 손님들을 환영하는 비공개 VIP 리셉션으로 시작되었다. 다음은 TV 프로그램 ‘예술과 영성’ 제작 팀이 이 리셉션에 참석한 유명 인사와 가진 인터뷰 내용이다.

알리시아 실버스톤(여배우, ‘클루리스[Clueless]’, ‘배트맨과 로빈[Batman & Robin]’ 출연): 해마다 미국에선 100억 마리의 가축들이 살해되는데, 정말 경악할 노릇입니다. 한 시간에 가축 100만 마리가 끼니거리로 도살되는 걸 생각하면 정말 괴롭습니다. 미국인은 아주 민감하고 자비로운 국민입니다. 만약 그들도 이런 공장식 농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안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 무슨 이유로 채식을 하게 되었나요? 완전 채식주의자(vegan)인가요? 아니면 일반 채식주의자인가요?

알리시아 실버스톤: 나는 완전 채식주의자입니다. 전에는 동물을 사랑했지만 육식을 했었어요. 그 연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간과했던 거지요. 하지만 상황을 알고 보니 그 두 가지가 서로 연관이 있더군요.

데니스 쿠치니치(미 하원의원): 우리 부부는 둘 다 완전 채식주의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렉 저먼(배우, ‘앨리 맥빌[Ally McBeal]’, ‘돈 많은 친구들[Friends with Money]’ 출연): 나는 여덟 살 된 아들에게 내가 하는 일이 뭔지 말해 주었습니다. 한 번 설명해 주었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가 동물을 잘 대해 주면 서로 잘 지내게 될 거예요.” 나는 이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든 동정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질문: 완전 채식주의자 또는 채식주의자가 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페르시아 화이트(여배우, ‘Girlfriends’ 출연): 채식주의는 20년이 넘었고 완전 채식주의자가 된 지는 5년 정도 됐습니다.

질문: 칭하이 무상사는 영적 지도자이며 인도주의자, 박애주의자입니다. 그분은 수백만 명에게 채식주의 하도록 깨우침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프로그램은 그분



의 인도주의적 활동과 채식을 하는 유명 인사에 대해 대중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화이트(칭하이 무상사님, 안녕하세요? 당신의 행하는 모든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멋져요. 고맙습니다.

단 피라로(‘비자로상(Bizarro Award)’을 수상한 만화가): ‘안전 농장’에 갔을 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는 소, 닭, 돼지, 거위들을 봤는데, 개나 고양이처럼 아주 귀엽고 감성적이더군요. 그러니 자기 개나 고양이를 먹지 않는다면 이 동물들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동물을 사랑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그들을 먹는 걸 그만둬야 합니다. 뒤로 미룰 일이 아니지요.

대릴 한나(여배우, ‘스플래시[Splash]’, ‘킬빌[Kill Bill]’ 출연): 나는 채식주의자입니다. 열한 살 때부터 채식했습니다. 당시 음식점 주차장에서 송아지 한 마리와 친해지게 되었어요. 내가 트럭 운전사에게 송아지 이름이 뭐냐고 묻자 “내일 아침 7시 송아지 고기란다.”라고 했습니다. 그후로는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동물을 먹는 것과 연관시킬 수 없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황에 의해 채식주의자가 됐다고 할 수 있어요. 우연히 뜻하지 않게 채식 시작해서 계속 그 상태로 있게 됐는데, 사실 채식은 가장 건강한 식생활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놀라운 종족입니다. 우리에게 미래 상상할 능력이 있고 원한다면 미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이 모든 안전에 관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그 내용을 설명해서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직시하게끔 해야겠지요.

조안 반 아르크(수상 경력이 있는 여배우, ‘Dallas’, ‘Knots Landing’ 출연): 나는 모든 동물에게 감정과 영혼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식으로 그들을 대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채식주의자입니다. 채식이 더 건강하다고 여겨서 얼마 전부터 채식 시작하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칭하이 무상사님! 당신의 모든 활동과 신념에 박수를 보냅니다. 축하드립니다!

마리엘 해밍웨이(여배우, ‘립스틱[Lipstick]’, ‘맨해튼[Manhattan]’ 출연): 동물들을 인도적인 방식으로 대하

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건 반드시 그래야 하는 일이고 또한 올바른 일입니다.

데이빗 보레아나즈(배우, ‘뱀파이어 해결사[Buffy the Vampire Slayer]’, ‘본즈[Bones]’ 출연): 바깥의 수많은 동물들이 부당한 취급을 당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거나 학대합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지요. 사람들이 그에 대해 좀 더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완전 채식은 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모비(음악인): 거의 20년간 완전 채식했습니다. 동물을 사랑해서 채식주의자가 되었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모비입니다. 칭하이 무상사님께 안부를 전합니다.

질문: 동물들을 대신해 말을 할 수 있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스우지 커츠(토니상과 에미상을 수상한 여배우, ‘The Fifth of July’, ‘라이어 라이어[Liar, Liar]’ 출연):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저도 영혼이 있고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고통과 아픔을 느껴요. 여러분의 고양이나 개처럼 제게도 잘 대해 주세요.

린제이 와그너(에미상을 수상한 여배우, ‘소머즈[Bionic Woman]’,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Paper Chase]’ 출연): 저는 우리에게 주변 환경과 동물, 다른 사람과 가족 등 그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게 잔인하게 행동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로레타 스위트(에미상을 수상한 여배우, ‘매시[M*A*S*H]’ 출연): 저는 완전 채식하며 동물을 입지도, 먹지도 않습니다.

진 보스톤(Gene Bauston: ‘안전 농장’ 회장이자 공동설립자): ‘안전 농장’은 농장 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점과 처우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먹는 음식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동물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 농장’은 사람들을 교육시켜 인식을 높이고자, 그리고 좀더 인도적인 음식을 선택하도록 독려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지금 잔인한 공장식 농장 체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동물과 인류에 대한 칭하이 무상사의 고귀한 활동에 대해 알게 된 많은 귀빈들이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들은 TV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채식에 관한 칭하이 무상사의 강연이 담긴 DVD '진정한 영웅'을 기쁘게 받았다. 이 DVD에서 칭하이 무상사는 “채식으로 진정한 영웅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스승님이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기에 유명 인사들은 칭하이 무상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필 서명을 했다. 이번 행사의 기념 책자에도 칭하이 무상사와 특별 프로그램 '진정한 영웅'을 소개하는 데 특별히 한 페이지가 할애되었으며 칭하이 무상사의 말씀 중 일부분도 실렸다. “우리가 진정으로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따라 살려면 우리 동물 친구들도 마땅히 이웃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특히나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주지 않으니깐요. 그들은 우리 삶을 아름답게만 해줍니다. 그들은 매우 사랑스러우며 우리 삶을 생동감 넘치고 다채롭고 즐겁게 만들어 주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잘 보호하고 보살피며 그들의 존재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신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친구로, 너희의 조력자로 이 모든 동물들을 창조했노라.’” (칭하이 무상사/ 1991. 2. 24. 미국 하버드 대학 (원문 영어) 뉴스잡지 134호 '지혜어록'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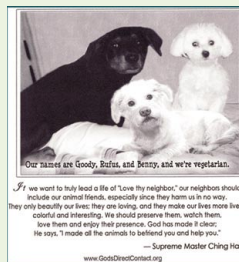
그날 만찬은 풍성한 채식 요리와 시상식으로 멋지게 진행되었다. 그 자리에서 함께 나눈 정보들은 많은 이들에게 마음을 열고 곤경에 처한 가축들에게 자비심을 갖도록 일깨워 주었다. 우리는 가까운 장래에 인간과 동물, 모든 존재들이 보다 인도적인 세상을 다같이 누릴 수 있길 희망한다. 이는 칭하이 무상사의 비전이기도 하다.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는다면 아무도 죽이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가축을 키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음식이 원래대로 사람들의 먹거리가 되고 모두들 더 건강하고 튼튼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우리 나라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 좋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만들고 동물을 키우는 데 많은 돈을 낭비합니다. 모든 경작지, 아니면 대부분의 경작지가 오늘날 소, 돼지 같은 가축을 사육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땅을 건강에 이로운 식량을 재배하는 데 쓴다면 모든 나라에 좀더 유익할 것이며 우리 나라는 더욱 평화로워져 무장 방위를 할 필요도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육식만 포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 자신의 건강과 나라의 건강, 나아가 이 세상을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칭하이 무상사/ 1989. 10. 13.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 (원문 영어) 뉴스잡지 102호 '스승님 말씀' 중에서)

스승님, 모든 중생을 평화와 사랑으로 충만한 고귀한 의식 세계로 고양시키는 당신의 자비로운 활동에 동참할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 페이지 반에 걸쳐 칭하이 무상사와 특별 프로그램 '진정한 영웅',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동물에 대해 언급하신 칭하이 무상사의 지혜로운 말씀이 소개된 기념 책자.



칭하이 무상사에게 자필 서명 사진을 보낸 명사들.

1. 스우지 커츠(토니상과 에미상을 수상한 여배우, 'The Fifth of July', '라이어 라이어' 출연).
2. 데이빗 보레아나즈(배우, '뱀파이어 해결사', '본즈' 출연).
3. 스티브 발렌타인(배우, '크로싱 조던(Crossing Jordan)' 출연).
4. 그랜트 알렉산더(채식을 하는 배우, 'Guiding Light' 출연).
5. 대릴 한나(채식을 하는 여배우, '스플래시', '킬빌' 출연).
6. 페르시아 화이트(완전 채식주의 하는 여배우, 'Girlfriends' 출연).
7. 알리시아 실버스톤(완전 채식주의 하는 여배우, '클루리스', '배트맨과 로빈' 출연).





동아시아 NGO 포럼

포모사 뉴스그룹 보도 (원문 중국어)

한금시대 3년(2006년) 6월 1일부터 2일까지 동아시아 비정부기구(Non-Government Organization, NGO) 포럼이 일본에서 개최되었다. 그 동안 전세계 각지의 구호 활동에 빈번히 참여하고 중화민국 외교부(MOFA)와 여러 차례 협력한 경험을 인정받아 외교부의 특별 초청으로 이번 회의에 참여하게 된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는 이를 통해 다른 비정부기구들에 대해 배우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일본 재단(The Nippon Foundation), 타이완 루트 의료 평화 봉사단(Taiwan Root Medical Peace Corps), 일본 BHN 협회(Japan BHN Association)가 공동 주최하고 중화민국 외교부 산하 NGO 위원회가 후원한 이번 포럼에는 중화민국 외교부 대표들 외에 포모사, 일본, 미국의 NGP 대표들과 학술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첫날 아침의 토론 주제는 '파키스탄 지진 긴급 구호 활동'이었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대표 류덩제(劉登傑) 박사와 일본 BHN 협회 대표가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류 박사의 보고서는 우리 협회의 파키스탄 지진 구호 활동 경험을 위주로 해서 스승님의 영적 가르침과 채식주의와 인도적 구호 활동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를 통해 우리 단체가 하는 일과 칭하이 무상사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발표를 끝내자 한 여성 대표가 스승님께서 밀라노, 파리 같은 세계 유명 도시에서 패션 쇼를 열기까지 하셨다는 점과 우리 단체가 외부에 기부금을 요청하지 않고도 재난 구호 활동을 펼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스승님께 존경을 표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에서 스승님이 많은 동물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표지 사진을 보고 놀라워했다.

첫날 오후 토론은 NGO들 간의 협력 활동을 주제로 한 것이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시민 단체 후원 법률 제정을 위한 일본 연합(Japan's Co-

alition for Legislation to Support Citizens' Organizations'의 발표였다. 이 조직은 비영리조직의 활동 촉진법에서부터 세금 우대 제도에 이르기까지 비정부기구 활동에 관련된 입법 활동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 국제 교류 기금(JPF, Japan Platform)은 정부 조직과 민간 조직이 국제 구호 및 구조 활동에 있어 자원을 공유하고 시간과 재정을 충당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확립하고자 한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끝으로 포모사 국제 수색 구조 본부(International Headquarters of Search and Rescue)가 제출한 보고서는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포모사 NGO들의 모습을 잘 드러냈다. 이 조직의 회원은 2만 명이 넘는 데 그 가운데 언제든 구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2천 명이나 된다고 한다!

포럼 둘째 날 아침에는 JPF, 평화의 바람(Peace Wind), 국제 자비회(Compassion International), 누르도프 두개 안면 기금(Noordhoff Craniofacial Foundation)의 발표가 있었다. 이날 가장 두드러진 발표는 누르도

프 기금이 포모사 사업가들과 카리타스(Caritas), 월드비전(World Vision), 일본의 국제 개발 구호 기금(Foundatio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Relief, FIDR) 등 3개 NGO 단체들의 후원을 받아 캄보디아 언청이 환자들을 위한 무료 진료와 수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실을 보고한 것이었다.

이번 포럼에 참가할 수 있는 영광을 가진 류 사형은 동수들과 함께 소감을 나누었다. “우리는 스승님의 가르침에서 배우는 모든 것을 실천해서 우리 자신의 지혜로 삼아야 합니다. 국제적인 재난 구조 및 구호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무수한 자연 재해와 인재(人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경과 종교, 인종, 문화를 초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대표로 일본 NGO 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류당지에 박새맨 오른쪽.

주: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파키스탄 지진 구호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뉴스잡지 161, 163, 164호를 참고하세요.

행사 메모

현재 진행 중인 지구의 영성 고양에 발맞춰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비디오 강연회와 흥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친구·친척들과 참석해 스승님의 사랑과 지혜를 함께 나누십시오.

최근의 흥법 활동 일정에 대해선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atest_news/events-datebook.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latest_news/events-datebook.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어)



청정한 삶이 온 세상을 천국으로 만든다

칭하이 무상사/ 2006. 1. 8. 영국 서리 (원문 영어)



사실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고分別력이 있다면 영적으로 더욱 깨어 있고 생각이 분명한 세계 지도자를 뽑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은 자기 자신을 잘 수양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고대 성현들이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은 먼저 자기 자신을 닦아야 합니다.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돕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겠습니까? 죽은 뒤 자기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온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고사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도하거나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먼저 자신을 잘 계발해야 합니다. 지혜로워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상과 훈련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청정하고 신체가 건강해야만 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술은 여러분의 상태를 악화시키며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알코올과 담배가 여러분의 건강을 악화시킨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나라를 다스리고 싶다는 사람들이 자신을 망치는 거지요? 그러니 먼저 자신을 훈련시켜 명상을 함으로써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면의 지혜를 발견해야 하며 자기 자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의 가정을 돌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에겐 당연히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만약 어린아이에게 하루 종일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모습이나 보인다면 어떻게 가족을 돌보겠습니까? 자신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할 일 없이 빈둥거리거나 한다면 그것 또한 아이들에게 나쁜 모범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먼저 지혜와 덕으로 자신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가정도 돌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고대의 현인들은 결코 가정을 이루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 다. 단지 자신을 잘 수양하고 나서야 가정을 돌볼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나라를 다스린다’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평화롭게 한다’ 고까지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알겠습니까? 한 나라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잘 닦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갖고 있는 큰 힘입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지혜롭고 깨어 있었다면 보다 신

중하게 지도자를 뽑았을 것입니다.

수행자는 세상 사람들의 빛나는 모범이다

좋은 정부라면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총명하길 바랄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정부 지도자들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정부가 그 일을 하도록 돕는다면 그는 정부의 친구임에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의 친구인 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회가 술 취하지 않고 깨끗하고 도덕적이며 고양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그 본보기를 퍼트려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정부든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평화를 지키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깨끗하고 행복하고 범죄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그렇게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정부든 우리에게 상을 주고 “잘하고 있군요. 여러분은 저희에게 도움이 됩니다!”라고 칭찬해 줘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돈을 낼 필요도 없지요. 모든 정부는 범죄를 방지하고 범죄자들을 잡아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나 군대에 돈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돈도 받지 않고 경찰과 충돌을 일으키지도 않으며 아무도 해치지 않고 사람을 해칠 무기도 없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처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부터 채식을 하지는 않겠지만 술과 마약, 담배를 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깨끗하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또한 돈도 많이 절약되고 모두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집과 차를 갖게 되고 건강해질 것이며 집집마다 화목해져서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비극적인 일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거나 줄어들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집에서는 아이들을 잘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불량학생이 됩니다. 집에서 좋지 않은 본보기들을 봤기 때문이지요. 어쩌면 아버지가 매일 술에 취해 가족들을 때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는 그걸 보고 배우거나 그 때문에 좌절하게 됩니다. 또는 아버지가 술을 마시다 죽거나 다른 사람을 죽여서 감옥에 갈 경우 어머니와 남게 된 아이는 낙담하게 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을 지배하거나 불량배가 되는 그런 방법밖에 모르니까요. 그 가족은 좋은 모범이 되어 주지 못한 것입니다. 파탄 난 가정에서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이 자란 아이에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런 아이의 아버지는 감옥에 있거나 죽었거나 몸을 못 쓰거나 식물인간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엔 아버지가 술을 먹고 집에 와서 가족들을 때리거나 술 때문에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배우지 못

하고 방어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건 정말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아이는 연약하고 두렵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자라 나중에는 다른 아이를 못살게 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술과 고기, 담배를 없앤다면 가정도 더 화목해지고 학교도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생활은 정말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 사람이나 한 가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나는 온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우리를 모범 삼아 따라한다면 나에게 명상을 배우거나 모두가 성인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그들을 가르칠 필요도 없고 그들 또한 나를 찾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청정한 삶을 살기만 하면 됩니다. 신께 기도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그 어떤 대상에게 기도해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미덕과 훌륭한 삶이 온 세상에 영향을 끼쳐 전 세계가 천국이 될 것입니다. 나는 전혀 필요 없지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할까요? 왜 보다 많은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런 깨끗한 생활 방식을 추진해 행복하고 평화로운 천국을 만들지 않을까요? 만약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 가정을 돌보고 싶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최소한 모범을 보여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자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니까요. 여러분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로서 여러분은 적어도 자기 나라만 큼은 바꿀 수 있습니다. ✨

전세계 우수 정책 시리즈

밝은 미래를 여는 깨달은 정부

스승님의 지시에 따른 보도 및 스승님의 평점



브루나이



브루나이 정부의 덕치 정책

타오위안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브루나이는 1929년 대량의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이 발견됨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이런 경제적 부강은 국민들에게 안정되고 조화롭고 풍족한 생활을 가져다 주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나라의 성공을 높은 평균 국민 소득(매월 미화 약 2천 달러)과 함께 브루나이 국민들이 이슬람 교리를 충실히 지켜온 덕분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여기에는 브루나이의 술탄 ♥♥♥♥♥♥♥♥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국민들을 자식처럼 여기는 술탄 볼키아(Sultan Haji Hassanal Bolkiah)는 수많은 모범적인 통치를 보여 주었다. 이를테면 국민들은 모두 무료 의료 서비스와 무상 교육을 받으며 개인 소득세가 면제되고 개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자율이 낮은 임대 주택의 혜택을 입고 있다. 그래서 브루나이 국민들은 자기 나라를 ‘평화가 깃드는 곳(Abode of Peace)’이라고 자랑스럽게 부른다.



무료 의료 서비스

브루나이 보건부의 정책은 국민들에게 최고 수준의 건강 제도를 제공하는 것을 방침으로 삼고 있다. 국민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관된 정책이 실질적인 성공과 진보를 가져오고 있다. 이를테면 브루나이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완전 무료로 치료를 받고 있다. 비행 의료 시스템이 벽지나 수상촌의 사람들을 돌보고 있고 군인과 그 가족들도 독립적인 군 의료 시스템의 서비스를 누린다. 국내에서 불가능한 매우 전문적인 의료 기술을 요할 경우엔 브루나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다른 나라에 가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전세계 우수 정책 시리즈

밝은 미래를 여는 깨달은 정부

스승님의 지시에 따른 보도 및 스승님의 평점

주택 보조금

브루나이 주택 정책의 장기적 목표는 국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환경 속에 자신의 주택을 마련하게 하는 것이다. 취업 인구의 80%가 정부 기관에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장기간에 걸쳐 저금리로 대출을 해줌으로써 국민들이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집을 지을 땅이 없는 정부 소속 직원들의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있고 20년에서 30년 안에 상환하면 된다. 또한 정부는 고용인들에게 주택 보조금을 제공해 아주 낮은 가격으로 정부 숙소를 빌려주고 있다. 이 밖에 LICS(Landless Indigenous Citizens Housing Scheme, 땅 없는 원주민을 위한 주택 계획)라는 정책도 있다. 브루나이 4개 주에 분포된 8개 지역의 원주민 가운데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이 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4,600호도 넘는 집이 완공되었고 1,200호가 넘는 집이 공사 중이다. 또한 이재민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고 술탄 볼키아는 재단(Sultan Haji Hassanah Bolkiah Foundation)을 만들어 캄퐁 아예르(Kampong Ayer) 수상촌에 두 개의 마을을 새로 세웠다.



브루나이가 1984년에 정식으로 독립한 후 술탄 정부는 말레이 이슬람 왕정(Melayu Islam Beraja, MIB)을 채택하고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해왔다. 브루나이 정부는 현대적인 국가를 건설하는 동시에 이슬람 교리를 철저히 지켜 1991년부터 술 판매를 금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브루나이 정부는 이슬람력(曆)의 금식하는 달인 라마단(Ramadan)을 상당히 중시한다. 라마단 기간 동안 모든 무슬림들은 새벽부터 일몰 때까지 반드시 금식해야 하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유혹을 멀리하고 욕망과 생각을 다스리고 수행 진보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공무원들과 고용인들은 모두 하루에 일곱 시간에서 여섯 시간 반 정도로 일을 줄이고 모든 여흥 활동도 잠시 중지된다. 독실한 무슬림인 브루나이의 술탄은 국민들에게 아침에 일하러 가기 전에 코란을 읽음으로써 알라의 축복과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하기도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정치적 경쟁 상대도 없고 압박도 없는 술탄이 기꺼이 진심을 다해 국민들을 모든 면에서 돌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의 훌륭한 통치 속에서 브루나이 국민들은 자신이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사실을 명예롭게 느낄 뿐 아니라 국민의 행복에 이토록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통치자가 있다는 데 큰 자부심을 갖는다. ★



전세계 우수 정책 시리즈 밝은 미래를 여는 깨달은 정부

스승님의 지시에 따른 보도 및 스승님의 평점



캐나다

흡연 종말의 시대가 눈에 보인다

스티븐 트란 사형 정리/ 미국 플로리다 폰데베드라 (원문 영어)

캐나다에서 흡연이 날이 갈수록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고 있다. 캐나다 동부에서 가장 큰 두 주(州)인 온타리오 ♥♥♥♥♥♥♥♥와 퀘벡 ♥♥♥♥♥♥♥♥의 흡연자들은 공공장소 흡연을 금지시킴에 따라 황금시대 3년(2006년) 5월 31일 화요일 공공장소에서 마지막 담배 한 개비를 피웠다. 퀘벡 주의 법령은 온타리오와 비슷하게 식당, 술집, 카지노, 볼링장, 빙고 홀, 교회, 학교 뜰, 건강 기관 주변 외부 구역 같은 장소에 적용된다.

퀘벡 전 지역에 해당되는 이 금연법은 금연에 관한 지방 법령이 없었기 때문에 퀘벡에는 매우 중대한 변화이다. 온타리오의 금연법은 혼자서 회사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에게도 적용된다. 이에는 속달 배달원, 택배원, 택시 기사 및 기타 관련 직원 등이 포함된다. 현재 아파트 단지의 공용구역, 사무실, 건물의 로비, 술집, 작업장 등 온타리오 주와 퀘벡 주의 공공장소 내 흡연은 불법행위에 들어간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식당도 이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이 밖에 의료 시설과 보건 시설의 9m 안에서는 어떤 흡연도 허락되지 않는다.

이 법은 담배 판매 장소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오로지 바닥과 문이 있는 고정 건물 안에서만 담배를 팔 수 있는데 술집과 식당은 여기서 제외된다. 2007년에는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가 금지되고 편의점에서도 공개적으로 담배를 진열하지 못하게 되며 대형 담배 광고판도 금지된다.

흡연자가 처음 금연법을 위반했을 때는 캐나다 달러로 50달러(미화 45.5달러)에서 300달러(미화 272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며 두 번째로 위반했을 경우에는 100달러(미화 90.9달러)에서 600달러(미화 546달러)가 부과된다. 금연 장소의 소유자에게는 1천 달러(미화 909달러)에서 1만 달러(미화 9,09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퀘벡주 가티노(Gatineau) 시의 마르크 뷔레(Marc Bureau) 시장의 말에 따르면 “이 법령은 다음 세대들과 사람들의 건강에 이로움을 줄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된 질환의 환자들이 줄어들게 되어 의료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 참고 사이트: 1. <http://www.cbc.ca/news/background/smoking/smokingbans.html>
2. <http://www.cbc.ca/ottawa/story/ot-smokingban20060530.html>
3. <http://ca.news.yahoo.com/s/29052006/2/national-ontario-quebec-play-good-cop-bad-cop-smoking-ban.html>
4. <http://ca.news.yahoo.com/s/21052006/2/national-quebec-counting-days-smoking-banned-public-places.html>



전세계 우수 정책 시리즈

밝은 미래를 여는 깨달은 정부



세계 우수 지도자상

동물 친구들의 복리를 위해 애쓰는 정당

로이 마나트 사형/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카테리진 로스차일드 사저/ 영국 서리 (원문 영어)

황금시대 3년(2006년) 6월 1일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표들은 세계 우수 지도자상(Shining World Leadership Award)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동물 애호당(Partij voor de Dieren[Party for the Animals])에 수여했다. 이 당의 암스테르담 사무소 에스더 위웬드(Esther Ouwehand) 소장이 상을 전해 받았다. 행사는 실내가 아닌 폰델 공원(Vondel Park)에서 진행되었는데, 이 아름다운 곳은 모든 동물들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에 꼭 알맞은 곳이었다.



‘동물 애호당’을 대표해 세계 우수 지도자상을 받은
에스더 위웬드 여사.

‘동물 애호당’은 오로지 동물의 복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 정당으로서 동물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동물 보호를 확실히 보장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 당은 2004년 역사적인 유럽 연합 선거 운동 중에 그 고귀하고 정직한 메시지를 전달해 수백만의 네덜란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현재 수많은 지지자들이 생겨 다음 2007년에는 네덜란드 의회에 진출하고 다음 선거 후에는 유럽의회 의 한 부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물 애호당’은 전세계 동물 복지 단체들에게 큰 힘을 주고 훌륭한 모범이 되었다. 이 정당의 고귀한 모범을 따르는 나라들이 점점 더 늘어남에 따라 전세계 수십억 동물들의 생존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며 모든 존재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두루 퍼지게 될 것이다.

시상식 후 가진 인터뷰에서 위웬드 여사는 소속 당이 ‘세계 우수 지도자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자신들의 일을 계속해 나가라는 큰 격려로 여기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네덜란드 어떤 정당에서도 동물 복지에 대한 안건을 제출하지 않았던 2002년에 이 정당이 만들어졌으며 그때부터 당원들은 동물들에 대한 식품 공장의 잔혹한 행위를 저지하는 한편 사냥 및 동물 실험 제한 등 동물 권리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일깨우는 일들을 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덜란드에서 매년 수천 마리의 동물이 실험용으로 도살되고 있다.

채식주의에 대한 당의 견해를 묻자 위웬드 여사는 채식을 하는 것은 동물을 이롭게 할 뿐 아니라 인류와

전세계 우수 정책 시리즈 밝은 미래를 여는 깨달은 정부



세계 우수 지도자상

환경에도 아주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번 수상에 대해 다시 한번 스승님께 감사하며 동물들과 세상을 위해 스승님이 하시는 비범한 일들이 성공하기를 희망했다. ★



시상식 후에 이어진 위헨드 여사와의 인터뷰.

‘동물 애호당’에 수여한 상장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중화민국(포모사) 미아오리 현 시후 향 사서함 9번지

2006년 4월 12일

동물 애호당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1090AB
Postbus 92082

동물 애호당 대표님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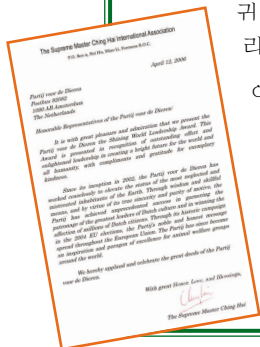
무한한 기쁨과 존경의 마음으로 동물 애호당에 ‘세계 우수 지도자상’을 드립니다. 이 상은 전세계와 모든 인류를 위해 밝은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하신 분의 업적과 뛰어난 지도력을 기리고 훌륭한 모범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고자 수여됩니다.

2002년 창당한 이래 귀 당은 지구상에서 가장 홀대받고 학대받는 거주민들의 상태를 개선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주셨습니다. 지혜와 원만한 방법을 통해, 그리고 신실하고 진실된 마음과 순수한 동기를 통해 여러분의 당은 네덜란드 문화계의 위대한 지도자들의 지지를 얻었으며 수백만 네덜란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 역사적으로 유례 없는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2004년 유럽연합 선거 운동을 통해 귀 당의 고귀하고 정직한 메시지가 유럽연합 전역에 퍼지게 됨으로써 ‘동물 애호당’은 전세계 동물 복리 단체에 큰 힘을 주고 또한 우수한 모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동물 애호당의 위대한 업적에 박수와 함께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크나큰 존경과 사랑, 축복을 보내며

칭하이 무상사



세계 봉사에 전념하는 빌 게이츠 ♥♥♥♥♥♥♥♥

플로리다 뉴스그룹 (원문 영어)



2006년 6월 15일,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인 50세의 빌 게이츠(Bill Gates)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사임하고 자신의 아버지와 아내와 함께 관리하는 자선기금인 게이츠 재단(Gates Foundation)에 전념하겠다고 발표했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이 발표에서 그는 청중들에게 “부(富)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10년 전 이 재단을 설립한 이래 게이츠는 일반적인 방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돈을 기부해 왔다. 많은 부유한 자선가들이 돈을 내고 지역 건물에 자기 이름을 새겨 넣는 것과는 달리 그는 아프리카의 질병 문제 해결과 같은 전세계적인 일에 기금의 70%를 사용했다. 이 재단의 표어는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은 모든 생명은 동등하다는 신념으로 세계의 불평등을 줄이고 세계인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이다.

게이츠는 경쟁적인 사업 방식 때문에 종종 비난을 받아 왔지만 자선 사업에 대한 결과 지향적인 접근 방식은 공중보건 공무원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존스 홉킨스 대학(Johns Hopkins University)의 한 직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얼마 전만 해도 사람들은 말라리아 백신을 만들어 낼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빌은 오히려 ‘아니에요. 한번 해 봅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고서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지요!”

게이츠 재단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개인 재단으로서 많은 나라의 대외 원조를 웃도는 지원을 제공한다. 공중보건에 대한 기부금 하나만으로도 세계보건기구(WHO)와 맞먹으며 말라리아와 폐결핵 같은 질병에 대한 신약 개발 부문에서는 전세계에서 들어오는 기금의 반을 기부한다. 최근에는 어린이 면역 주사를 위해 15억 달러를 할당하기도 했다.



게이츠는 아프리카의 질병과 빈곤 퇴치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았고 2006년 5월에는 ‘스페인 노벨상’ (‘Spanish Nobel Prize, 또는 아스투리아스 왕자 국제 협력상[Prince of Asturias Awar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을 수상했으며 그의 아내와 함께 『타임(Time)』지에 의해 2005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다.

빌 게이츠에 관한 재미있는 사실들

게이츠는 때로 세계에서 가장 영리한 사람으로 일컬어진다. 그는 고등학생 때 회사를 설립해 교통량 데이터 시스템을 주 정부에 판매했다. 그 후 하버드 대학에 진학한 뒤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최초의 하드웨어 PC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그는 최초의 소비자 프로세스 칩이 출시되자마자 하버드 대학을 그만두고 20세의 나이에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설립했다.

그는 ‘비범한 정신적 처리 능력’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전설이 되었다. 그는 동시에 두 대의 컴퓨터로 일하고, 매일 100통의 이메일을 보내고, 4백만 통의 이메일을 받는다. 이 때문에 게이츠는 세계에서 ‘스팸 메일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으로 불렸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대표인 그는 해마다 헬리콥터로만 겨우 접근할 수 있는 숲 속에서 일주일 정도 은둔하며 미래 과학기술에 대한 수백 편의 과학기술 논문을 읽는다.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떠나면 세 명의 다른 경영진이 그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지만 소프트웨어 코드에서부터 국제 금융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 산업에 대해 그만큼 광범위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

게이츠는 지난 12년 동안 세계 제일의 부자를 차지했으며 자선 사업에 엄청난 금액을 기부하기 전 재산이 가장 많았을 때는 1천억 달러가 넘는 재산을 가진 세계 최초의 ‘조억장자’였다.

그는 현재 ‘자동화 주택’에서 살고 있다. 이 집을 지을 때 그는 새 도로 옆의 오래된 나무를 남겨 두기 위해 많은 애를 썼는데, 그 나무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사 본부에 있는 컴퓨터의 감도를 받아 물을 공급받고 있다.

그는 1980년대 몇 년 동안 채식을 했었다. ★

관음 웹사이트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전세계 인터넷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inks/links.htm>

이 포털 사이트는 여러 나라 언어로 된 관음 웹사이트로 바로 연결시켜 주며 ‘예술과 영성’이라는 TV 프로그램에 24시간 접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나라별 언어로 된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자와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를 전자책(eBook)이나 인쇄용 포맷으로 다운받을 수 있고 각 사이트의 온라인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노래를 통한 영성의 고양

중국 본토 동수 (원문 중국어)

올해 3월에 창작 수행 가곡 발표회에 관한 소식을 듣고 우리 센터는 20일에 걸쳐 노래를 만들고 공연하는 독창적인 활동을 진행했다. 이 작품들을 CD로 제작해 배포하자 동수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다! 많은 동수들이 감동을 받았으며 놀라기까지 했다. 모두들 우리 동수들이 이처럼 아름다운 노래들을 작곡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

그 노래들은 길 잃은 아이가 엄마를 만나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과 같은 모든 동수들의 심정을 잘 표현한 것이었다. 장 사저는 집에서 하루 종일 이 노래를 틀어놓고 심취한 나머지 밖에서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한다. 위 사저는 노래를 듣고 있으면 마치 스승님이 우리를 앞으로 떠미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으며, 많은 동수들이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됐어요!” 하고 좋아했다.

노래는 동수들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감동시켰다. 어느 나이 든 사저의 네 살 된 손녀는 하루 종일 칭하이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울면서 할머니에게 칭하이 엄마의 비디오를 틀어달라고 졸라댔다. 84세의 한 노모는 자기 딸이 집에서 노래 연습하는 것을 듣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리허설을 할 때 70이 넘는, 한 사저의 남편은 구석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듣고 있었다. 행사를 촬영하기 위해 고용된 카메라맨은 돈을 받지 않겠다며 행사에 참가하게 된 것이 오히려 영광이라고 말했다. 나중에 들으니, 그 사람은 그때 방편법을 배우고 싶었는데 모두 바빠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냥 집으로 가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읽기 시작했

다고 한다. 또 다른 사저의 남편은 원래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아내가 동수들의 노래를 틀어 놓자 함께 따라 부르며 “당신네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한 노래를 만들었다니 믿을 수가 없는걸!” 하고 말했다.

직접 참가한 사람들에게 이번 행사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되었다.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들은 녹음을 할 때부터 느꼈던 ‘만물동일체(萬物同一體)’의 상태에 다시 빠져들곤 했다. 가사와 곡을 만든 동수들은 하나같이 명상 중에 영감이 붓물처럼 터져 나왔다고 했다. ‘진정한 사랑과 평화(True Love and Peace)’는 징 사저가 지었다. 그녀는 행사에 관한 소식을 듣고서 명상 중에 스승님께 도움을 청했는데 지혜안을 통해 자신이 두 팔을 벌리고 산과 물 사이에 서서 별과 초목, 강, 새, 꽃 등의 경치를 바라보며 ‘만물이 신의 사랑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나를 고향에 데려다 주오(Bringing Me Home)’라는 노래도 크리스마스에 만들었다. 당시 징 사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듯 유난히 스승님이 그림고 스승님과 하나가 되길 갈망했었다. 그녀는 한밤중에 명상하다가 일어나서 흐느끼며 노래를 지었는데, 한 곡을 완성하는 데 몇 분도 걸리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려네(I Want To Go Home)’는 왕 사저가 작년 4월에 입문을 한 뒤 얼마 되지 않아 작곡한 곡이다. 5월 12일 스승님의 생신을 축하할 때 감동에 북받쳐 눈물을 흘리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적었는데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는 마두금(몽골



악기) 소리가 같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왕 사저는 작곡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내면에서 들려오는 선율에 따라 노래를 부르며 작곡을 했다. ‘당신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님(You Are the Best Loved of Ours)’을 지은 리 사저는 명상하는 동안 갑자기 입문 직후에 있었던 한 사건이 생각났다. 공원에서 길을 잃었던 아이가 엄마를 찾은 일이었는데, 리 사저는 그때 길을 잃었던 아이가 엄마를 찾은 것처럼 자신도 스승님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작곡에 참여한 순 사형 역시 명상 중에 음표가 머릿속에 저절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는 작곡을 끝내자마자 자신이 고양된 느낌을 받았다.

노래를 만든 사람들조차 그 노래들이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라곤 생각지 못했다. 아이 사형은 ‘진정한 사랑과 평화’의 가사를 받았을 때 가사를 읽

으면서 멜로디를 흥얼거리다가 그걸 음악으로 옮기자는 생각이 떠올랐다고 한다. 그는 전에 작곡을 해 본 경험도 없었다. 초등학교 시절 음악 수업 때 배운 작곡 지식이 전부였던 그가 이 노래를 하룻밤 만에 작곡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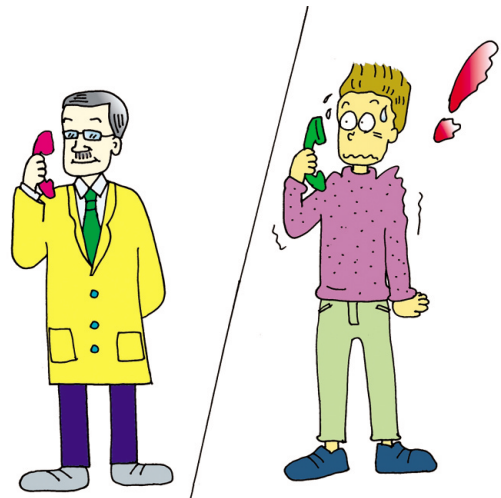
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다. “문장은 원래 하늘이 쓴 것인데, 운 좋은 손에 우연히 들어온 것이다.” 이번에 열린 창작 수행 가곡 발표회가 스승님이 우리를 위해 만드신 또 다른 수행의 장이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깊이 깨달았다. 스승님은 아름다운 천상의 음악을 수행자들의 행운이 깃든 손을 통해 이 지상에,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는 모든 영혼에게 퍼트리셨다. 이 무대를 통해 우리는 지혜를 사용하고 잠재력을 발휘해 노래를 통해 영성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었다. ★



절묘한 타이밍

칭하이 무상사/ 2003. 2. 4.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DVD No. 754

한 남자가 의사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의사가 말하길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남자는 먼저 좋은 소식을 물어 봤어요. “좋은 소식은 당신은 24시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 남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게 좋은 소식이라고요? 그러면 대체 나쁜 소식이란 건 뭐죠?” 그러자 의사가 말했어요. “나쁜 소식은, 내일은 나와 연락을 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



새 출발: 신을 갈망하는 마음

Funny Yang (원문 중국어)

입문 전엔 어쩌다 한 번씩 울곤 했었다.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오해를 받았을 때는 정말 신께 불평하고 싶었다.

입문 후엔 늘 울곤 했었다. 이전 빨리 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 세속에서 노는 건 더 이상 싫다.

입문 후 한참이 지나자 웬만해선 울지 않게 되었다. 다 컸다고 생각했고 날마다 때가 되면 종을 치는 스님같이 느긋한 하루하루를 보냈다.

더 많은 시간이 흐른 어느 날, 깊은 잠에 빠져 있던 내 가슴이 우연히 다시 깨어나 다시 한번 깊이 신을 갈망하게 되었다. 10여 년의 눈물이 홍수처럼 터져 나왔다. 나는 아무 이유도 없이 울기만 했다. 핑계라면 오직 갈망이라는 것뿐!

당신 앞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신의 아이들. 총명하고 혼자서 일도 처리할 수 있지만 나는 자라고 싶지 않다. 그저 당신을 우러러 보고 싶기 때문이다.

창작 수행 가곡 대회가 시작됐을 때 나는 음악적 재능이 없는 게 천추의 한이었다. 음악을 듣는 건 좋아했지만 감상에 그칠 뿐 작곡할 정도까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스승님께서 내 마음을 아셨는지 이번 프로젝트에서 비디오 편집 일을 맡게 되었다.

작업할 노래를 받고 곡과 함께 가사를 듣자, 영상들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런데 내가 본 영상들을 그릴 수가 없어서 부랴부랴 한 사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그 사저는 하루 휴가를 내고 그림을 마쳤다. 나는 그날 밤 기대를 안고 서둘러 사저의 집에 가서 다음날 작업에 쓸 그림들을 가져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음악을 들으며 그림의 장면을 어떻게 비디오에 넣을 것인지 구상하는데 잠시 후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신을 갈망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하나 언급할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저와 내가 함께 일한 방식이 매우 독특했다는 것이다. 그 사저는 노래를 들은 느낌을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했고, 나는 그녀가 작업하는 과정에 전혀 참견하지 않았다. 사저가 완성된 그림의 의미를 설명해 준 후 나는 장면들을 나누어 자르고 붙여 영상을 제작했다. 우리는 서로 상대의 창작 공간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거의 의견을 주고받지 않았다. 필름이 완성되었을 때 돌아온 보상은 일찍이 받지 못했던 것이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신을 향한 갈망이 다시 한번 솟아올랐다! ★



신의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며

관음법문으로 자라난 우수한 차세대 수행자

포모사 타오위안 뉴스그룹 인터뷰 (원문 중국어)



예 해 11살 된 쥘싱루(簡星如) 사저는 타오웬 현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특출난 학생이다. 항상 상냥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싱루는 1학년 때부터 모범생으로 뽑혔다. 선생님과 학생들 모두 싱루의 독특한 성격과 친근한 미소, 근면한 정신을 매우 좋아한다. 싱루는 공부도 잘하고 예체능에도 재능이 있어 그동안 받은 상장과 트로피만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사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채식한 싱루의 수려한 외모 속에 고도로 발달된 운동신경과 강한 체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2004년 태평양 도시권 수영대회에 참가해서 평영 20미터 조 우승을 차지하는가 하면, 2006년에는 타오위안 현 초중 연합 육상 선수 선발 대회에 출전해 100미터 달리기에서 1등을 하는 등 싱루는 학교 대표로 학교 간 대항 경기에 여러 번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올렸다.



이는 채식하면 영양이 부족하다는 일반인들의 잘못된 관념을 부수기에 충분했다. 원화 초등학교에서 푸단 초등학교로 전학한 싱루는 1년도 안 돼서 평전 시 모범 어린이로 뽑혀 시장의 표창을 받음으로써 다시 한번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싱 루가 얼마 전에 교내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3등을 했다는 말을 듣고 우리는 대회에 나가 했던 이야기를 좀 들려 달라고 했다. 싱루는 그 자리에서 흔쾌히 승낙했다. 1분도 채 안 돼 영어 말하기에 흠뻑 빠진 싱루의 톱 부러지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명상 수행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달았다. 싱루는 “명상을 하면서 쉽게 집중할 수 있게 됐고 주변의 방해도 금방 잊게 됐어요. 또 아플 때도 명상을 하고 나면 곧 좋아지곤 해요. 그리고 고민되는 일이 있으면 믿을 만한 분들(엄마, 아빠를 가리키며)과 얘기를 하면 괜찮아져요.”라고 말했다.



다음은 우리가 싱루와 그의 가족, 선생님, 친구들을 인터뷰한 내용이다.

★ 자녀 교육

질문: 싱루 부모님은 자녀 교육에 어떤 지침이 있으십니까?

싱루의 아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고 그 행복 속에서 관심사를 찾아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도구를 얻기 바랍니다.

싱루의 엄마(천 사저: 가볍게 대꾸하며): 제일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싱루와 오빠, 두 아이가 다 6살에 반입문을 한 거예요. 아이들은 무슨 고민거리가 생기든 그저 스승님을 기억하고 명상하는데 그러면 바로 좋아집니다. 우리는 명상과 음악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을 돕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에 따라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일이 아주 간단해져요!

싱루가 말하는 부모님: 아빠와 엄마는 말한 대로 실천하시고 정말 모범적이며 영향력이 큰 부모님이예요.

이 간단한 한 마디 말 속에서 싱루가 부모님을 매우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가족들이 보는 싱루

싱루의 오빠: 동생은 우리 집 꼬마 집사예요. 아빠가 늦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일찍 들어오시라고 하고 내게는 숙제를 하라거나 교과서 외에 다른 책들을 읽어 보라고 권하지요. 또 엄마한테는 빨래를 너는 일이나 밥하는 일 등을 상기시켜 주기도 해요. 저는 동생의 운동 신경과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성품이 참 맘에 들어요.

싱루의 아빠: 싱루는 매우 사교적이라서 친구가 많습니다. 일도 늘 자발적으로 처리하지요.

싱루의 엄마: 싱루는 집안의 도우미이자 재담꾼이자 활력소예요. 싱루는 빨래를 널거나 쓰레기통을 비우고 화장실 청소를 하는 등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명상도 스스로 알아서 부지런히 합니다. 아주 피곤할 때를 빼면 말하지 않아도 명상하러 가지요.

★ 친구들이 보는 싱루

구 친구: 싱루는 반 친구들과 사이가 좋아서 모두들 싱루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어요. 싱루는 도덕, 지식, 체육, 사회성, 예술 등 모든 면에서 훌륭해요. 제가 고민을 얘기하면 자기 의견을 말해 주고 비밀도 잘 지켜 줍니다. 정말 친구 할 만해요.



신의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며

쉬 친구: 싱루는 자발적으로 제 공부를 잘 도와줘요. 시간이 아무리 많이 걸려도 제가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설명해 줍니다. 걱정이 있으면 싱루를 찾아가서 털어놓는데, 그러면 싱루는 저와 함께 여러 가지 해결책을 생각해 봅니다. 싱루는 믿을 만한 친구예요.

다이 친구: 어떤 애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 뒤에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싱루는 절대 안 그래요! 미술 시간에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이건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완벽할 때까지 하고 또 합니다.



싱루(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친구들.

★ 선생님이 보는 싱루

양페이전 미술 선생님: 싱루는 깔끔한 아이입니다. 아주 똑똑하고 나쁜 일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주 집중해서 수업을 듣고 피곤한 기색도 거의 없이 언제나 활기가 끝없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싱루는 활발하면서도 침착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죠. 나중에 싱루가 채식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런데도 아주 빨리 달릴 수 있고 아침마다 운동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했어요. 싱루의 또 다른 장점은 끈기가 아주 강하다는 겁니다. 일단 스스로 어떤 목표를 세우면 아무리 많은 시간이 들어도 그것을 해냅니다. 하지만 싱루의 가장 특별한 점은 그 애를 보면 빛에 감싸여 있다는 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 빛은 외면의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발산되어 나오는 것 같아요.

전정편 담임 선생님: 싱루에게서 제일 인상 깊은 것은 싱루가 아주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매일 싱글벙글 웃어서 그 얼굴을 보면 화를 낼 수 없게 만들죠. 싱루는 나누는 게 뭔지를 아는 아이입니다. 음식이든 뭐든 사람들과 기꺼이 나누려고 하지요. 또 수업 시간에도 매우 진지해서 때로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가 어디까지 했는지 잊어버리면 싱루의 노트를 봅니다. 그럼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알게 되지요. 그렇다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다른 일들을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선생님에게 실수를 지적을 받으면 자기 스스로 검토해 본 후 “선생님, 이제 잘 알겠어요.” 하고 말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사람들에게도 잘하는 싱루를 보면 나도 더욱 열심히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류광령 음악 선생님: 싱루의 평온한 내적 기질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가장 큰 부분일 거예요. 물론 다른 학생들도 장점을 갖고 있지만 싱루는 매우 자연스럽고 켄체하지 않으며 교만하지도 않지요. 이런 장점은 가정 환경과 신앙 생활 외에서는 비롯될 수 없는 일이지요. 저는 이게 신의 축복이라고 여겨집니다! 싱루가 이런 좋은 성품을 더욱 발전시켜 보다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으면 합니다.



★ 싱루가 생각하는 스승님

스승님에 대한 화제가 나오자 기뻐하며 얼른 대답하는 싱루: 저는 정말 스승님이 좋아요. 스승님은 아름답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시죠.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하루하루 나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제게 모든 것을 주시는 신께 감사드려요!
인터뷰가 끝난 후 싱루의 엄마는 작년에 싱루가 스승님께 쓴 ‘천국’이라는 시를 보여 주었다.

나는 천국으로 통하는 길을 걷고 있어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험난하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스승님 엄마가 나를 돌봐주지요.
나는 스승님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황금과 보석이 잔뜩 깔린
천국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어요,
보세요!
많은 성인들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어요,
우리 모두 함께 천국으로 가요!

★ 맺는 글

싱루는 집안의 활력소이자 재담꾼이며 작은 집사로서 학교 친구들에게는 본받을 만한 모범이며 선생님들에게는 교사로서의 신성한 의무를 일깨워주는 존재이다. 싱루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맑은 샘물처럼 부드럽게 흘러들어 삶의 의미를 되새겨 준다. 이번 인터뷰 과정에서 우리는 싱루의 훌륭한 행동을 떠받치고 있는 정신적인 동력이 스승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 주시는 완벽한 모범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싱루는 스승님의 영향을 받아 스승님의 뒤를 따르고 날마다 더욱 완벽해지고 싶어한다. 몇 달 후면 만 12살이 되는 싱루는 현재 완전 입문을 받게 될 날만을 고대하고 있다. ✨





마음을 깨우치는 특별한 프로그램:



‘재난은 인류의 부정적인 생각에서 비롯된다’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엔터테인먼트 팀
(원문 영어)

최근 들어 허리케인과 홍수, 지진, 전쟁 같은 재난들이 그 어느 때보다 위력적이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재앙들은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협해서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오늘날 이런 세계적 상황에 따라 TV 프로그램 ‘예술과 영성’은 칭하이 무상사의 1988년 강연 ‘재난은 인류의 부정적인 생각에서 비롯된다’를 특별 방송으로 내보냈다. 전 인류를 향한 스승님의 메시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스승님의 통찰력과 지혜로운 충고는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 주는 동시에 인류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완벽한 보호법을 제시해 준다. “때로 우리는 어떤 전염병이나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재난이나 전쟁, 재앙을 겪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 지구인들의 흉악한 생각이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창조한 것이지요. 그렇긴 해도 이를 피할 방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24시간 내내 자신의 신구의(身口意)를 청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나쁜 자장이 우리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성질이 다른 것끼리는 서로 동화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뭔가 다른 것이 들어오면 서로를 밀어내게 됩니다.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이지 않는 것처럼요. 우리 수행자들은 많은 업을 없앨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잡지 164호 ‘스승님 말

씀’을 참고할 것)

스승님의 지혜가 이 위기의 인류에게 희망을 선사하고 있다. 미국 전역에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타임(TIME)』, 『뉴욕 타임스(The New York Times)』,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 『USA 투데이(USA Today)』, 『로스앤젤레스 타임스(The Los Angeles Times)』와 같은 전국 잡지와 신문, 그리고 지방 신문들이 이 특별 프로에 관한 안내 광고를 실었다. 미국의 사형사저들 또한 이 특별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동수들은 이 프로그램을 알리는 엽서를 ‘대안적인 삶’ 전단과 함께 배포했다. 이 밖에 전세계 각지에 독자를 갖고 있는 『세계일보(The World Journal)』, 『싱타오 일보(Sing Tao Daily)』, 『중국 신문(The China Press)』 등의 중국어 신문에도 이 TV 프로그램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대대적인 홍보 활동 결과 많은 사람이 이 프로그램이 방송되기도 전에 스승님과 스승님의 업적에 관해 전화로 문의했으며 이 프로그램의 비디오테이프 사본을 구할 방도에 대해 묻기도 했다. 『타임』지의 기사를 본 시카고의 한 신사는 자신이 속한 수행 단체의 다른 회원들에게도 알려 주겠다고 했으며, 전화를 한 또 다른 이는 이 주제가 시기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내용이라



고 말했다.

방송이 나간 뒤, 시청자들도 전화를 해서 스승님의 가르침에 존경을 표하며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했다. 가령 캘리포니아 주에서 전화한 한 남성은 부정적인 사고를 억누르는 방법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고 말했다.

스승님은 이번 프로그램의 강연 중에 그의 질문에 대해 좋은 충고를 해주셨다. “사바세계에 있는 동안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구의의를 정화해야 합니다. 일단 삼계를 벗어나기만 하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악한 기운도 없고 아무도 나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사람만이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후 전화를 걸었던 그 사람은 관음법문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하며 어떻게 하면 방편법을 배울 수 있는지 물었다. 이 밖에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프로그램이었고 내용이 전부 마음에 들었다고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이 특별 프로그램은 현재 우리 협회가 세계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대안적인 삶’ 전단 배포 작업에 대해서도 크게 다뤘다. 칭하이 무상사처럼 사람들에게 채식의 하도록 장려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방송에서는 ‘대안적인 삶’ 홍보 활동에 관한 보도와 더불어 뉴욕 시에서 열린 ‘안전 농장(Farm Sanctuary)’ 연례 행사에 관한 내용도 보도되었다. 이 행사에 참석한 하객들은 본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동물을 위

한 칭하이 무상사의 노고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호 ‘특별 보도’를 참고할 것) 스승님에 대해 전혀 몰랐던 매사추세츠에 사는 한 동물 권리 운동가는 그 강연에 완전히 매료되었으며 스승님의 자비로운 활동에 큰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동물에 대한 스승님의 배려, 특히나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안적인 삶’ 전단 배포 활동에 대해 놀라움을 표했다. “칭하이 무상사께서 동물들을 위해 하신 일들은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그분이 그토록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전혀 몰랐어요.” 그녀는 신문 광고를 본 친구를 통해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전세계에 시기적절한 스승님의 지혜와 충고의 말씀을 전한 ‘재난은 인류의 부정적인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한밤의 꿈(Dream in the Night)’을 세계 최초로 선보이며 막을 내렸다. 스승님의 시에 곡을 붙인 이 노래는 스승님께서 천상의 영감을 받아 즉석에서 곡을 붙이고 아름답게 노래하신 것이다. ‘한밤의 꿈’을 들은 많은 시청자들은 스승님의 목소리가 주문으로 “꿈과 절묘한 비전”을 불러내어 사람들에게 “이 환상의 인간계를 잊게 만들도록” 한다면 스승님의 노래를 대단히 좋아했다.

뉴욕에서 전화한 어느 여성은 “‘한밤의 꿈’을 듣고 너무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칭하이 무상사의 목소리와 노래가 너무 감명 깊어서 그분과 이 프로그램에 대해 더 알고 전화를 했어요.”라고 말했다.

또 어느 젊은 예술인도 이 노래에 찬사를 보냈다. 그

는 “노래가 아주 진실하고 선율이 정말 좋다.”며 스승님의 새 창작곡 가운데 제일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아름다운 가사를 음미할 수 있도록 노래의 사본과 번역본을 함께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선율이 마음을 차분히 만들고 노랫소리가 심금을 울린다





고 같은 의견을 피력했으며 비록 어울락어를 알아듣진 못해도 충분히 음악을 즐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스승님의 인도와 은총으로 세계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 스승님의 사랑과 자비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있다. 스승님은 강연을 통해 우리를 다시금 일깨우신다. “목표를 높게 잡을수록 우리의 등급도 높아집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천국과 지옥을 만드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그러니 매일 이 만능의 힘을 잊지 않도록 하세요.”

이 TV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소중한 기회를 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인해 이 지상이 낙원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체험하게 해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



처리, 아니면 치료?

칭하이 무상사/ 2003. 2. 4.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DVD No. 754

두 농부가 서로 만났는데 한 농부가 물었어요. “자네 말이 유행성 질병에 걸리지 않았었나?” “응, 그랬지. 상태가 심각했었지.” 친구가 대답하자 첫 번째 농부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 “말에게 아마씨 기름 반 파인트에다 송진 기름 한 숟갈과 아주까리 기름 세 숟갈을 먹였지.”

며칠 뒤 두 농부가 다시 만났을 때 첫 번째 농부가 다시 물었어요. “자네가 말에게 아마씨 기름 반 파인트에다 송진 기름 한 숟갈, 아주까리 기름 세 숟갈을 먹였다고 하지 않았나?” 두 번째 농부가 말했습니다. “맞아, 그랬지!” 그러자 첫 번째 농부가 소리쳤어요. “나는 자네가 그렇게 말한 걸 기억하고 내 말에게 그대로 먹였는데 말이 죽어 버렸어!” 그러자 친구가 말했죠. “당연하지! 내 말도 죽었는걸!” ☆



스승님의 농담을 동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주위 분들과 함께 유쾌한 스승님의 농담을 나누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net/eng/news/170/jk1.htm> (미국)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news/170/jk1.htm> (포모사)



The Song of
愛之歌 Love
Khắc Tinh Thương

천상의 음악과 시를 통한 신의 사랑

샤오 러/ 포모사 (원문 중국어)

최근 스승님의 노래와 시가 담긴 꽤 많은 CD가 출판되었다. 나는 그 CD를 하나씩 들을 때마다 지극히 행복해진다. 왜냐하면 각 CD에는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신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독특한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이 CD들을 들을 때마다 나는 천상계로 옮겨져 이 세상과 모든 고민을 잊어버리고 이곳과는 완전히 다른 순수한 분위기를 즐기게 된다. 또한 어울락 특유의 곡조가 담긴 노래를 들노라면 포모사의 향수 어린 민요가 떠오르곤 한다. 그 음악을 들

을 때면 나는 저절로 박자에 맞추어 팔을 휘젓게 된다.

‘시공을 초월하여’에는 스승님이 직접 작곡하여 부르신 노래들이 담겨 있다. 음악과 녹음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서 처음에는 외부의 유명한 스타들이 노래한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자세히 들어 보니 스승님의 목소리였다. 정말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외부 사람들의 음악은 두 번 들으면 지겨워지는데 스승님의 노래는 몇 번이고 들을 수 있고 그때마다 새롭다. 스승님의 노래 솜씨가 너무나 훌륭해서 노래를 들을 때마다 찬탄을 금할 수가 없고 ‘바깥의 유명한 가수들보다 훨씬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이제는 스승님께서 왜 가수가 되고 싶어하셨는지 정말 이해가 된다.

그보다 뒤에 출시된 DVD ‘사랑의 노래’에는 익숙한 노래들이 많이 들어 있다. 나는 ‘달까지 데려다 줘(Fly Me to the Moon)’와 같은 노래 제목들을 보고는 웃음이 나왔다. 스승님도 이 노래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자 스승님과 더 가까워진 듯한 느낌이었다. 이 DVD에는 그야말로 ‘사랑’ 노래들이 수록되어 있다. 스승님의 사랑이 그 속에 충만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 DVD를 몇 번 보고 나서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나는 스승님의 음악에서 스승님의 부드러움과 사랑이 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신의 사랑이 내 가슴속으로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자 나는 매우 밝고 즐거워졌으며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함을 기억하게 되었다.

스승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문을 열어 주신 덕분에 이제 매일 명상하는 것 외에 음악을 통해 신과 접촉해 이 세상을 잇는 다른 방법을 알게 되었다. 스승님의 CD들은 내 삶에 신의 사랑과 축복을 더 많이 가져다 주었고 내 삶을 더욱 아름답고 신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



모든 존재는 보이지 않는 사랑의 힘으로 연결되어 있다

청하이 무상사/ 1999. 5. 31. 스웨덴 스톡홀름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55 (하편)

질문: 친애하는 스승님, 우주에서 인간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혜롭고 감정이 있는 다른 생물들과 동등한가요? 그들이 설령 다른 행성 체제에서 번영한 존재라 해도요?

스승님: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모두 동등합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영적으로 더 진보한 행성도 있고 덜 진보한 곳도 있습니다. 어떤 행성은 기술적으로 더 진보했는가 하면 어떤 행성은 좀 뒤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우주에는 온갖 종류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신은 우리를 창조했듯이 그들도 창조했습니다. 어떤 존재는 비교적 거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명 에너지가 우리보다 더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반면 어떤 존재는 밀도가 낮아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우주의 모든 존재는 다 필요하며 전체 창조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일부입니다. 마치 이 건물에 있는 벽돌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사랑의 힘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싸우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미움이나 고통을 일으켜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의지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단지 이 사실을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물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채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

가족의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자

청하이 무상사/ 1999. 5. 31. 스웨덴 스톡홀름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55 (하편)

질문: 스승님, 가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승님: 가족은 여러분에게 매우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지가 없으면 인생은 매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을 여러분의 소중한 보물로 여겨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감사해야 하며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가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가족에게 더 많은 사랑과 희생을 베풀수록 보답으로 돌아오는 것도 더 많아질 것이며 가족과 더불어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도 있지만 가족과 함께 살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있으면 가정에서 가장 훌륭한 구성원이 되십시오. 가정은 세상의 토대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온전하고 아름답게 잘 돌봐야 합니다. ★

영혼과 신을 새롭게 연결하자

칭하이 무상사/ 1999. 5. 31. 스웨덴 스톡홀름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55 (하편)

질문: 친애하는 스승님, 스승님께서서는 영원한 여왕만큼이나 아름다우십니다. 저는 아주 밝고 영원히 행복한 영혼이라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매우 어두운 힘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저를 시기하는 사람들의 반대 때문에 제 삶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신이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왜 제 주변에 이런 어두운 힘들이 있는 걸까요?

스승님: 입문을 해서 보호를 받으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영혼은 매우 민감하고 열려 있습니다. 가슴이 열려 있고 영적 중심이 열려 있지만 여러 가지 힘들이 이 열린 문으로 들어올 때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또는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해야 할지 모릅니다. 입문할 때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알려 주겠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올바른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명상하거나 책만 읽고 배워서 안 되지요. 책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비롯된 영적 보호력을 일깨워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협에 처하거나 밀고 들어오는 좋고 나쁜 여러 가지 힘의 온갖 공격을 받게 되지요. 문을 지키는 수문장이 없으니까요.

또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의식을 더욱 높여 보다 고상한 목표를 이루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신을 알도록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항상 신을 생각하고 보다 고귀한 생활 방식을 생각하게 되면 좀더 높은 등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낮은 등급은 우리에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수록 부정적인 힘을 끌어당기게 되고 부정적인 힘을 끌어당길수록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밑으로 억눌리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좋지 않습니다.

말보다 실천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보다 높은 삶의 목표를 가진 보다 고아한 영혼들과 어울리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손을 잡아 위로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강해지고 혼자 걸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단체 사람들은 아주 힘이 강하고 긍정적입니다. 그들과 잠시 어울려 보면 분명히 당신의 영혼이 고양될 겁니다. 어둡거나 나쁜 사람들과 교류를 가질 때 당신이 그들을 도울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으면 그들이 오히려 당신이 밑으로 떨어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니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적어도 처음 시작할 때만큼은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단체명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스스로 자유롭게 되어 자신의 스승이 되어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서로를 도와줄 수 있으며 서로 문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나누면 반으로 줄어드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



신의 사랑의 빛나는 모범이 되라

청하이 무상사/ 2005. 12. 31. 영국 런던 (원문 영어)



질문: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서 의욕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제 마음은 멀리 도망가서 스승님께만 집중하고 싶거든요. 하지만 저는 또한 스승님처럼 되어야 하며 강인해지고 이 사회에서 살면서 수행을 계속해야 한다고 저 자신을 타이르기도 합니다.

스승님: 예, 맞아요. 그러면 강해질 겁니다. 몇 살이지요? (동수: 스물두 살입니다.) 스물두 살밖에 안 됐다고요! 당신은 아직 할 일이 많아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계속해 나가세요.

질문: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스승님께서 저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스승님: 당신은 아주 젊고 아름다워 보여요. 있는 곳에서 빛나는 모범이 되세요. 만약 모두 다 나를 따라다니거나 산에서 숨어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이 있다는 걸 모를 겁니다. 당신은 내 눈과 귀, 손이 되어 내 축복과 사랑, 본보기를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통해 나를 보고 당신을 따르도록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축복하는 방식이며 우리가 수행하는 이유입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스승님: 천만에요. 나는 어디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하늘에서 “안 돼.”라고 하는데, 그때는 영적으로 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물질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 역시 영적인 일입니다. 나는 때에 따라 그에 맞는 서로 다른 일을 합니다. 우리는 어디로든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도망간다면 마지막 순간에 저 위에 있는 천국으로 가겠지요. (스승님 웃으심) 우리는 어디로든 도망가지 못합니다. 이곳에 있어야 해요.

질문: 그리고 강해져야겠지요.

스승님: 맞아요. 강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과 도전이 당신을 더 지혜롭게 만들어 주고 온갖 고통 또한 때로는 당신을 더 자비롭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우리의 업장을 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업장 말이에요. (대중 웃음) 좋아요. 우리 업장이라고 하지요. 우리는 한패로서 함께하니깐요. 그렇지요?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동수: 스승님, 사랑합니다.) 당신은 잘 하고 있어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아주 자랑스러워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요.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회에는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은 젊고 온갖 공격과 유혹을 받기 쉬운데도 계속 채식의 하고 폭력을 멀리하고 계율을 지키며 가능한 한 많이 명상하고 있으니 정말 대단합니다! 나는 정말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은 괜찮아요.

질문: 저는 당신이 제 스승님인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스승님: 내가 하는 아주 많은 일들을 알면 아주 자랑스러울 겁니다. (대중 웃음) 하지만 여러분에게 알려 주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대개는 여러분이 일하듯이 아주 조용히 일하기 때문이지요. 요 몇 년 동안, 그리고 올해에도 많은 재난들이 일어났죠. 나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세계 각지에서 내 사랑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 전해 주어 너무 흐뭇합니다. 우리는 살아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죽은 이들, 그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육신이 아닌 영혼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할 수 있다면 육신도 구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영혼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영혼이 육신을 떠나면 우리가 돌보는 거지요. 그것이 도움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나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사회에 더 도움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책과 테이프, 그리고 대화와 아름다운 에너지로써 소리 없이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돕고 있으며 물질적인 도움도 베풀고 있습니다. 이 이상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이 지구상의 그 누구도, 그 어떤 그룹도 우리보다 더 잘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밖에 있는 여러분 모두 아주 좋은 모범을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스승님께서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시며 세상의 모든 동수들을 가리키는 몸짓을 하심)

질문: 감사합니다, 스승님.

스승님: 어쨌든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이곳에서는 그냥 잠시 머물 뿐입니다. 우리 대부분에게는 그렇게 긴 건 아니지요. 그렇죠? (동수: 예.) 아니, 당신은 아직 젊으니 여기 있어야 해요! 그렇게 빨리 가서는 안 되지요. 하지만 빠르든 늦든 똑같습니다. 몇 년 더 많은 몇 년 더 적든 우리는 일을 끝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유산을 남기고 가겠지요. 우리가 이 세상, 이 지구를 떠날 때는 이 육신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영적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지구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지만 우리는 보답을 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재난을 도울 때 아무런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지요. ✨



자바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스승님의 자비의 메시지 ‘대안적인 삶’ 을 나누기 위한 전세계적인 노력

동물과 인간 사이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전염병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전세계에 제시하고자 스승님은 직접 ‘대안적인 삶’ 이란 제목의 친근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전단을 디자인하셨다. 스승님은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채식을 하고 살생을 멈춤으로써 전세계적 공중 위기를 극복하고 무수히 많은 동물 친구들을 구하자고 하신다. 또한 스승님은 모든 동수들에게 전세계 곳곳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라고 당부하셨다. 이에 동수들은 스승님의 사랑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모든 노력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해 각국에서 진행된 활동 소식들이다.



스와질란드와 모잠비크

스와질란드

신이 보내신 채식 메시지와 놀라운 만남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센터 보도 (원문 영어)

요하네스버그 센터 동수들은 두 조로 나뉘어 각기 스와질란드(Swaziland)와 모잠비크(Mozambique)로 가서 ‘대안적인 삶’ 전단을 통해 신의 사랑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다. 황금시대 3년(2006년) 5월 25일 목요일 아침, 제1조가 스와질란드의 수도인 음바바네(Mbabane)에 도착했다.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일을 시작한 동수들은 순식간에 2천 장의 전단을 배포했다! 전단을 받은 이 지역의 한 주민은 스승님의 견본책자도 달라고 했다. 한 사형에게서 견본책자를 받은 후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읽기 시작한 그는 매우 행복해했으며 말 그대로 그에게선 빛이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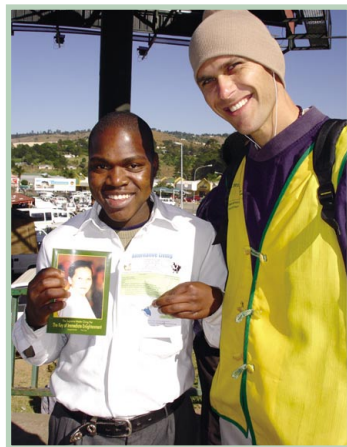
그후 동수들은 음바바네에서 34km밖에 안 되는 ‘스와질란드 대학’으로 차를 타고 가기로 했다. 가는 도중 동수들은 스와질란드에서 가장 큰 신문사인 『스와질란드 타임스(Swaziland Times)』에 들러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한 편집자를 만났다. 그는 우리 자료를 먼저 살펴보고 나서 마음에 들면 신문의 두 면에 무료로 실어 주겠다고 얘기했다!

대학에 도착했을 때 너무 조용해서 동수들이 사무실에 가서 캠퍼스 내에서 전단을 배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니 그날이 마침 휴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동수들은 운 좋게도 그 대학의 학장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채식 메시지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었으며 관심도 있었다. 그는 동수들에게 스승님의 견본책자와 전단을 두고 가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등교하면 이 메시지를 나눠 주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제부터 점심 메뉴를 선택할 때는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변잡한 도시 중심가로 돌아와 전단을 나눠 주던 동수들은 이 지역 사람들의 반응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상황에서 전단을 받기 위해 짐을 내려놓기까지 했다. 많은 사람들이 채식의 이로움을 이해하고 채식을 하면 건강에 더 좋고 세계의 기아 문제를 개선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스와질란드 국민에게 가져다준 데 대해 동수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워했으며 한 스와질란드인은 동수들에게 좀더 오래 머물면서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길을 가던 한 스와질란드 남자는 “이것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군요!” 하고 말했다. 앞서 말한 스와질란드인은 전단 배포를 도와주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하루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동수들은 5만 명이 사는 음바바네에서 5천 장의 전단을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모잠비크

제2조 동수들은 5월 26일 금요일에 모잠비크의 수도인 마푸토(Maputo)에 도착한 후 바로 도시 중심으로 가서 퇴근하는 주민들을 만날 수 있었다. 또한 그곳에서 학생들도 많이 마주쳤다. 이곳에서는 포르투갈어를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영어만 하는 동수들이 전단 내용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도 아이들은 기쁘게 포르투갈어로 된 ‘대안적인 삶’ 전단을 받아갔으며 동수들은 손가락으로 다채로운 그림들을 가리키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다음날 아침 두 명의 동수가 전단을 배포하러 나가기 전 호텔 밖 방파제를 산책하다가 이 지역 사람들이 신실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에 한 사형이 서둘러 호텔로 돌아가 견본책자와 전단을 가지고 왔다. 그는 사람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에게 다가가 전단과 견본책자를 나눠 주었다. 놀랍게도 그들은 영어를 할 수 있었고 스승님의 가르침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신이 안배하신 이 특별한 만남을 가진 후 동수들은 마푸토의 주요 거리로 가서 전단을 배포하기 시작했다. 쇼핑을 하던 지역 주민들은 매우 수용적이어서 동수들이 만난 모든 사람들이 전단을 받아갔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전단을 받지 못하고 지나친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전단을 달라고 하거나 친구들에게 준다고 하면서 전단을 더 요청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마치 모두들 신이 디자인하신 이 아름다운 메



자바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시지를 갖고 싶어하는 듯했다. 몇몇 사람들은 동수들이 입고 있는 예쁘게 특별히 디자인된 ‘대안적인 삶’ 티셔츠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묻기까지 했다. ★

남아프리카

신이 안배한 듯 보이는 신의 메시지 나누기

요하네스버그 센터 보도 (원문 영어)

지금까지 요하네스버그 동수들은 7만 7천 장의 ‘대안적인 삶’ 전단을 인쇄해 우편함, 주택 우편함, 건강 식품점, 치료 센터, 도서관, 서점, 인터넷 카페, 혼잡한 거리, 대학 외부에 세워진 승용차와 주유 버스 정류장과 기차역에서 배포했다. 또한 ‘대안적인 삶’의 메시지를 매일 약 35만 부를 발행하는 주요 신문인 『스타(The Star)』에 실는 한편 그 포스터를 몇몇 건강 식품점의 게시판과 채소 과일가게 창문에 붙였다.

6월에는 요하네스버그에서 차로 약 4시간 걸리는 음푸말랑가(Mpumalanga) 지역에 가서 전단을 배포했다. 그 지역 주민들의 매우 개방적인 마음과 채식 메시지에 대한 높은 관심은 대단히 놀라웠다. ‘대안적인 삶’ 전단을 받은 사람들은 매우 좋아했으며, 영적인 메시지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스승님의 견본책자를 받고 매우 고마워했다. 이 밖에도 전에 스승님에 대해 들어 본 적도 없고 채식이 뭔지도 모르는 몇몇 주민들이 스승님의 ‘대안적인 삶’ 메시지를 나누어 주는 일을 기꺼이 도와줘서 우리를 흐뭇하게 만들었다.

동수들은 남아프리카와 이웃한 6개 국가를 방문해 짐바브웨, 레소토(Lesotho), 스와질란드, 나미비아(Namibia)와 보츠와나(Botswana) 등에서는 영어로 된 전단을 나눠 주고 모잠비크에서는 포르투갈어와 영어로 된 전단을 나누어 주었다.



요하네스버그 동수들은 또한 ‘전세계 엘리트 채식주의자’ 명단이 들어간 ‘대안적인 삶’ 대형 포스터 두 개를 요하네스버그 국제공항에 네 달 동안 게시하게 되었다. 이 대형 포스터는 매달 수만 명이 지나다니는 국제선 도착 터미널의 위치 좋은 곳에 앞뒤로 한 면씩 전시된다. ‘대안적인 삶’ 배포 활동에 참가한 동수들은 이 일을 하면서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을 목격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매우 감사했다. 사람들에게 신의 메시지를 나눠 줄 때마다 모든 일이 늘 신이 안배하신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미국

텍사스

한마음으로 '대안적인 삶'의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 노력하다

오스틴 센터와 샌안토니오 센터 연합 보도 (원문 영어)

지난 몇 달 동안 오스틴과 샌안토니오(San Antonio) 센터 동수들은 전세계 각지의 동수들과 마찬가지로 '대안적인 삶' 메시지를 나누느라 바빠 움직였다. 이 계획이 한 주나 한 달 걸릴 계획이 아니라 장기간을 요하는 숭고한 작업이란 것은 분명했다. 우리는 전세계 동수들로부터 좋은 전략들을 많이 배웠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최상의 성과를 얻었다.

1. 한마음으로 협력해 '대안적인 삶' 전단 배포하기

동수들은 전단을 돌린 뒤 배포 날짜와 장소, 그리고 다음 배포 구역을 이메일로 알려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

2. 지역 당국의 협조 얻기

동수들은 허리케인 카트리나 구호 활동을 하면서 샌안토니오 경찰서와 좋은 유대 관계를 맺었다. 우리의 '대안적인 삶' 전단 배포 활동을 지지하기 위해 경찰 서장은 우리가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메모를 써 주었다. 경찰의 도움으로 우리의 배포 활동은 더욱 순조로워졌다!

3. 지역 출판사와 장기 계약

우리는 이미 지역 사회 간행물에 '대안적인 삶' 메시지를 실었으며 최근에는 한 월간지와 1년 계약을 맺었다.

4. 호텔과 모텔에 '대안적인 삶' 전단과 더불어 지역 채식 식당에 대한 정보 제공

오스틴은 날마다 수천 명이 방문하는 번잡한 도시이다. 호텔이나 모텔에 투숙하는 많은 사람들이 식당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안적인 삶' 전단에 지역 채식 식당 정보를 끼워 지역 호텔과 모텔에 나누어 주었다. 담당 매니저들은 이 전단을 매우 반기면서 정기적으로 이런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부탁했다. ★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브라질

한 걸음마다 신의 메시지를 전하다

상파울로 뉴스그룹

스승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디자인된 ‘대안적인 삶’ 전단을 받은 후 상파울로의 모든 동수들은 성심 성의껏 이 뜻 깊은 활동에 전념했다.

2006년 2월부터 상파울로 센터는 고품질의 전단 150만 장을 인쇄해 모두 배포했으며 현재 계속해서 추가로 인쇄하고 있다. 브라질은 광대한 국토에 국민들이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다. 전국 각지에 전단을 배포하기 위해 동수들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크게 세 조로 나뉘어 전단을 배포하기로 했다. 한 조는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없는 동수들로 구성되어 주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상파울로 시부터 주변의 크고 작은 도시까지 상파울로 주 전체를 맡았다. 다른 한 조는 주로 해안과 내륙 도로를 따라 북서부 지역의 아마존 강까지 다니며 전단을 배포했는데, 두 달이 걸린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중간에 비행기도 타야 했다. 마지막 조는 2주간의 여정에 맞춰 모든 동수들이 서로 협조해 전국을 누비며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스승님의 메시지를 퍼트렸다.

‘대안적인 삶’ 전단 배포 활동은 브라질 동수들에게 있어 처음으로 진행한 가장 규모가 큰 최장기 활동이었다. 일부 동수들은 일을 그만두기도 하고 일을 잠시 쉬기도 했지만 모두들 항상 전단을 갖고 다니며 활발히 움직였다.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국에 뿌릴 이런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린다! ★

일본

홋카이도

낭만적인 홋카이도에 신의 사랑이 퍼지다

기록: 포모사 타이베이 정정팡 사저/
정리: 포모사 타이베이 타오위안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황금시대 3년(2006년) 6월 4일부터 8일까지, 포모사 동수 24명이 일본 홋카이도로 가서 스승님의 자비의 메시지 ‘대안적인 삶’을 전했다. 홋카이도 지역은 일본 전체 면적의 22%를 차지하지만 인구 밀도는 혼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수만كم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동수들은 일본 동수 5명과 싱가포르 사저 1명이 합류한 가운데 3조로 나뉘어 삿포로(Sapporo), 아사히카와(Asahikawa) 및 하코다테(Hakodate)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전단을 배포하기 시작했다.

아사히카와

6월 5일, 10명의 동수들은 1만 5천 장의 전단을 가지고 3시간의 운전 끝에 아사히카와에 도착한 후 바로 아사히카와 역 맞은편에 있는 히와-도리(Hiwa-Dori) 쇼핑파크(Shopping Park)로 가서 전단을 배포하기 시작했다. 나중에 아사히카와의 8대 유명 관광지 중 하나인 토키와 공원(Tokiwa Park)에서 가든파티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은 동수들은 두 조로 나뉘어 걸어서 행사장으로 향해 공원 구석구석을 다니며 전단을 배포해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까지 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날, 한 조는 계속 쇼핑파크에서 자리를 지키며 활동했다. 그곳은 항상 사람들로 붐볐고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더욱더 사람이 많았다. 다른 조는 차를 타고 천국처럼 매혹적인 관광지 푸라노(Furano)로 갔다. 동수들은 가는 도중에 있는 비에이(Biei), 나카푸라노(Nakafurano), 푸라노 가든(Furano Garden)에 들러 전단을 배포했다. 이 세 곳에는 주민이 많지 않았지만 거리가 계획적으로 잘 정리돼 있어서 우편함에 전단을 넣기에 좋았다. 포모사에서 온 많은 관광객들이 전단을 받고는 채식을 보급하려는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열정에 놀라워하며 큰 감명을 받았다.

셋째 날, 전단이 2천 장밖에 안 남았다는 것을 알고 모두들 사기가 충천했으며 집에 가기 전에 갖고 온 전단을 모두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전단은 정오 전에 모두 배포되었다. 홋카이도의 북부에 위치해 있는 아사히카와 시의 시민들은 매우 예의 바르고 친절했다. 노인들은 전단을 받은 후 잠시 읽어보고 잘 접어 가방에 넣었으며 발랄한 학생들도 미소 띤 동수들의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전단을 받아갔다. 중국의 흑룡강에서 온 한 중국인은 기쁘게 전단을 받고는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갖다 줄 전단을 더 달라고 했다. 기차역 부근에 있는 큰 병원에서도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전단을 두고 가라고 흔쾌히 수락해 주었다.

일본 동수 두 명의 사려 깊은 도움으로 여행은 매우 순조롭고 효율적이었다. 모두들 신의 무한한 축복을 느낄 수 있었다.



자바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하코다테

10명의 동수들로 구성된 하코다테 팀은 16,500장의 전단을 가지고 6월 5일 삿포로에서 하코다테로 향했다. 동수들은 도착하자마자 바로 벚꽃 놀이로 유명한 고료카쿠 공원(Goryokaku Park)으로 갔다.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가용 유리창에 전단 끼워두기, 버스 정류장과 거리에서 전단 나눠 주기, 주택 우편함에 전단 넣기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신의 메시지를 지역 주민들에게 전했다. 사람들이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러시아워 시간에는 하코다테 역에 가서 많은 양의 전단을 배포했다. 동수들은 전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도 활용해 승객들에게 전단을 나눠 주었는데 승객들은 모두 전단을 받은 후 꼼꼼히 읽었다.



전날의 경험을 토대로 6월 6일에는 하코다테 전차 노선을 따라 걸어 다니면서 주택과 가게, 고층건물,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전단을 나눠 주었다. 몇몇 사람들은 우리가 심신과 영혼을 위한 건강한 생활 방식이라는 이 고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포모사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는 엄지손가락을 치켜올리며 지지를 보였다.

삿포로

삿포로는 홋카이도에서 가장 큰 도시이기 때문에 10명의 동수들이 33,000장의 전단을 배포하기로 계획했다. 6월 5일 포모사 동수들은 일본 동수들의 안내를 받아 2조로 나뉘어 삿포로의 관광명소인 오로리 공원(Orori Park)의 시계탑과 구(舊)시청으로 갔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과 공원에서 쉬고 있는 노인들을 비롯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단을 기쁘게 받았다. 자발적으로 전단을 받으러 온 한 학생은 기쁜 마음으로 급우들에게 나눠 줄 전단도 몇 장 더 가져갔다. 시청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모임에 참석하러 가는 길인데 다른 참석자들에게 주고 싶으면서 한 사자에게 전단을 한 뭉치 줄 수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다. 한편 동수들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할 때, 마침 천연 식품 가게에서 할인 쿠폰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점장은 특별히 7명의 동수들에게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고 천연 성분으로만 만들어진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맛보게 해주었다. 동수들은 신의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대접’을 즐긴 후 이 가게에도 전단을 조금 남겨 두었다.

6월 6일에는 삿포로 인근 도시인 오라루(Oraru)로 갔다. 일본 동수들은 이 지역 주민들이 낚시를 즐기고 해산물을 좋아한다면서 불살생의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어했다. 우리는 전철역과 관광지에서 전단을 배포하는 외에 주택 지역으로 들어가서 우편함에 전단을 넣었다. 지역 주민들은 전단을 너그럽게 잘 받았으며 우편함에서 전단을 꺼내자마자 안으로 들고 들어가 주의 깊게 읽었다. 배포한 전단이 많지는 않았지만 전단마다 큰 효과를 발휘했다.

다음날 동수들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략을 대폭 수정해 주로 우편함을 이용해 전단을 나눠 주기로 했다. 우리는 인구가 밀집된 주택 지역으로 가서 하루 만에 9천 장의 전단을 배포했다.

6월 8일, 비행기를 타고 떠나기 전까지 동수들은 모두 계속해서 성실하게 일했다. 동수들은 2조로 나뉘어 한 조는 주택 지역으로 가고 다른 조는 인근 고층건물에 가서 오전에 1만 장이 넘는 전단을 나눠 주었다.



맺음말

일본 사람들은 매우 예의바를 뿐 아니라 친환경적이어서 전단을 아무데나 버리지 않았다. 동수들이 전단을 배포하면서 일본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전단을 받는 사람들도 항상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여 답례하며 고맙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전단을 다 읽은 후 잘 접어서 주머니나 가방에 넣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배포한 전단을 잘 간수하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으며 이들이 이를 통해 신의 힘에 물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일기 예보에서는 날씨가 춥고 비가 올 것이라 했지만 전단을 배포하는 동안 날마다 맑고 화창했으며 시원하고 상쾌했다. 그러다가 우리가 홋카이도를 떠나려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야 비로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행기를 타고 홋카이도로 오고갈 때 보기 드문 둥근 무지개를 보고 모두들 놀라움과 기쁨을 느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동안 비행기의 그림자가 무지개의 중심에 그대로 반사되었는데 마치 우리가 스승님의 전지전능한 사랑의 힘에 감싸인 모습을 보는 듯했다. ☆



자바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오키나와

영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다

포모사 타오위안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일본 남단에 위치한 오키나와(Okinawa)는 ‘동양의 하와이’로 불리며 푸른 하늘과 황금빛 해변을 가진 아름다운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오키나와에 도착한 포모사 동수들은 사랑으로 부푼 가슴을 안고 일어와 영어로 양면 인쇄된 전단을 배포하며 스승님의 자비의 메시지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었다.

5월 26일 저녁 오키나와에 도착하자마자 동수들은 먼저 시내에 있는 이위안(Yi Yuan) 채식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포모사 출신인 식당의 쭈 사장은 동수들의 방문 목적을 알고는 같은 이상을 가진 친구를 만나게 된 것에 매우 기뻐했다. 그는 바로 주방으로 가서 품미가 뛰어난 매혹적인 요리를 세 상이나 직접 준비해 동수들에게 대접했다. 식사가 끝난 후 그는 손님들을 위해 전단을 식당에 두고 가도록 기꺼이 허락해 주었다. 식당을 나온 동수들은 그 부근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과 양쪽 길을 따라 들어서 있는 주택에 전단을 배포했다. 사람들의 반응으로 보아 이 지역 주민들은 질서를 잘 지키고 깔끔하며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게 틀림없었다.

동수들은 5월 27일 아침 일찍 관광객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북쪽에 위치한 유명한 관광지 오션 엑스포 공원(Ocean Expo Park), 나고 파인애플 공원(Nago Pineapple Park), 그리고 중부 지역에 위치한 한 미국인 마을(Hamby & Mihama)로 갔다. 오션 엑스포 공원에서 많은 외국 관광객들을 본 동수들은 즉시 영어로 인사를 건넸다. 기쁘게 전단을 받은 그들은 내용을 읽은 후 지지와 찬성을 표했다. 그들의 격려를 받은 동수들은 다니다가 만난 관광객과 직원들에게 계속해서 전단을 나눠 주었다. 그들 또한 전단을 기쁘게 받아 자세히 읽었다.

동수들은 저녁 식사를 한 후 관광객들의 쇼핑 천국이자 시내에서 가장 번잡한 상업지역인 코쿠사이 거리(Kokusai Street)에 가서 다시 전단을 나눠 주었다. 보이는 곳마다 모든 지역이 관광객과 인파로 가득 차 있어서 동수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모든 관광객과 가게에 빠르게 전단을 배포했다.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다음날인 5월 28일에는 나하(Naha) 시에 있는 주택 지역과 쇼핑 중심지로 향했다. 동수들은 네 조로 나뉘었는데 그 중 세 조는 전차를 타고 인구가 밀집된 여러 주택지로 가서 길을 따라 다니며 집집마다 우편함에 전단을 넣었다. 나머지 한 조는 시내 상업지역의 고정 장소에서 전단을 배포했다. 그날 모두 밤 11시경까지 열심히 일한 후에야 숙소로 돌아왔다.

상업지역에서 전단을 나눠 주던 조에는 할아버지 동수들과 어린 동수들이 몇 명 끼어 있었는데 가장 어린 동수는 겨우 8살이었다. 이 어린 성인들은 매우 열심히 일하며 사람들에게 간단한 일본어로 인사했다. 그들이 환하게 웃는 얼굴로 근처에 있는 가게들을 방문하자 가게 주인들은 아이들이 전단을 배포하는 것을 보고는 더욱 기쁜 표정으로 전단을 받았다. 국제 상업지역에서 우연히 만난 포모사에서 온 젊은 관광객들은 포모사에서 이미 전단을 두 번이나 받았다고 이제 세 번째라고 말했다! 그들은 흥분된 목소리로 자신들이 우리 단체와 매우 인연이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채식주의를 강력하게 지지해 주었다. 그날 2천 장이 넘는 전단이 배포되었다.

5월 29일, 동수들은 버스를 임대해 전차 노선이 없는 지역에 가서 전단을 배포하기로 결정하고 북쪽으로 향해 고속도로를 따라가며 인구 18만의 오키나와 시를 살살이 훑었다. 신의 안내로 일본 사저가 같이 동행해서 우리의 계획을 운전 기사인 나카무라 씨에게 설명해 주었다. 가는 길 내내 나카무라 씨가 인구가 밀집된 주택 지역을 찾는 일에 많은 신경을 써서 동수들이 차에서 내려 우편함에 전단을 넣을 수 있게 해주었다. 그는 또한 '대안적인 삶' 포스터를 한 달 동안 그의 관광버스에 붙이는 것을 기꺼이 허락해 주었다. 동수들은 이러한 친절한 행동에 깊이 감동한 나머지 계속해서 일본어로 그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금 일찍 돌아온 동수들은 비행기 타기 전 몇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재래시장으로 가서 전단 나누는 일을 계속했다.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시장에서 쇼핑을 나온 주부들과 가게 주인 모두 공손히 전단을 받아 주의 깊게 읽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맺음말

이번 여행 동안 동수들은 모든 일을 영적인 각도에서 보고 항상 경각심을 잃지 말아야만 신의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이 임무를 무사히 그리고 기쁘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키나와의 모든 주민들과 여행객들이 신의 사랑의 바다에 잠길 수 있게 해주신 신의 은총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중국

중국에 새로운 채식 물결을 일으킨 ‘채식 문화 주간’

중국 동수 (원문 중국어)

신의 자비와 사랑으로 현재 베이징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환경 보호, 건강 증진, 심신 정화 및 생명 사랑을 주제로 하는 채식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이 풍조는 자연스럽게 편안한 방식으로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황금시대 3년(2006년) 5월 중순, 베이징 대학교 채식 협회가 주관한 ‘채식 문화 주간’ 행사는 황사가 자주 일어나는 베이징의 봄을 밝게 채색해 주었다. 십여 개의 행사 고교 학생 단체, 베이징 채식 단체, 채식 문화 전문가, 주요 매체 기자 등 수백 명이 15일 저녁 베이징 대학교 잉제(英傑:재능을 뜻함.) 문화 교류 센터에 모여 유사 이래 최초의 채식 관련 기자 발표회를 개최했다. 중국에서 저명한 7명의 교수와 전문가들이 채식에 관한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했는데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고 건강해 보이는 용모로 학생들에게 갈채를 받았다.

이 행사의 의장을 맡은 티엔펑이라는 학생은 ‘깨끗함·아름다움·비폭력·평온’이라는 이번 채식 문화 주간의 취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사람들에게 건강을 추구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귀한 생활 방식과 식습관에 반영하여 본래 채식의 숨은 뜻인 ‘자비심’을 회복하자고 강력히 호소했다. 베이징 대학의 다른 회원들도 이 이상에 지지와 동의를 표했다.

그후 채식 식품업체 열 곳의 대표들과 예술계·연예계·문학계·영양학계의 예닐곱 명의 채식주의자들은 ‘인류가 왜 채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대중들과 함께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들은 현대 질병 예방, 영양 및 심신의 건강 상태 개선, 환경 보호, 조화로운 사회 건설 등 여러 방면에 미치는 채식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30년 동안 채식을 해 온 무용 교사 량웨이잉(梁月瑛) 씨는 가끔 이유도 없이 아프고 불편할 때는 동물 성분이 포함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실제 연령보다 20살 정

도 더 젊어 보이는 것은 인류가 건강하게 생활하는 데 있어 채식이 육식보다 훨씬 더 적합하다는 것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고 확신했다. 중국 보건 협회 식품 영양 및 식품 안전 전문 위원회 회장인 쑤수샤(孫樹俠) 여사는 당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노병, 간장 질환, 관절염 등 대부분의 성인병이 모두 육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라고 강조하면서 병을 얻은 후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게 나으며 채식은 인류의 현대 질병을 근절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채식한 지 10여 년이 되는 영화계 인사 왕진쑹(王勤松) 씨는 채식이 인류의 영혼을 고양시키는 데 미치는 영향을 재미있게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경우를 예로 들어 채식을 하면서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내면의 행복과 자신에 대한 존중심을 느끼고 넓은 마음과 고양된 정신, 민첩한 두뇌, 타인과 다른 생명에 대한 사랑과 일체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했다.

베이징에 있는 채식 식당 대표들과 교사들은 채식 문화는 이미 중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의 노장 사상과 유교, 불교의 모든 현자들의 공통된 선택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 전통 문화에서 가장 귀중한 관용, 사람과 동물에 대한 사랑, 만물동일체의 자연관과 생명관을 구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조화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인류 스스로 절제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해야만 타인에 대한 자비와 사랑의 힘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서 더욱 다채롭고 풍부한 채식 주간 행사가 진행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2003년 중국 민간 환경보호 부문 대상을 받은 다큐멘터리 '왜 그들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주)를 통해 동물이 겪는 모든 고통을 목격했으며 이어서 이 영화 제작자와 현장 토론을 벌였다. 채식 주간 주최측은 고도의 두뇌 활동을 필요로 하는 대학생들이 대부분 불규칙한 식사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국 위생부 류나(劉納) 박사를 초빙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채식과 영양에 관한 강연을 하도록 안내했다. '전국 10대 코치' 중 한 사람인 자오잉(趙穎) 여사도 '내면과 외면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채식으로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키는 비결을 소개했다. 매번 강좌가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남아서 강연자와 함께 열린 토론을 하고 주최측과 협찬 단체에서 무료로 제공한 두유와 맛있는 채식 디저트를 즐겼다.

채식 주간 행사 개최 전날 밤에 '대안적인 삶' 전단 2만 부를 받은 베이징 대학 채식협회 학생들은 이를 다시 채식 관련 행사를 준비 중인 다른 대학교 학생들에게 전해 주었다. 그리고 '전세계 엘리트 채식주의자'와 '채식 노벨상 수상자와 과학자' 명단이 적힌 대형 포스터도 학생 기숙사와 학생 식당 입구에 걸었다. 베이징의 매체들은 베이징 대학의 '채식 문화 주간'을 '베이징 내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새로운 운동을 주도한 선구자'라고 칭했는데, 정말 맞는 말이다. 현재 중국 정법 대학과 베이징 제2 외국어 대학도 채식 단체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베이징 사범 대학 국학사(國學社), 중국 임업 대학, 중국 농업 대학 또한 채식 홍보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베이징 대학 '채식 주간'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자는 고귀한 정신을 나타낸 행사였다. 중국 학생들의 의식을 고양시키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신께 감사드립니다! ☆



교내 식당에서 채식 창구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는 모습.

주: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다큐멘터리 '왜 그들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를 감상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총 9편)
<http://www.buddedu.com/xiazai/wsmbnctm.htm> (중국어)
<http://www.fjdh.com/media/1549.html> (중국어)



자바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대한민국

이제 채식 교육이 필요하다

부산 뉴스그룹 (원문 한국어)



한국에서 채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교육에 큰 영향력을 가진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서도 채식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전국 지부 중에서도 가장 왕성한 활동과 결속력을 갖고 있는 전교조 부산지부는 부산 센터를 초청해 교사를 위한 채식 교육 행사를 가졌다. 행사의 주제는 ‘채식이 아이를 살립니다’였는데 행사 일자가 마침 스승님의 생신인 5월 12일이었다. 동수들은 이러한 우연의 일치에서 스승님의 특별한 축복과 함께 성공적인 행사가 되리라는 것을 예감할 수 있었다.

전국 교직원 노동 조합의 부산 책임자인 이희주 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이제 채식 교육이 필요한 때입니다’라는 글에서 이 행사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교사로서 학생의 음식 습관을 보고 있으면 생활 습관의 문제를 이해하게 됩니다. 먹는다는 것!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겠는데… 현재 이 고민 속에서 새로운 대안의 하나로 ‘채식’ 문화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막연히 알고 있는 채식에 대해 교육적으로 접근하면서 수십 년 간 습관이 되어버린 우리의 식습관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직접 채식 음식을 체험하면서 온전한 교사의 양심을 향한 조그마한 몸부림을 쳤으면 합니다.”

5월 12일 저녁 부산 적십자 회관에서 열린 행사는 세심한 준비가 돋보였다. 가족들이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탁아소와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도 별도로 준비되었다. 가족단위로 참석한 교사들은 입장하면서 ‘대안적인 삶’ 전단과 함께 채식에 관련된 자료를 배부 받았고, 동수가 준비한 깊이 있는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채식 강연을 경청했다. 강사는 채식의 논리적 기반과 채식의 중요성 및 이로움, 그리고 채식이 학생들을 위한 하나의 훌륭한 전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적합하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들을 들어 역설하였다.

“채식 동물과 육식 동물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의 성격을 형성합니다. 채식이 좋은 것은 잘 알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알면서도 깊이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구를 살리는 위대한 혁명은 작은 식탁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개인의 밥상이 어떻게 변하느냐가 지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한 학급의 학생이 채식할 때 그 아이를 선생님이 격려하기만 해도 학급의 다른 아이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는 대단히 클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참석한 선생님 한 분의 의식 변화는 곧 당신의 제자들을 변화시킬 것이기에 대단히 의미 있는 강의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일상의 조그만 식탁의 변화가 어떻게 세계와 뿌리깊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재미있는 비유는 참석자들에게 큰 박수와 공감을 자아냈다. 열띤 강의를 끝나고 몇 년 전 한국의 주요 방송국 중 하나인 SBS에서 방영한 채식 비디오 ‘잘 먹고 잘사는 법’이라는 비디오를 상영했다. 약 40분 분량으로 방영된 이 프로그램은 육식의 부당함과 채식으로 바뀌어야 하는 여러 가지 논거를 제시하여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었다. 이 방송을 본 뒤, 참석자들은 저마다 육식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느낌을 서로 이야기했다. 남편과 아이를 동반한 한 젊은 여교사는 아이의 아토피 때문에 채식에 관심이 많았는데 논리적인 강의와 더불어 이 방송을 보고 나니 채식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는 오늘 강연회를 통해 채식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강연과 비디오 상영이 끝난 뒤 동수들이 정성껏 준비한 채식 뷔페를 즐기며 환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약 10미터 가량의 긴 식탁 위를 장식한 채식 뷔페를 보고 참석자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중의 어떤 사람들은 풀만 먹고 사는 줄 알았던 채식주의자들의 식단이 그렇게 영양가 있고 다양할 수 있다는 점에 놀라움을 표하는 한편 여러 가지 채식 정보를 물어 오기도 했다.

이 행사는 학교 체계 내 채식 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에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행사였다. 교사들이 먼저 가슴을 열고 대안적 생활 방식과 채식에 대한 공감과 호의적 반응을 보이는 모습에서 동수들은 황금시대로 향하는 시대의 흐름과 이 모든 것을 안내하신 스승님의 은총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이 행사는 미래의 채식 교육에 있어서도 큰 반향을 가져다 주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의미 있는 성과를 가져온 행사였다고 자체평가하고 앞으로 학교 단위로 채식 교육을 시도해 보겠다고 말했다. 부산 센터 역시 이 행사를 계기로 향후 보건 복지 공무원과 건강 관리공단 등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채식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호주

퀸즐랜드

록햄프턴에 자비의 씨를 뿌리다

브리즈번 뉴스그룹 (원문 영어)

황금시대 3년(2006년) 6월 3일과 4일 주말 동안 브리즈번의 몇몇 동수들은 '대안적인 삶' 전단 배포를 위해 록햄프턴(Rockhampton)행 비행기에 올랐다.

록햄프턴 공항에 도착하면 '호주의 소고기 수도, 록햄프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현수막이 여행객들을 맞이한다. 이를 본 동수들은 진심으로 이 도시가 좀더 사랑과 평화가 담긴 다른 이유로 유명해지길 바랐다.

동수들은 교외에서부터 배포 활동을 시작했다. 집집마다 우편함에 전단을 넣기로 했는데 집이 띄엄띄엄 흩어져 있어서 록햄프턴의 5천 가구에 모두 배포하려면 며칠은 걸려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다. 바로 길거리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에 전단을 끼워 넣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전단을 배포할 수 있었다. 동수들은 또한 건강 식품점과 같은 몇몇 가게에 전단을 좀 비치해 두어도 되는지 물었다.

둘째 날 배포 활동을 마친 후 그곳을 떠날 때 동수들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동수들은 아직 '대안적인 삶' 전단을 배포하지 못한 호주의 다른 도시에도 스승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전해지길 고대하고 있다.

태즈메이니아

자비로운 성인이 주신 영감

딕신타즈 사형/ 호주 태즈메이니아 (원문 영어)

고통받는 동물들에 대한 스승님의 괴로우신 마음을 느끼고 또한 '대안적인 삶' 전단에 대한 전세계의 놀라운 호응에 큰 힘을 얻은 태즈메이니아 호바트(Hobart) 동수들은 태즈메이니아 주에서 두 번째로 큰 북부의 론스터턴(Launceston) 시로 200km 걸리는 여행을 결심했다.

이틀 동안 동수들은 시내 전체에 전단을 배포했다. 시민들의 다정하고 긍정적인 반응에 고무된 동수들은 다시 북쪽 해안으로 향해 타말 강(Tamar River) 유역의 마을에 가서 계속 전단을 배포하기로 했다. 그후 한 사형이 태즈메이니아 북부 해안과 동부 해안을 캠핑 카로 돌면서 '대안적인 삶' 전단을 나눠 주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었다. 현지 주민들은 전단을 읽은 후 매우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 어떤 사람은 “맞아요! 여기 사람들은 모두 동물들을 사랑해요!”라고 응답했으며 다른 한 사람은 가장 눈에 띄는 카운터 앞을 가리키며 “물론 전단을 여기 두고 가져도 됩니다.”라고 말했다. 또 어떤 가게 여주인은 물건을 사는 고객들에게 봉지에 함께 넣어 줄 전단을 한 묶음 요구하기도 했다. 전체적으로 상점 주인들은 ‘대안적인 삶’ 전단을 읽은 후 밝고 행복한 표정을 띠었으며 우리는 이에 큰 힘을 얻었다.

‘대안적인 삶’ 홍보 활동을 돕는 노력은 몇 배의 보상으로 돌아왔다. 동수들은 이 과정에서 원시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자연 속에서 멋진 야영 생활을 누리기도 했고 고상한 이상을 공유하는 동수들과 정을 쌓았으며 야영장 위치를 가르쳐 주며 가는 길에 땀감용 잔가지들을 주워 가라고 일깨워 준 현지인들의 따뜻한 마음씨 등 잊지 못할 수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했다. 우리는 스승님의 일을 도우면서 매우 기분 좋았고 길에서 만난 여유 있고 친절han 사람들의 열렬한 반응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

카타르와 그리스

‘대안적인 삶’ 전단 배포로 신의 사랑과 빛을 퍼트리다

포모사 가오슝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황금시대 3년(2006년) 5월 21일, 16명의 포모사 동수들이 ‘대안적인 삶’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로 출발했다. 중간에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 아랍 국가인 카타르(Qatar)의 수도 도하(Doha)에서 8시간 넘게 체류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현지 가이드와 관광버스를 안내해 두었다가 그 시간을 활용해 번잡한 시내에 가서 아랍어로 된 ‘대안적인 삶’ 전단을 배포했다.

우리가 도하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4시가 조금 넘는 시각이었다. 출발한 지 15시간이나 되었지만 전혀 피곤한 기색이 없어 보이는 동수들은 가이드를 기다리는 시간을 이용해 공항의 관광객들과 택시 기





자바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사들에게 전단을 나눠 주었다. 아직 이른 시각이어서 상점들은 대부분 문을 열지 않은 상태였다. 방문 목적에 대해 가이드와 얘기를 나눈 후 먼저 시내 중심가를 돌고 나서 바로 과일과 채소를 판매하는 도매 시장으로 향했다. 도착해 보니 마침 가장 바쁜 시간대여서 시장은 엄청난 인파로 차 있었다! 한 시간도 채 못 되어 모든 사람들이 전단을 받게 되었다.

버스로 돌아오자 가이드는 이곳이 카타르의 주요 과일, 채소 판매장이라고 하면서 우리 전단이 사실상 그곳을 무료로 홍보해 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시장 사람들이 고마워했다며 감사의 말을 전해 주었다. 가이드의 정보에 따르면 도하에 살고 있는 사람 중 1/4만이 현지인이며 나머지는 외국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단을 나눠 줄 때 영어 전단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 사실 처음에는 그리스 관광객을 위한 영어 전단 300장만 가져오려다가 거의 700장을 가져왔는데 이것이 바로 유용하게 쓰인 것이다. 우리는 신이 미리 안배해 놓으신 이 기적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그저 신의 뜻에 따라 수행하기만 하면 됐던 것이다.



5월 22일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투숙한 호텔이 신타그마 광장(Syntagma Square)과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짐을 풀자마자 그곳으로 가서 전단을 배포했다. 한 채식주의자는 전단을 받아 영혼의 동반자를 만난 듯 동수에게 고마워했다. 이 아름다운 출발은 우리 모두에게 큰 격려가 되었다!



5월 23일 동수들은 세 조로 나뉘어 아테네 지하철의 3개 주요 노선을 따라 전단을 배포했다. 우리는 각 지하철 역 입구에 서서 전단을 나눠 주거나 신문에 끼워 넣는 식으로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했다. 지하철 입구는 전단을 배포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였다. 승객들은 지하철을 기다리거나 타고 가는 동안 전단을 읽고 서로 토론하기도 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영혼은 이곳에서 하나가 되어 신의 은총을 경험했다. 전단을 읽은 한 노신사는 우리에게 다가와 어디에서 두부를 살 수 있는냐고 물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전단의 내용에 진심으로 동의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어했다. 짧은 대화 속에서도 우리는 사람들의 영성과 의식이 이미 고양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5월 24일, 전단을 대량으로 더 효율적으로 배포하기 위해 동수들은 사람들이 출근하는 러시아워 시간에 맞춰 지하철 가판대의 무료 신문에 전단을 끼워 넣었다. 어떤 사람들은 동수들이 신문에 전단을 끼워 넣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져가기도 했다. 어떤 화가는 우리 동수가 걸고 있는 목걸이의 스승님 사진을 보고선 특별히 스승님에 대해 묻고 전단을 끼워 넣는 작업을 도와주겠다고 고집하며 다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된 신문을 정리해 주기도 했다.

신문에 전단 끼워 넣는 일을 마친 후, 우연히 퍼레이드를 하는 대학생들을 만나게 되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한 순간도 전단을 배포하는 손길을 쉴 수 없을 정도였다. 많은 사람들이 전단을 읽은 후 동감을 표했고 동수들을 격려해 주었다. 한 지하철에서 만난 한 신사와 숙녀는 전단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고 나서 고개를 들어 한 사저가 착용하고 있던 스승님의 사진을 지긋이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에는 아무 말도 필요 없이 그저 신과 하나되는 사랑과 감동만이 존재했다.

5월 25일 저녁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 있는 에덴(Eden) 해변을 찾아갔다. 전단을 받은 후 많은 사람들이 해변에 누워 전단 내용에 해대 토론을 벌였다. 한 부부는 사저와 두부를 만드는 법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 우리는 아테네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을 소중한 기회로 여겨 모두 함께 에게해 해변을 따라 걸으며 전단을 나눠 주었다. 마침 해변에는 많은 그리스 남녀노소 가족들이 산책을 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기쁘고 평온한 분위기 속에 모두들 전단을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은 정말 멋진 풍경이었다!

어떤 사람은 전단을 받은 후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우리의 일이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말해 주었다. 두 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나온 한 유고슬라비아 이민 남성은 자기네들도 채식주의자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메일 주소를 주며 더 많은 정보를 보내 주길 희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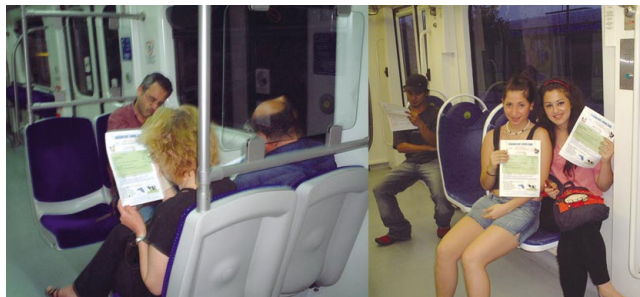
전단을 나눠 주는 동안, 자발적으로 전단을 받으러 오는 사람도 많았고 채식과 수행에 대해 묻기도 했으며 가족과 친구들에게 갖다 줄 전단을 따로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 여행을 하기 전, 한 동수가 모든 그리스인들이 고개를 돌려 이 전단을 바라보는 내면의 비전을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들 이 여행의 중요성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었다. 한 사저는 평소 외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DVD '사랑의 노래'에서 "사랑은 실제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라고 하신 스승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스승님의 말씀을 정말 실천으로 옮길 때 자연스럽게 에너지의 흐름이 솟아나 전혀 피곤하지 않고 일을 멈추고 싶지도 않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는 우리가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만 하면 신이 나머지 99%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스승님의 말





자바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가져다줄 수 있었고, 열망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대안적인 삶’ 전단을 통해 신의 메시지를 전해 받을 수 있었다. ★

섬과 완전히 일치한다.

아테네 마지막 밤에 우리는 함께 앉아 이 며칠 동안 겪었던 감동을 공유했다. 한 사저는 우리 모두의 머리 주변에 눈부시게 빛나는 등근 빛이 평화로운 기운을 발산하는 것을 보았다고 얘기했다. 스승님의 축복 덕분에 우리는 신의 사랑과 빛을 이 나라에

터키

터키인들과 함께 신의 기적을 체험하다

포모사 가오슝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아시아와 유럽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터키는 인구가 6,800만이며 그 중 1,600만 명이 가장 큰 도시인 이스탄불에 살고 있다. 황금시대 3년(2006년) 5월 16일, 포모사 동수 16명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전단 배포 활동을 마치고 ‘대안적인 삶’ 전단 5만 장을 가지고 터키 이스탄불로 향했다.

우리는 현지 가이드인 유수프 부라크(Yusuf Burak) 씨로부터 전단을 배포하려면 사전에 시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시청의 허락을 받은 후 전단을 나

누어 주던 중 학생들을 포함한 이곳 사람들의 마음이 매우 순수하고 단순하며 매우 수용적인 태도로 전단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곳에 살고 있는 몇몇 외국인들도 우리에게 많은 지지를 보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내며 자발적으로 전단을 나누어 주기 좋은 곳인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알려 주기도 했다.

우리는 터키에 이를 반 정도만 머물 계획이었기 때문에 작은 그룹으로 나뉘어 동시에 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활동 대장과 현지 가이드로 구성된 한 조는 허가 신청과 전단 배포를 전문적으로 맡아 하는 현지 대행사를 찾는 것을 주요 임무로 삼았다. 다른 조는 다시 세 조로 나뉘어 각각 대행사의 권역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지역에서 전단을 나눠 주는 한편 변화가에서 전단을 비치할 만한 서점을 찾았다. 우리는 현지 가이드의 도움으로 휴일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효율성이 뛰어나고 사업적 평판이 높은 전단 배포 대행사를 찾을 수 있었다. 이 대행사는 최상의 가격을 제시했다.

전단을 나눠 주기 전날 밤 몇몇 동수들은 스승님의 법상 앞에 전단을 두고 명상을 하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다. 희망대로 다음날 그들은 신시가지에서 가장 변화한 지역인 탁심 스퀘어(Taksim Square)를 배당 받았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보는 듯했다. 전단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는데, 몇몇 사람들은 우리가 원손에 들고 있던 전단을 직접 가져가기도 했다. 몇몇 장소에서는 너무 많은 인파로 북적대는 바람에 우리는 계속 뒷걸음을 치며 전단을 나눠 줘야만 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결국 우리는 그냥 양손에 전단을 올려놓고 사람들이 직접 집어 가도록 했다.

한 서점 주인은 전단을 읽은 후 우리의 활동을 칭찬했다. 그녀는 조류 독감 때문에 터키에서 많은 새를 죽였을 때 정말 가슴 아팠다고 하면서 이 메시지를 다른 많은 서점에도 나누고 싶어했다. 전단을 받은 한 젊은 아가씨는 동물을 매우 사랑한다면서 영양상의 이유로 가끔 고기를 먹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채식을 한다고 얘기했다. 우리는 그녀에게 식물성 식품만으로도 훌륭한 단백질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또한 전단에 인쇄된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영양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와 요리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대화를 통해 우리는 그녀가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 매우 좋아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몇몇 동수들은 길 가운데 서서 차를 타고 지나가는 운전자들에게 전단을 나눠 주며 ‘대안적인 삶’의 메시지가 터키의 전국 방방곡곡에 전해지길 희망했다. 그 결과 운전자들이 창문을 내리고 전단을 요청하기까지 했다. 우리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군중들이 눈에 띄는 시간에 거의 3천 장의 전단을 나누어 주었는데, 사람들은 바람에 날려 떨어진 전단도 바로 집어갔다!





자바로온 채식 지구촌 만들기

주변 환경을 깨끗이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길에 떨어진 전단을 모두 줍자 이에 감동한 이곳 사람들은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좋아요, 훌륭해요!” 하고 우리를 칭찬했다. 일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전단을 나눠 주는 일을 도와주기도 했으며, 어떤 이들은 주머니에서 접혀진 전단을 꺼내 전단을 잘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도 했다. 한 아이는 가족들이 받은 전단을 모아서 가족들의 격려를 받으며 길에서 전단을 나눠 주는 동수들을 모습을 흉내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작은 천사처럼 아주 순수하고 사랑스러웠다.



어린 학생들로 가득 찬 버스가 지나갈 때 학생들은 전단을 보고선 동수에게 손을 흔들며 전단을 요청했다. 전단을 받은 학생들은 모두 뿔 듯이 기뻐하며 내용을 주의 깊게 읽었다. 전단을 배포하는 중에 재미있는 일도 있었다. 우리와 생각이 다른 몇몇 사람들이 우리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대안적인 삶’의 내용을 읽은 경찰은 오히려 우리를 지지해 주었고 전단을 손에 들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또 하나 재미있었던 일은 몇몇 가게 주인들이 자기 가게 앞에서 전단을 배포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 중 몇몇은 동수들에게 전단을 달라고 하고선 자발적으로 나눠 주기도 했다. 이 밖에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피약별 아래에서 일하는 모습을 본 경찰과 가게 주인들은 차가운 물과 콜라를 갖다 주기도 했다.

버스 정류장에 있던 기사들은 모두 버스 안에서 전단을 나눠 주는 것을 기꺼이 허락해 주었다. 버스에 탄 몇몇 서양인들은 사람들이 모두 전단을 읽고 있는 것을 보고선 우리에게 영어로 된 전단을 달라고 했으며, 한 기사는 우리를 무료로 태워 주었을 뿐 아니라 승객들에게 전단의 내용을 설명해 주기도 했다.

군중들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신의 사랑에 둘러싸여 있는 듯했다. 이런 신의 보호막 안에서 피곤하기는커녕 더욱 열정적이고 신실하게 전단을 한 장씩 나눠 주었고 속으로는 주민들을 위해 기도 했으며 그에 대한 회답으로 이곳 사람으로부터 감사의 말을 들었다. 이런 축복의 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어떤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이 전단을 받든 안 받든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축복해 달라고 신께 기도했다. 그래서 그들이 전단을 받지 않아도 사기가 꺾이지 않았다.

일을 하면서 우리 모두 신의 보호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터키의 모든 사람들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이 우리의 형제자매였음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어떤 동수는 비행기가 터키에 착륙하자마자 즉시 신의 축복의 힘이 이 땅에 쏟아지는 것을 느끼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번 여행 동안 신께서 여러 천사들을 보내 우리를 도와주셨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에게 다가와 목적지까지 가는 지름길을 알려준 사람도 있었고 우리가 묻기도 전에 길을 안내해 준 사람도 있었다. 또한 이곳 가이드인 유수프 씨도 우리를 놀라게 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그를 보통 가이드라고 생각했다가 그가 일을 매우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보고는 달리 보였다. 알고 보니 그는 사실 고고학 박사로서 외국 학술 단체의 전문 통역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놀라운 신의 안배로 그런 그가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 우리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것이다.

터키를 떠나기 전날 밤, 우리는 함께 모여 이번 여행을 통해 얻은 경험과 생각을 나누며 웃음을 터트리기도 하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신의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은 이로움을 얻은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일을 통해 긍정적인 생각이 기적을 창조한다는 것을 배웠을 뿐 아니라 그 가운데 무한한 축복과 사랑도 받았기 때문이다. ★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 나날이 커져 가는 채식 문화

오스트리아 뉴스그룹 정리 (원문 독일어)

보다 많은 동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대안적인 삶’ 전단을 나눠 주라는 스승님의 자비로운 지시를 받은 후 비엔나 센터는 채식의 메시지를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몇몇 특별한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유럽 연합은 4월 4일부터 6일까지 비엔나 회의 센터에서 ‘자유 선택’을 의제로 한 회의를 열고 유





자바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럽 내 유전자 변형 작물과 일반 작물의 공존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4월 5일 ‘유전자 변형 없는 지역을 위한 행진(March for GMO-free Regions)’이라는 시위가 열렸고 오스트리아, 독일, 영국의 동수들은 이번 활동에 참가해 유럽 각지에서 온 유전자 변형 반대론자와 환경 보호주의자들에게 채식주의를 알릴 뿐 아니라 신이 창조하신 자연의 씨앗을 유전자 변형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유전자 변형 씨앗에서 수확된 농작물은 인류의 건강과 환경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기농 재배를 하는 오스트리아 동수의 도움을 받아 시위가 벌어지는 회의장 앞에 부스를 설치하고 자연 식품의 우수성을 상징하는 유기농 사과 2천 개를 무료로 나누어 주었다. 우리는 사과와 함께 영어와 독일어로 된 ‘대안적인 삶’ 전단과 관음법문을 소개하는 인쇄물을 밝은 무지개 색으로 꾸민 테이블 위에 함께 진열해 놓았다.

연설과 음악 공연도 포함된 이번 항의 행진에는 유럽 내 환경 보호주의자들과 유전자 변형 반대론자인 유명 인사들이 참여했다. 현장에서 오스트리아 녹색당 소속 정치인인 알렉산더 반 데르 벨렌(Alexander van der Bellen)과 마들레네 페트로비크(Madeleine Petrovic) 그리고 유럽 각지에서 온 많은 유전자 변형 반대 인사와 환경 운동가들이 연설을 했다. 이번 시위에는 대략 유럽 20개국에서 유전자 변형 반대론자 및 환경 보호 단체들이 참가했다.

우리 사과와 전단은 대단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 행사가 끝나기 두 시간 전에 이미 사과가 완전히 동이 났으며, 시위에 참여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한 장의 ‘대안적인 삶’ 전단을 받았다. 많은 가게 주인들이 손님들에게 나눠 줄 전단을 가져가기도 했다. 맛있는 유기농 사과를 받아가기 위해 몇 번이나 다시 찾아온 사람들도 많았는데 경찰도 예외는 아니었다. 행사장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온 경찰들은 매우 우호적이었으며 몸에 좋은 간식 사과를 받게 되었다며 고마워했다. 경찰의 이런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은 우리 사과에는 사람들의 적대감을 없애는 유전자가 들어 있다며 유전자 변형된 것이라는 농담도 했다. 사실 그가 한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다. 우리 사과는 스승님의 무한한 사랑과 축복을 통해 정말 ‘변형’ 되었으니 말이다!

아름답게 빛나는 이 사과는 오스트리아 국영 방송(ORF)에서 나온 기자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그들은 사과를 몇 개나 맛있게 먹고선 재미있는 농담도 했다. 얼마 후 그들은 우리 사과와 ‘자연의 방식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쓰인 우리 부스의 간판을 찍어 갔다. 행사가 끝날 무렵 한 번 더 우리를 방문한 그들은 유기농사를 짓는 사형을 인터뷰하며 유전자 변형 작물의 위험성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동수들은 나누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을 큰 행운으로 여겼다. 이에 대해 한 사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료로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한 일이다.”

4월 22일, 비엔나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에서 채식 건강 식품점을 운영하는 동수가 거리 축제에 참가했다. 이 축제는 주로 어린이들을 위한 것으로 어린이 장난감 바자회도 끼어 있었다. 그는 우리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에게 이번 행사를 통해 ‘대안적인 삶’ 전단을 나눠 주자고 제안했다. 행사 당일 어린 자녀가 있는 많은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식당과 가게에서는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음식과 간식을 제공했다. 우리는 채식 음식을 알리기 위해 여러 가지 맛의 머핀과 팔라펠, 채식 핫도그, 그리고 각종 영양 소스를 바른 샌드위치 등 맛있는 채식 요리를 준비했다.

축제에 온 사람들에게 전단도 나눠 주고 시식할 수 있는 채식 음식도 제공하자 많은 사람들이 채식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 중 어떤 이들은 이 채식 건강 식품점에서 평일에 제공하는 채식 점심 메뉴에 대해 물었다. 비엔나 동수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많은 사람들이 채식으로 전향하는 데 힘이 되어 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실제로 건강 식품점에서 제공하는 채식 식사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으며, 심지어 비엔나의 유명한 건강 식품점에 대한 최근 신문 기사에서는 이 식품점의 점심 채식 식사를 이 가게의 특색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

5월 1일 얼마 전 새로 개축한 국회의사당 건물이 있는 시내 중심지에서 열린 국제 노동절 행사와 행렬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다. 우리는 이 날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대안적인 삶’ 전단을 나눠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선 보다 효과적으로 전단을 배포하기 위해 도시 전체를 담당 구역으로 나누었다.

아름답고 화창한 날씨에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경축 행사를 즐겼다. 사람들이 가장 붐볐던 곳은 시내 중심지와 근처의 공원이었다. 매체에서는 이날 행사에 약 15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우리 작업 팀은 신의 축복을 받아 많은 전단을 열성적으로 나누어 주었으며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전단을 받아 갔다.

비엔나 동수들은 또한 전국에 전단을 배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5월 31일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영국, 크로아티아 동수들도 전단 배포를 도와주러 왔다. 우리는 주말 동안 오스트리아 전역에 전단을 나누어 주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먼저 동부에 위치한 하(下) 오스트리아 주의 주도(州都)인 상



폴텐(Sankt Polten)으로 차를 몰고 가서 이곳에서 첫 번째로 전단을 배포했다. 신의 축복 덕분에 날씨도 아주 좋았다. 우리는 시민들에게 전단을 나누어 주는 한편 중심가의 주차장에 세워진 차와 오토바이, 자전거에도 전단을 꽂아 두었다. 함께 일한 동수 모두 신의 가피력이 우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대안적인 삶’의 주제와 조화로운 색상, 귀여운 동물 그림, 전단의 내용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아주 기뻐하고 고마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근처의 사형 집에서 전단을 나누어 주면서



자바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경험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다. 그곳에서 그날 밤을 보낸 우리는 다음 날 아침 그 사형의 팀과 합류해 오스트리아 남서부로 여정을 계속했다. 비엔나에서 300km 거리에 있는 잘츠부르크(Salzburg)에 도착했을 때는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잠에서 깨어나기 전이라서 우리는 이 기회를 이용해 빗속에서 이 아름다운 도시의 거리를 산책했다. 신께서는 그곳의 환경과 분위기를 씻어 주시며 우리에게 멋진 날을 준비해 주시는 축복을 덤으로 주셨다. 얼마 후 관광객과 밖으로 나오는 시민들이 점점 더 많아지자 우리는 전단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으며 이

지역의 작은 마을들까지 전단 배포 작업을 해 나갔다. ‘대안적인 삶’ 전단 한 장 한 장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마다 그들의 기쁨이 느껴졌고 그들이 신의 사랑과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부러 기다렸다가 스승님과 채식에 대해 더 자세히 묻는 사람들도 많았다.

카린티아(Carinthia) 주의 주요 도시인 클라겐푸르트(Klagenfurt)는 비엔나에서 남서쪽으로 300km 넘게 떨어져 있다. 5월 26일 우리 팀은 중심가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들의 모든 입구와 슈퍼마켓 앞에서 전단을 나누어 주었으며 이 도시의 직업학교 한 군데와 대학교 도서관에도 전단을 비치해 두었다. 우리는 자연의 평화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곳 사람들이 매우 온화한 태도로 ‘대안적인 삶’ 메시지를 받고 행복해하는 것을 보았다.

6월에는 오스트리아 사형사저들이 스위스로 가서 스위스와 독일 동수들과 함께 전단을 나누어 주었다. 동수들은 돌아오는 길에 오스트리아의 인스브루크(Innsbruck)와 도른비른(Dornbirn), 펠트키르히(Feldkirch), 그리고 블루텐즈(Bludenz) 등의 마을에도 들러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다. 우리는 신의 축복으로 이 메시지가 사람들이 생활 방식과 동물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데 도움을 주어 이 세상이 하루 속히 더욱 큰 깨달음의 황금시대에서 이로움을 얻기를 희망한다.

최근 채식주의를 알리는 우리의 노력이 벌써 얼마간의 결실을 맺었다는 흥분되는 소식이 들려왔다. 독일 잡지 『슈테른(Stern)』은 유명한 채식주의자에 대한 두 편의 기사를 통해 채식 문화가 할리우드 스타들뿐 아니라 테니스 선수인 보리스 베커(Boris Becker) 같은 독일의 유명 인사들에게도 유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스타들에 따르면 ‘식물을 먹는 사람들’이 육식을 하는 사람보다 건강하고 활력이 넘칠 뿐 아니라 더 멋지고 세련되며 매력적이라고 한다.

『슈테른』지는 또한 몇몇 수치를 인용해 채식 인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을 명확히 제시했다. 독일의 ‘소비자 조사 협회(Gesellschaft für Konsumforschung)’의 연구에 따르면 **1983년에는 채식하는 독일 인구가 0.6%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7.6%로 늘어났다고 한다!** ★

『슈테른』의 원문 기사(독일어)를 보시려면 다음 웹사이트에 접속하세요.

<http://www.stern.de/lifestyle/leute/562077.html?nv=sb>

http://www.stern.de/lifestyle/leute/561762.html?nv=ct_mt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모로코

끝없는 사랑의 고리가 모로코를 연결하다

프랑스 파리 뉴스그룹 (원문 프랑스어)

북아프리카의 아름다운 나라인 모로코는 이슬람 국가로서 이곳 국민들은 매우 독실하게 하루에 5번 기도한다. 새로 왕위에 오른 젊은 국왕 모하멧 6세(Mohammed VI)는 국민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는 빈곤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 나라에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 국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는 어딜 가나 온갖 종류의 채소와 과일, 대추, 아몬드, 콩 등을 구할 수 있어서 채식하기가 아주 쉽다.

과거에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로코인은 프랑스어를 사용한다. 모로코에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하는 오랜 바람을 갖고 있던 프랑스 동수들은 '대안적인 삶' 전단을 배포함으로써 세계 각지에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을 만들라는 스승님의 당부에 큰 힘을 얻고 이번에 모로코를 방문해 그곳 주민들을 만나는 멋진 기회를 갖게 되었다.

우리는 스페인 사형 한 사람과 모로코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인 카사블랑카(Casablanca)에 아파트를 빌린 후 비행기를 타고 가서 공항에서 시내까지 기차를 탔다. 우리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어떤 어린 소녀가 와서 뽀뽀를 해주었는데 우리에게겐 환영 인사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답례로 그 소녀와 형제들에게 과자를 주었다.

우리는 두 사람씩 짝을 지어 3일 만에 카사블랑카, 엘자디다(Al Jadida), 살레(Sale) 그리고 수도인 라바트(Rabat)에 거의 3만 장의 전단을 배포했다. 나흘째 되던 날 경찰은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단을 나눠 주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알려 주었다. 다음날 우리가 허가 신청을 하던 중 관공서와 시청, 경찰서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의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었다.

5월 25일, 사저 두 명과 사형 한 명이 프랑스에서 도착했다. 그들은 인터넷에서 카사블랑카에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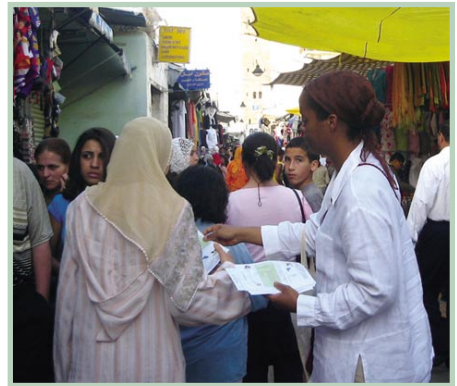




자바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인도적 사회(Humane Society)’의 웹사이트(www.ahpae-marokanim.com)를 찾아냈다. 우리는 그 단체 회장인 아난느 압델무탈립 여사(Ms. Hanane Abdelmouttalib)를 만나기로 했다. 이 여성은 성자와 같았으며 개와 고양이, 당나귀와 같은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녀의 무조건적인 헌신과 사랑은 대단히 감동적이었다. 우리는 그녀와 그녀의 친구를 인터뷰하고 그녀에게 ‘진정한 영웅’을 보여 주었다. 압델무탈립 여사는 이를 보고 스승님에 대해 큰 감명을 받았다.

우리는 아랍어로 된 전단 내용을 토요일과 일요일자 『아싸바(Assabah)』 신문에 게재하기로 했다. 이 신문은 매일 9만 부 인쇄되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자 신문은 모두 매진되었다. 월요일에 전단 내용을 다시 한번 게재하기 위해 찾아갔을 때 담당자는 ‘대안적인 삶’ 정보를 대중들에게 전한 것에 대해 축하하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단체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 신문사로 전화를 했다고 알려 주었다. 전단은 프랑스로 발행되는 신문 『이코노미스트(Economist)』지에도 게재되었다.



몇몇 사람들은 우리 휴대폰으로 전화해서 우리 단체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물었다. 그래서 카사블랑카를 떠나기 전날 우리는 빌린 아파트에서 소규모의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하고 케이프타운 세계종교회의에서 하신 스승님의 강연과 ‘인생이라는 호텔’의 전 반부를 상영했다. 사람들은 스승님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으며 일부는 방편법을 배웠다. 강연회를 마친 후 우리는 한 사저가 준비한 맛있는 채식 요리를 같이 나눠 먹으며 축하했다. 떠나기 전에 우리는 이 새로운 친구들에게 스승님의 출판물과 ‘대안적인 삶’ 티셔츠, 그리고 갖고 있던 스승님의 사진이 있는 펜던트를 선물했다.

5월 31일, 한 사형은 테마라(Temara)에 있는 동물과 자연 보호 협회(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and Nature, SPANA) 회장인 압델하미드 벨렘리흐 박사(Dr. Abdelhamid Belemlih)를 만났다. 이 협회는 가장 큰 동물 보호 단체 중 하나이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벨렘리흐 박사는 무슬림이라면 완전 채식주의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이번 여행을 마쳤을 때 모든 것이 스승님이 안배하신 것임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마치 끝없는 ‘사랑의 고리’ 같았으며 심지어 장어로 보였던 것들도 나중에 보면 축복이었거나 신의 계획 속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다른 일로 인도해 주는 실마리였다. 우리가 모로코에서 했던 일들은 아주 작은 일이었지만 세계의 한 구석에 보다 많은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기쁘고 감사했다.

모로코에서 방편법을 배운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메일을 통해 스승님을 알고 명상법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신과 스승님께 감사했다. 그들은 명상을 아주 좋아할 뿐 아니라 이미 내면이 변화하고 더욱 평화로워짐을 느꼈으며 좋은 체험도 했다. 인샬라(신의 축복이 함께하길)! ★

모로코에서의 감동적인 만남

좌유즈 사저/ 프랑스 파리 (원문 프랑스어)

▲파란 옷을 입은 여인이 아난느 압델무탈립 여사이다.

봉사 팀 중 카사블랑카에 ‘대안적인 삶’ 전단을 배포하러 갔던 동수들 몇 명은 그곳에서 ‘인도적 사회(Humane Society)’의 아난느 압델무탈립(Hanane Abdelmouttalib) 여사 ♥♥♥♥♥♥♥♥를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동물에 대한 놀라운 희생과 헌신을 하고 있는 인물이었는데, 이는 모로코에서 보기 드문 일이었다.

이 젊은 여성이 모로코에서 집 없는 동물들을 돕기 위해 처리해야 할 상황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큰 감동을 받았다. 사람들이 보통 동물들을 좋아하지 않고 학대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떠돌이 동물들이 많다. 새벽과 늦은 밤에 압델무탈립 여사와 의사인 그녀의 친구는 도시를 샅샅이 돌아다니며 버려진 고양이와 개들을 찾아 먹이를 주고 치료해 준다. 그녀는 굶은 날씨가 사람들의 좋지 않은 반응에도 아랑곳없이, 심지어 자신의 건강조차 개의치 않고 이 일을 계속하고 있으며, 오후에는 자신의 웹사이트(<http://www.ahpae-marokanimo.com>)에서 일한다.

그녀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오로지 겁에 질린 동물들에게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바람과 자비심 때문이며 그녀의 꿈은 이들을 돌볼 수 있는 보호소를 만드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녀의 일을 도와주고 있는 북 프랑스 릴(Lille)에 사는 프랑소와즈 브라사르 부인(Ms. Francoise Brassart)과 그녀의 아들 ♥♥♥♥♥♥♥♥♥♥은 자신들의 집을 동물 보호소로 만들어 장애가 있는 불행한 동물들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는 해외에서 온 동물들도 있다. 이들은 압델무탈립 여사의 웹사이트와 동물들에 대해 만방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안적인 삶’의 메시지와 스승님의 가르침에 감동한 압델무탈립 여사는 우리에게 장애가 있는 고양이 피토(Pito)를 프랑스의 보호소에 데려가 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녀와 브라사르 여사는 우리의 카사블랑카 방문을 마치 천국의 선물처럼 여겼는데, 그것은 그들이 1월부터 고양이를 프랑스에 데려다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솔직히 우리는 고양이를 데리고 여행한다는 게 조금 불안하게 느껴졌다. 게다가 국경을 통과할 때는 관련 서류를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기까지 했다. 다행히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브라사르 부인의 집에 있는 고양이 한 마리가 견본책자의 스승님 사진에 머리를 얹고 있다.



아난느와 피토.



며칠 뒤 나와 다른 동수 한 사람이 피토를 밭에 있는 보호소에 데려다 주었다.

가는 도중 내가 피토의 밭에서 왜 피가 나는지 확인하는 동안 그는 겹을 먹고 도망쳐 나무 위로 올라가 버렸다. 어렵사리 피토를 다시 붙잡아서 브라사르 부인과 아들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정말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동물을 돕기로 약속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굳은 결심과 용기를 가지고 헤쳐 나가는 그들의 사랑과 자비를 보고 나니 이 모든 것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

이 모든 과정을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나는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굳은 결심과 의지, 힘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었다. 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법을 배우도록 이런 기회를 주신 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전세계 엘리트 채식주의자 (후속 명단)



작가, 시인, 예술가, 화가

캐롤 아담스(Carol J. Adams: 미국 페미니스트 겸 채식주의자 작가), 니콜라이 레스코프(Nikolaj Leskov: 러시아 작가, 저널리스트), 사데크 헤다야트(Sadeq Hedayat: 이란 작가), 짐 메이슨(Jim Mason: 미국 작가, 강연자, 환경주의자), 마틴 로우(Martin Rowe: 영국 작가), 노름 펠프스(Norm Phelps: 미국 동물 권리 보호 작가), 빅토리아 모란(Victoria Moran: 미국 작가), 조 웨일(Zoe Weil: 미국 작가, 국제 인도적 교육 협회[International Institute for Humane Education] 공동 설립자 겸 회장), 주디 카맨(Judy Carman: 미국 작가, 동물 보호 및 환경 보호 운동가), 하워드 리먼(Howard Lyman: 미국 작가, 지구 구조대[EarthSave] 전임 회장,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목소리[Voice for a Viable Future]' 회장).

모델, 패션 디자이너

매기 큐(Maggie Q: 어울락게 미국 모델).

영화 배우, TV 배우, 감독, 제작자

그랜트 알렉산더(Grant Aleksander: 미국 배우, '소프 오페라 다이제스트상[Soap Opera Digest Awards] 수상, 에미상 후보, 동물 권리 운동가), 페르시아 화이트(Persia White: 미국 여배우, 음악인, 인권주의자, 동물 권리 운동가, 환경주의자), 쉬홍(徐亨: 포모사 배우), 스만잉(席曼寧: 포모사 여배우), 뤼송셴(呂頌賢: 홍콩 배우), 인자오더(尹昭德: 포모사 배우).

인도주의자, 환경 보호 인사

대니 서(한국계 미국인, 환경 운동가, '환경 보호 생활' 고문, 'Earth 2000' 설립자), **헤더 밀스 매카트니**(Hether Mills McCartney: 미국 자선 운동 인사).

의사

지양슈희이(姜淑惠: 포모사 한의사).

가수, 팝 스타, 무용가, 음악인

코너 오버스트(Conor Oberst: 미국 음악인), **멜라니**(Melanie: 본명은 멜라니 안 사프카-쉐커릭[Melanie Ann Safka-Schekeryk], 미국 싱어 송라이터), **알렉산더 그린왈드**(Alexander Greenwald: 미국 음악인), **윌 터틀**(Will Tuttle: 미국 피아니스트, 작곡가, 작가, 채식 운동가), **카를로스 산타나**(Carlos Santana: 그래미상을 수상한 멕시코 음악인, 라틴 락 기타리스트), **후오정치**(Cheng-Chi Huo: 포모사 가수, 배우), **장학우**(張學友: 홍콩 가수).

철학자, 학자

시몬 저우(Simon Chau: 홍콩 교수, 자연 생활 운동가), **톰 리건**(Tom Regan: 미국 철학 교수, 동물 권리 보호 작가), **스티븐 로젠**(Steven Rosen, 산스크리트어 이름은 사트야라자 다사[Satyaraja Das]: 미국 힌두교 학자, 작가), **조안나 메이시**(Joanna Macy: 미국 생태 보호 학자 겸 운동가, 불교 및 일반 체계 이론 학자).

정치인, 사회 운동가

덱스터 스콧 킹(Dexter Scott King: 미국 민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박사의 아들), **줄리아 버터플라이 힐**(Julia Butterfly Hill: 미국 환경 운동가, 작가), **아소카 대왕**(Ashoka the Great: 인도 마우리아 왕조 시대 황제, 273-232 BC), **홍레이**(洪嫻: 포모사 '문화 교육 기금회' 수석 비서관, 전임 입법 위원 선푸송 씨의 부인), **린타 이화**(林岱樺: 포모사 입법 위원).

종교 및 영적 지도자, 유명 인사

세르게이 라도네츠키(Sergei Radonezhsky: 러시아 수사, 나중에 성인으로 시성됨), **박티베단타 스와미 스리라 프라후파다**(A. C. Bhaktivedanta Swami Srila Prabhupada: 인도 영적 지도자, '크리슈나를 생각하는 국제 단체[International Society for Krishna Consciousness]' 설립자), **수오다지**(Suodaji: 티베트 불교인 겸 탄트라 스승), **토마스 메트론**(Thomas Merton: 프랑스계 미국 수사, 종교 작가), **머틀 필모어**(Myrtle Fillmore: 미국 '유일 교회[Unity Church]' 공동 설립자).

과학자, 발명가, 건축가, 기술자

더글라스 호프스테터(Douglas R. Hofstadter: 미국 물리학자, 컴퓨터 과학자), **천자오편이**(陳昭妃: 포모사 영양 면역학의 선구자).

스포츠계 인사 및 건강·보건 전문가

이준구(한국 태생의 태권도 사범), **천스신**(陳詩欣: 포모사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위안수치**(袁淑琪: 포모사 올림픽 양궁 동메달리스트).

보다 상세한 '전세계 엘리트 채식주의자' 명단을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나라별, 직업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AL.Godsdirectcontact.org.tw/vg-vip>



사랑의 기운이 천적을 친구로 만들다

하와이 뉴스그룹 (원문 영어)

호랑이 소굴에 천진난만한 귀여운 새끼돼지 다섯 마리를 두면 어떻게 될까? 대부분은 호랑이가 새끼 돼지들을 다음 끼니거리로 볼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캘리포니아의 한 동물원에서 호랑이가 세 마리의 새끼를 낳았다. 아주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동물원 사람들은 모두 흥분해 마지않았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흥분은 오래가지 않았다. 새끼들이 조산으로 인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은 것이다.

동물원 사육사들은 어미 호랑이를 극진히 보살폈지만 호랑이의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처음에는 어미 호랑이가 왜 기운을 되찾지 못하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호랑이가 죽은 새끼들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육사들은 새끼 호랑이들을 대신할 것을 찾으면 되겠다고 쉽게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새끼 호랑이를 대체할 만한 마땅한 것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때 다른 방안을 생각해 냈는데 그것은 종(種)이 다른 동물의 새끼들로 새끼 호랑이를 대신하는 것이 었다. 그래서 그들은 어미를 잃은 새끼 돼지 다섯 마리를 찾아냈다. 어미를 잃은 새끼돼지와 새끼를 잃은 어미 호랑이는 완벽하게 어울릴 것으로 보였지만 호랑이의 반응이 어떨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어미 호랑이가 새끼돼지들을 먹이로 생각할지 아니면 자기 새끼로 여길지 몰라서 사육사들은 새끼 돼지들에게 호랑이 가죽을 입혀서 어미 호랑이 우리에 넣는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 냈다.

경계심이라곤 눈곱만큼도 없는 이 새끼 돼지들을 어미 호랑이 곁에 둔 후 모두들 숨을 죽이고 지켜봤 다. 호랑이가 새끼 돼지들을 저녁거리가 아닌 새로운 새끼로 맞이했을 때 얼마나 기뻐할지 가히 상상이 될 것이다! 이제 이 어린 돼지들에게는 자신들을 돌봐주는 호랑이 엄마가 생겼고 호랑이 엄마는 사랑을 나 뉘 줄 대상을 갖게 되었다. ★





동물의 충명함과 모성에

중국 산시의 동수 (원문 중국어)

자애로운 어미 닭

어렸을 때 나의 가족은 시골 근처에서 가까이 사는 농부들처럼 하루 일과를 보내며 살았다. 이웃에서는 집집마다 닭을 길렀는데 닭들은 낮 동안에 마당 여기저기를 자유롭게 뛰어다녔다. 먹이를 줄 때나 쉬는 시간에 내가 큰 소리로 우리 집 닭들을 부르면 사람 목소리가 다 비슷할 텐데도 닭들은 언제나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는 여기저기서 집으로 뛰어왔다.

이웃집에는 계속해서 알을 낳는 늙은 암탉 한 마리가 있었다. 암탉은 알을 낳을 때면 언제나 잠 시 울곤 했다. 그런데 한동안 암탉이 알을 낳지 않는 듯했다. 암탉을 위해 풀로 만들어 놓은 둥지가 꽤 오랫동안 텅 비어 있었지만 이웃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수일이 지난 뒤 이웃은 자기 집 암탉이 병아리들을 일렬로 줄을 세워 이끌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병아리들은 정말 사랑스러웠다! 많은 사람들이 병아리들을 보러 왔선 어찌 된 일인지 얘기했다. 사람들은 그 암탉이 너무도 엄마가 되고 싶은 나머지 알들을 숨어서 품었을 것이라고 믿었다! 사람들은 말로는 닭은 알을 품는 동안에는 둥지를 떠나지 않으며 알이 부화하는 21일이 지나야만 둥지를 떠난다고 한다. 하지만 이 어미 닭은 몰래 알을 품을 시간을 가지면서도 평소처럼 생활했다. 사람들은 모두 그 닭이 어떻게 열 몇 개나 되는 알들을 숨길 곳을 찾았는지 의아해했다. 암탉은 알을 품을 때마다 울던 습관을 바꿨고 알이 부화할 때까지 알을 숨겼다. 그 모든 과정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이루어졌다. 정말 어미 닭의 충명함과 인내는 놀랍지 않을 수 없다!

비둘기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루는 오빠가 어디선가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왔다. 아빠가 처마 밑에 비둘기 둥지를 만들어 주시자 곧 새끼 비둘기가 부화하기 시작했다. 어린 새들이 크게 자라자 부모 비둘기는 이들을 둥지 밖으로 내보내 독립시켰다. 비둘기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결국 비둘기들이 지낼 수 있는 처마 및 공간도 부족하게 되었다. 벽에 못을 박기도 해 봤지만 비둘기들은 그곳에 둥지를 틀려고 했다. “이래서는 안 되겠어. 해결책을 찾아야 해.” 하고 엄마가 말씀하셨다.

어느 날 비둘기가 또 알을 낳는 것을 보신 엄마는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리셨다. 엄마는 비둘기 알을 금방 낳는 달걀 두 개와 바꿔 놓고 달걀이 부화할지 궁금해하셨다. 이상하게도 비둘기들은 달걀을 거부하지 않고 계속해서 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위를 쳐다보니 금방 알에서 나온 병아리가 둥지를 걸어 다니고 있었다. 달걀들이 부화한 것이다! 엄마는 서둘러 병아리들을 내려놓으셨다.



달걀이 비둘기 알에 비해 상당히 큰데도 어미 비둘기는 평소처럼 계속해서 달걀을 품어 부화시켰으며 병아리들이 자기 새끼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서도 그들을 해치지 않았으니, 비둘기는 천성적으로 사랑이 많은 게 틀림없다!

비둘기 둥지에서 부화한 병아리들은 자라면서 다른 닭들보다 더 높이 날 수 있었다. 아마도 수양 어머니의 DNA를 좀 물려받은 모양이다! ★

물에 빠진 여덟 살짜리 주인을 구해낸 충견

영국 뉴스그룹 (원문 영어)

버드(Bud)라는 개가 충견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물에 빠진 여덟 살의 주인인 나이(Nye)를 구해냈다. 당시 나이는 두 팔이 부러진 채 속수무책으로 물에 떠 있었다. 주인을 구한 버드의 이야기는 모든 영국인들에게 알려졌다. 어느 날 여덟 살의 나이는 다른 남자애들이 그렇듯이 밧줄을 타고 놀다가 줄을 놓치면서 약 2피트(60cm) 깊이의 강물로 떨어졌다. 두 팔이 부러진 나이는 강물에 누운 채로 버드를 불렀다. 버드는 7년 전 그 지역 동물 보호소에서 입양한 개였다. 버드는 사력을 다해 찾아 나 이 부모님의 주의 끄는 동시에 나이를 돕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나이는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간신히 개줄을 자기 몸에 감을 수 있었다. 개줄이 버드의 개 목걸이에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버드는 주인을 진흙투성이의 미끄러운 둑 위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둑 위로 올라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저는 몹시 고통스러웠고 온 몸이 진흙투성이였죠. 강둑이 미끄러웠는데도 버드는 어디에 발을 디뎌야 할지 아는 듯했어요.” 하고 소년은 그때를 떠올렸다. 나이의 부모는 래시처럼 사람을 구한 버드의 행동에 큰 감동을 받았다. “나이 혼자서는 강둑 위로 올라 설 수 없었을 거예요. 두 팔이 부러지지 않았더라도 힘든 일이지요.”



검은 비닐 봉지 안에 넣어져 버려졌을 수도 있었던 버드는 많은 음식을 보상으로 받았다. 그러나 이번 일은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의 수많은 선행 중 한 예일 뿐이다. ★

동물은 영리한 중생이다

은둔 아이/ 포모사 미아오리 (원문 중국어)

사람들은 보통 물고기가 지능이 없다고 여기지만 이런 생각은 최근 연구에 따라 빠르게 변하고 있다. 연구에서는 물고기가 실제로는 사회적으로 똑똑한 존재로서 동물 세계의 ‘저능아’라는 평판과는 어울리지 않으며 오히려 교활하고 세련되기까지 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영국의 에든버러(Edinburgh), 성 앤드류(St. Andrews), 리즈(Leeds) 등 3개 대학의 연구원들은 ‘3초’의 기억력을 가진 ‘바보’라는 물고기의 이미지를 깨트리기에 충분한 증거를 공동 수집했다.

과학자들은 물고기가 각각의 무리들을 인지하며 다른 물고기의 사회적 지위를 존중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물고기들은 도구를 사용해 복잡한 보금자리를 만들기도 하며 장기간의 기억력을 갖고 있다는 점도 발견되었다.

어떤 인식 영역에 있어서는 해양 생물이 유인원 종류에 필적할 만한데, 그 중 가장 뛰어난 사례가 바로 돌고래이다. 돌고래 떼의 묘기 공연을 보면 사람들은 보통 이것을 미리 잘 훈련된 연속적 결과로 여길 것이다. 물론 돌고래들이 지시를 따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각 동작의 세세한 부분들을 알아서 완성할 수 있다. 돌고래들은 그들만의 춤을 안무한다. 말하자면 돌고래들이 일치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끼리 먼저 의사소통을 한다는 뜻이다. 동물의 지능은 뇌의 무게를 몸무게로 나눠 측정하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 돌고래가 인간 다음을 차지하며 인간을 제외한 다른 영장류보다 훨씬 높다.

영국 과학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많은 동물들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면인지 능력 실험에서 어떤 양은 텔레비전에 반복적으로 비쳐진 얼굴들을 구별해 냈다. 또 다른 연구에서 돼지들도 칠판지와 컴퓨터 화면 앞에서 조이스틱을 작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됐다. 훈련을 받는다면 이들은 개보다 짧은 훈련 기간 내에 행동 기술을 익힐 수 있다. 어떤 돼지들은 개처럼 집을 지킬 수 있고 어떤 돼지들은 코로 땅 속에 묻힌 지뢰를 찾을 수도 있는데 이는 그들의 후각이 고도로 발달돼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어떤 지역에서는 농부들이 돼지를 이용해 땅속에서 자라는 아주 비싼 식용 버섯인 송로버섯을 수확하기도 한다.

영국 과학자들은 닭이 닭장의 온도 조절기를 조절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도 발견했다. 닭들의 사회적 행동을 연구하는 한 미국 과학자는 수탉이 ‘꼬끼오’하고 먹이를 찾았다고 암탉에게 알린다는 사실과 여러 가지 소리로써 먹이에 대한 평가를 표현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수탉이 자기가 좋아하는 먹이를 발견했을 때는 짧게 연달아서 소리를 내는데, 그러면 암탉들도 얼른 와서 먹는다. 하지만 일상적인 먹이를 주면 수탉은 천천히 울어 실망감을 나타내고 암탉들도 반 정도밖에 오지 않는다. 새들을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많은 새들이 매우 똑똑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까마귀의 경우엔 인간의 힘을 이용할 정도로 아주 똑똑하다. 이를테면 자기가 쪼갤 수 없는 열매들을 자동차가 많이 지



나다니는 길에 두어 자동차가 깨트리도록 한다.

연구원들은 암소가 새로운 것들을 배울 때 매우 흥분된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오랫동안 낙농을 해 온 농부들 또한 소들마다 좋아하는 색깔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소는 인간과 매우 유사한 사회적 행동을 해서 서로를 돌보고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새끼를 키운다. 송아지들은 인간의 아이처럼 어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응석을 부린다.

줄곧 침팬지 연구에 헌신해 온 제인 구달 박사(Dr. Jane Goodall)는 지능 평가는 가축들이 영리한 동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육식을 그만둔 그녀는 육류 소비를 최소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archure.net/psychology/carlsagan.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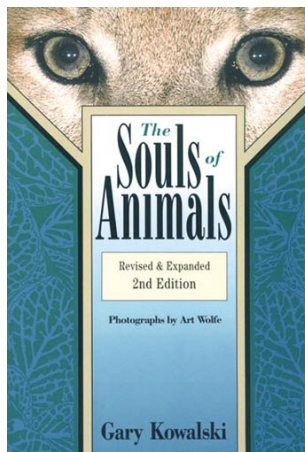
http://news.bbc.co.uk/chinese/simp/hi/newsid_4600000/newsid_4603000/4603091.stm

http://www.ywhc.net/article/info_Show.asp?ArticleID=1255



동물의 영적 세계-

『동물의 영혼』을 읽고 나서



화광 사자와 형신 사자/ 포모사 타오위안 (원문 중국어)

예로부터 동물이 인간의 목숨을 구해 준 이야기는 많이 있으며, 많은 과학자들과 연구자들이 얼마간 동물을 관찰하고 나서는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왜 그럴까? 그것은 동물도 인간과 같이 감정이 풍부하고 마음이 민감하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최근 신문 매체에서 전세계적으로 발발한 조류 독감, 광우병, 구제역(口蹄疫) 때문에 수십억의 무고한 동물이 도살되는 기사를 종종 보게 되는데 차마 눈을 뜨고는 볼 수 없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일이다.

최근 인터넷에서 상당히 관심이 가는 책을 발견했다. 동물의 영적

세계를 소개한 『동물의 영혼(The Souls of Animals)』이라는 이 책을 읽고 난 뒤 우리는 동물에 대해 깊은 속죄의 심정을 느꼈고 그들의 대변인으로서 목소리를 높여야겠다는 강렬한 열망이 문득 솟아났다!

책의 저자인 게리 코왈스키(Gary Kowalski)는 지역 교구의 목사로서 하버드 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고 동물의 행동에 관한 글을 수년간 써왔다. 그는 교회 신도들과의 교류와 독자들과의 서신 교환을 통해 진실하고 감동적인 많은 이야기들을 모았다. 그의 책에 실린 몇 가지 가슴 훈훈한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엄마 돼지의 기발한 생각: 방목되어 키워지던 한 돼지가 새끼들을 낳은 후 수선화를 조심스레 입으로 꺾어 와 잠자는 새끼 돼지들 주변에 깔아 화환을 만들어 놓았다.

속경 깊은 소: 어느 날 중앙 아메리카의 작은 농장에서 즉흥 잔치가 열려 바비큐용으로 송아지 한 마리가 도살되었다. 그 뒤 몇 주가 되도록 그 무리의 소들은 점심 시간마다 송아지가 도살된 장소에 모여 빙 둘러서서 ‘음매’하고 슬픈 소리로 울었다.

충직한 갈가마귀: 까마귀와 비슷한 모습을 한 갈가마귀는 장수하는 새이다. 이들은 평생 한 배우자만 갖는데, 몇 년이 흘러도 수컷은 암컷에게 세심하게 먹이를 물어다 주고 사랑이 듬뿍 담긴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이자 평생의 짝을 만난 봄에 그랬듯이 사랑을 속삭인다.

이 책에는 이 외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친구인 새끼 고양이가 죽자 슬프고 괴로운 심정을 상징 언어로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고릴라 이야기, 암컷 거위가 다치자 그 짝을 버리지 않고 차라리 남쪽 마젤란 섬으로 겨울나리 가는 것을 거부한 야생 수컷 거위, 일몰의 황홀함에 완전히 매혹된 침팬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사냥꾼의 총에 가슴을 맞은 자기 가족을 갖은 방법을 동원해 기사회 생시킨 코끼리 떼, 어린 돌고래가 포획되어 상처를 입고 카이라(Caira) 해변으로 옮겨지자 어부가 이를 풀어줄 때까지 부두로 몰려와 진을 친 돌고래 떼, 재능이 뛰어난 아시아 코끼리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멋진 그림을 그린 이야기 등. 동물의 능력과 강렬한 감정, 본능과 반응에 관한 이 모든 이야기들은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과 감동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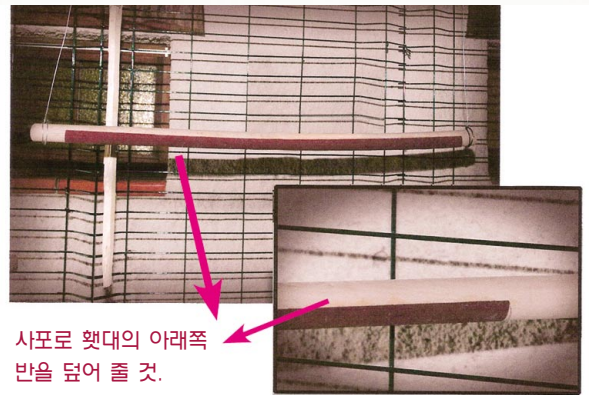
최근 TV에서는 바퀴벌레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는데, 바퀴벌레가 수시로 자기 몸을 씻기 때문에 사실 인간보다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 연구는 바퀴벌레는 쓰레기를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해충이라기보다는 이로운 벌레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부엌의 쓰레기와 인간이 만든 다른 불결한 환경을 뒤지면서 본의 아니게 인간과의 충돌을 빚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을 놓고 볼 때 바퀴벌레는 사실 우리의 좋은 친구임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모든 생명체가 인간의 보호와 존중을 받을 만하다는 것을 더욱더 입증해 준다. 동물은 또한 인간과 마찬가지로 다양하고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 점을 이해한다면 동물이 도살될 때 겪게 되는 두려움과 고통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사람들 대부분이 ‘평생 채식’을 선택하리라 확신한다. ★



새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스승님이 알려 주신 **팁**

1. 모래 햇대는 비싸기도 하고 새에게 아프다. 사포로 햇대의 아래쪽 반을 덮어 주면 새의 발톱이 자동적으로 깎이고 발도 다치지 않는다. 새의 발톱이 햇대 아래쪽의 사포에 맞닿도록 알맞은 굵기의 햇대를 골라야 한다. 새의 크기에 따라 가는 사포를 사용할지 굵은 사포를 사용할지 선택한다. 다른 굵기의 사포를 찾을 수 없다면 크고 작은 새 모두에게 조금 거친 사포를 사용해도 된다. 하지만 가는 사포는 큰 새에게 알맞지 않다.

무독성 접착제를 구하도록 한다(아이들이 ‘잘못’ 먹어도 무해한 것으로 골라야 한다!). 접착제가 햇대에 붙지 않으면 접착제가 마를 때까지 사포에 화공용 테이프를 둘러 고정시킨다(상표에 따라 다섯 시간에서 밤새도록).



사포로 햇대의 아래쪽
반을 덮어 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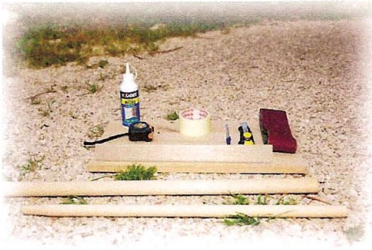
그후 화공용 테이프를 제거하면 완성!

*****주 1:** 새의 부리에는 뭐든지 끝까지 남아나지 않는다(아무리 딱딱한 햇대라도 도리가 없다.), 그러므로 ‘다 먹고’ 난 뒤에는 위에 말한 대로 다시 똑같이 만들어 줘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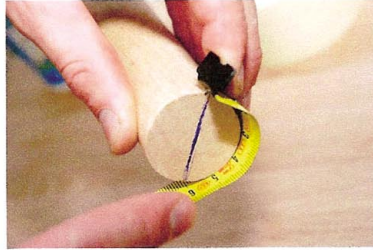
2. 톱밥(토끼나 다른 동물의 잠자리나 바닥용으로 쓰이는 것과 같은 크기)을 새장의 바닥에 깔다. 그러면 매일 쓸어내고 청결을 유지하기가 매우 쉽다. 10일마다 바닥의 톱밥을 모두 바꾸어 준다. 나무는 냄새를 없애 주고 다른 재질보다 새의 배설물을 더 잘 흡수한다. 바닥 철망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면 새가 바닥에 떨어지더라도 딱딱한 철사가 아닌 부드러운 대팻밥 위에 떨어져 아프거나 다치지 않게 된다.



*****주 2:** 집에서 애완동물을 키운다면 집이나 새장, 햇대를 청소할 때 식초와 물을 반반씩 섞은 것만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주인은 무독성 피부 크림을 써야 한다. 그래야만 매일 사랑하는 개와 고양이·새를 만질 때 그들에게 크림 접촉을 통한 피부 질환이 생기지 않는다. ❤️



1. 재료:
햇대, 무독성 접착제, 사포, 화공용 테이프,
줄자, 펜, 칼, 자 또는 끝이 직선으로 된 물건.



2.
햇대 원둘레의 1/2을 측정한다.



3.
측정값을 사포에 표시한다.



4.
사포를 알맞은 쪽으로 자른다.



5.
햇대에 맞게 양끝을
적당히 구부린다.



6.
사포의 뒷면에 접착제를 바른다.



7.
햇대에 사포를 살며시 눌러야 작업자의
피부가 상하지 않는다.
(작업용 장갑을 사용해도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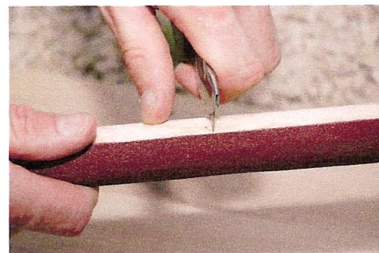
8.
화공용 테이프로 햇대를
단단히 감아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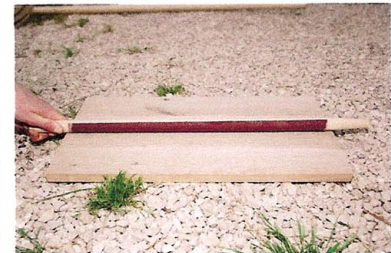
9.
햇대의 마지막까지 감는다.



10.
접착제가 마르고 난 뒤 화공용 테이프를
벗겨 낸다.



11.
밖으로 비어 나온 접착제 찌꺼기를 긁어
낸다.



12.
햇대 작업 완성-이제 사용하면 된다!



인도네시아



행복한 마음으로 스승님의 지원을 받다 중부 자바 지진 구호 활동에 대한 후속 보도

인도네시아 요그야카르타 뉴스그룹 (원문 인도네시아어)

황금시대 3년(2006년) 3월 27일 인도네시아에 발생한 강진으로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을 잃었다. 이에 서둘러 구호 팀을 조직한 인도네시아, 포모사, 싱가포르 동수들은 이재민들에게 긴급 구호를 제공해 3월 27일부터 지금까지 8,750가구 이상이 스승님과 국제협회로부터 구호 물자를 받았다. (뉴스잡지 170호 참조)

6월 6일 우리는 프람바난(Prambanan) 지역 섬버라조(Sumberharjo)의 몇몇 작은 마을에서 구호 활동을 계속 진행했다. 주민들은 칭하이 무상사가 제공한 구호 물품에 진심으로 고마워했으며 물질적인 지원보다 더욱 영속적인 위안을 줄 영적인 선물인 견본책자도 소중하게 받았다.

다음날 우리는 반자리조(Banjarharjo), 판코란(Pancoran), 테갈라와스(Tegallawas), 바뉴립(Banyuurip), 그리고 콩클란간(Kongklangan)의 임시 학교 등 다섯 마을을 방문했다.

임시 학교에 구호물품을 갖고 갔을 때 아이들은 행복해하며 노래로 우리를 맞아 주었다. 아이들은 아무 옷이나 있는 대로 걸치고 텐트에서 공부하

고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에게 책, 사인펜, 크레용, 연필 등 문구가 든 선물 꾸러미를 보여 주자 모두들 매우 기뻐하며 박수를 쳤다. 아이들은 심지어 스승님과 우리의 명상 수행법에 대해서 묻기도 했다. 이 마을의 주민 대표는 자신들에 대한 칭하이 무상사의 사랑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바뉴립의 한 가정은 재난으로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스승님께서 이재민들을 염려해 구호물품을 보내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구호 활동 중에 있었던 가슴 훈훈한 일화

싱가포르 뉴스그룹 (원문 영어)

싱가포르 동수 팀은 5월 30일에 요그야카르타 센터에 도착해 효과적인 구호 활동을 위해 재해 상황 조사 팀과 구호 물자 배포 팀으로 나뉘었다.

재해 상황 조사 팀이 258가구가 사는 타마난(Tamanan) 마을에 갔을 때 마을 대표는 주민들 중에 노인과 아이들이 음식이 없어 굶주릴 것이라며 쌀만 요청했지만 조사 팀은 주민들에게 텐트와 깔개가 턱없이 부족하고 전기도 끊어져 캄캄하다는 것까지 파악했다. 그래서 다음날 배포 팀은 700kg이 넘는 쌀, 방수 깔개가 딸린 40개의 텐트, 분유, 등유 램프를 가져다 주었다. 마을 대표는 물품들을 받고 깊이 감동했으며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또한 물자들을 이렇게 빨리 제공해 준 것에 대해 매우 놀라워했다. 한 사자가 몇몇 아이들에게 스승님과 관음법문을 소개하는 전단에 인쇄된 스승님의 이름 읽는 법을 알려 줄 때 마을 대표가 와서 주민들에게 모든 구호 물품이 스승님께서 보내 주신 것이라 얘기하자 그들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전단의 앞 페이지 내용을 다 함께 소리내어 읽었다!

조사 팀이 세윈(Sewon) 지역에 갔을 때 클라위(Klayu) 마을에서 온 아이핑(Ipung)이라는 여성이 자기 마을을 대표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배포 팀이 24시간도 채 안 돼서 주민들이 요청한 쌀, 텐트, 램프 등의 구호 물자를 가지고



도착하자 주민들 모두 감동해 마지 않았고 우리의 빠른 대응에 놀라워했다. 그날 저녁 아이핑 양은 한 동수에게 메시지를 보내 스승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이 밖에 인도네시아 동수들은 텐트, 밧줄, 비스킷과 같은 물품들을 카랑 게데 키둘(Karang Gede Kidul) 마을에 전달했다. 명상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근심을 없애 준다는 것을 알게 된 마을 지도자는 스승님이 전수하시는 명상에 큰 관심을 표하며 이것이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했다. 지역 동수들은 다음날 이 마을을 다시 한번 방문해 방편 명상법을 배우는 데 필요한 채식의 기본 요건에 대해 설명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준비가 되면 요그야카르타 센터에 다시 연락해 달라고 마을 대표에게 알려 주었다.

우리가 이재민들에게 구호품을 나눠 준다는 것을 알게 된 한 물품 공급업자는 크게 감동하여 직접 자기 트럭을 운전해 우리 활동을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스승님의 포스터를 트럭에 붙였고 우리 뒤를 따라오게 했다. 그날 일을 다 마친 뒤 그는 스승님의 호의를 기억하고 싶다며 스승님의 포스터를 기념으로 줄 수 있는지를 신실하게 요청했다. 물론 우

리는 대단히 기쁜 마음으로 그의 바람을 들어 주었다.

드링고(Dlingo) 지역으로 가는 도중 우리는 한 마을에 텐트와 쌀, 기타 필요 물품, 빵 두 상자를 나눠 주었다. 빵을 보자 마을 주민들은 눈을 반짝이며 모두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그 자리에서 다 먹었다. 지난 며칠 동안 쌀과 라면만





먹은 터라 그들에게 빵은 매우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정말 기쁜 일이었다!

우리는 이곳 주민들이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들의 타고난 선량한 품성과 서로 협동하는 정신을 보여 주는 가슴 따뜻한 많은 일들을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서로를 잘 도와주고 당번을 정해 한 집씩 돌아가면서 모든 마을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했으며 어떤 마을에서는 몇몇 장정들이 텃밭을 조직해 무너진 집들의 잔해를 치웠다. 그들은 자기 마을을 다 치운 뒤에는 다시 이웃 마을로 가서 청소를 도와주까지 했다.

남자들은 순번을 정해 마을을 순찰해서 마을의 부녀자들과 노약자들이 밤에 안심하고 잘 수 있도록 했으며 부녀자와 아이들에게 방수 깔개와 매트를 양보하고 맨바닥에서 누워 잤다.

마을 사람들은 집을 잃었지만 그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그들은 아무런 불평 없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모든 것을 가벼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다. 일부 지역 사람들은 평소처럼 논에 나가 일하며 곡식을 거둬들였다. 재난은 그들의 집을 앗아갔지만 삶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없애지는 못했다. 그들은 상황에 만족해하며 말없이 집을 다시 지었다.

구호 활동을 마친 후 우리는 요그야카르타 주민들의 웃는 얼굴과 온정, 감사의 마음을 즐거운 추억으로 안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왔다. 또한 동수들과 쌓은 우정을 소중하게 간직했으며 관대하고 자애로우신 스승님

의 발걸음에 맞춰 이 사랑의 길을 걷게 된 것에 큰 기쁨을 느꼈다.

지진 피해자들에게 의료 지원을 제공하다

포모사 의료 구호 팀 (원문 중국어)

지진이 인도네시아를 강타했다는 소식을 듣고 포모사의 의사 및 간호사 동수들은 신속하게 의료 구호 팀을 결성하고 5월 30일 100kg 상당의 의약품들을 가지고 인도네시아로 날아가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동수들을 만났다. 다음날 구호 팀은 사나타 다르마(Sanata Dharma)와 가자 마다(Gajah Mada) 대학의 의대생 및 약대생들과 함께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의료 구호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 학생들은 신이 보내신 천사처럼 우리를 위해 통역을 해주고 치료를 도와주었다.

우리는 극심한 타격을 입은 반툴(Bantul)에서 중점적으로 일했다. 다행인 것은 우리 혼자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 보건복지부, 인도네시아 적십자사, 인도네시아 식약청 직원들이 구호 활동에 참여했다. 우리는 두 조로 나뉘어 첫째 날에는 버바(Berbah) 마을에 가서 180명의 환자들을 치료했다. 그들 대부분은 지진의 충격으로 인한 외상과 불안, 불면증과 요통을 겪고 있었다.

6월 1일에 파자간(Pajangan)과 밤방리푸로(Bamba-

ng Lipuro)로 갔는데 그곳 주민들은 우리의 방문에 대단히 고마워하며 무슬림 기도실을 의료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정해 주었다. 우리 두 조는 2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스승님의 사진과 비스킷도 나누어 주었다.

6월 2일, 한 조가 카시한(Kasihhan)이라는 작은 마을로 갔다. 그곳 주민들은 주로 상처 부위가 감염되어 있었다. 우리는 상처를 소독하고 치료해주는 것 외에 그들이 집에서도 붕대를 갈아 더 이상의 감염을 막을 수 있도록 요오드와 거즈 같은 외상 처치용품도 주었다. 다른 한 조는 벽지 산간 지역인 피운간(Piyungan)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무너져 내린 많은 집들을 볼 수 있었다. 다리가 무너져서 차가 지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동수들은 의료 물자와 축복 음식, 스승님의 사진과 진단을 가지고 그 지역 젊은이들의 오토바이에 옮겨 탔다. 마을에 도착하고 보니 많은 집들이 손상되고 무너진 상태였지만 주민들은 아주 침착하고 평온해 보였다. 동수들이 아침에 진료를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기 위해 몰려왔다. 주민들은 매우 기뻐하며 동수들과 열렬하게 악수를 나눴다.

하지만 정오가 되자 모두가 떠나갔다. 알고 보니 기도 시간이라서 사람들 모두 깔끔하게 차려입고 이슬람 사원으로 간 것이었다. 그들의 신실한 마음은 매우 놀라웠다. 1시간의 기도를 마친 후 그들은 다시 치료를 받기 위해 돌아왔다. 그들은 또한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뿌리 뽑혔지만 우리에게 신선한 코코넛 주스, 옥수수, 감자, 땅콩, 과일을 가져다 주어 우리를 감동시켰다. 우리는 이 두 지역에서 약 150명의 환자를 치료했다.

의료 구호 활동은 6월 3일에 끝났다. 그날 우리는 이번 지진의 진앙지인 파랑트리티스(Parangtritis) 해변에서 5km 정도 떨어진 푼동(Pundong)으로 가서 120명 가량의 환자들을 치료했다. 이날 치료를 받으러 온 이재민들의 대부분은 외상을 입고 있었고 몸을 따뜻하게



해 줄 옷이 부족하거나 더러운 음식과 물로 인해 감기와 설사로 고생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밖에 지진으로 인한 심한 충격으로 이재민 대부분이 불면증과 어지러움증, 두통을 앓고 있는 것을 발견하곤 우리는 이러한 증상에 대한 약을 주는 외에 스승님의 사진을 주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해 주고 속으로는 스승님께 기도드렸다. 상태가 심각한 환자들은 우선 응급처치를 한 후 적십자사 앰블런스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해 치

료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도네시아를 떠나기 전 우리는 치료한 환자들에 대한 기록을 지역 센터에 남겨 둬으로써 동수들이 이들의 회복 상태를 지켜보며 치료를 더 받아야 하거나 금전적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남은 의약품은 나중에 다르마 종합병원(Dharma General Hospital)에 모두 기증했다.

스승님의 축복과 지역 동수들의 세심한 배려 그리고 적십자사와 자원 봉사자를 나온 이 지역 의대생들의 자발적인 도움으로 전체 의료 구호 활동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대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지역 주민들의 긍정적인 태도와 순수한 마음, 흔들림 없는 헌신적인 믿음은 대단히 감명 깊었다.



주: 이번에 구호 팀이 사용한 의료용품 중 상당 부분은 의사 동수들이 도매가로 제공한 것이었으며 의약계에 종사하는 동수들도 원가나 무료로 다른 약품을 지원해 주었다. 이렇게 모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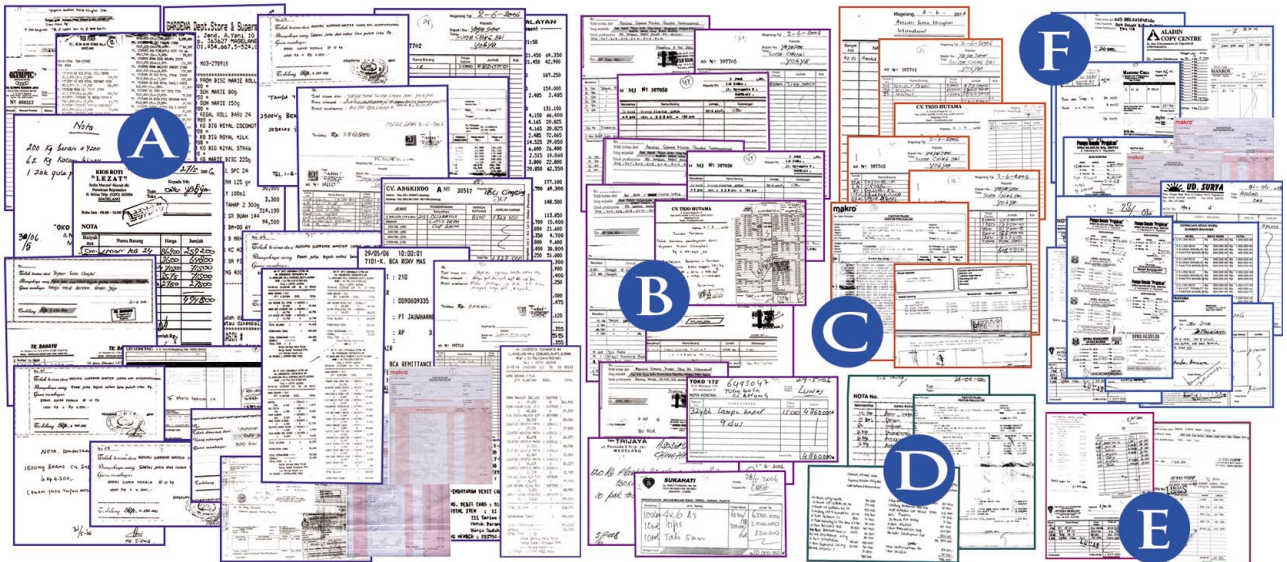
다양한 방법으로 재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사랑을 보여 주었다.

TV에서 재난 소식을 접하신 스승님은 이재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노심초사하셨다. 재해 지역에 의료진과 의료 서비스가 부족했기 때문에 스승님은 시자를 통해 이전 구호 활동에서처럼 즉시 의료 팀을 구성해 재해 지역으로 가도록 지시하셨고 매일 이번 의료 구호 활동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 오셨다. 나중에 스승님께서서는 생명을 구하는 이 중요한 일에 협조해 스승님의 슬픔을 덜어준 데 대해 시자와 다른 장주들에게 감사를 표하셨으며, 구호 활동에 참여한 의사들과 간호사들에게도 감사하셨다. ★

칭하이 무상사와 국제협회의 인도네시아 요그야카르타 지진 구호 활동 지출 일람표

(단위: 인도네시아 루피아)

지출 내역	금액	영수증 번호
식품(쌀, 물, 주스, 비스킷, 녹두, 우유, 식용유, 설탕, 빵, 라면)과 요리 도구	180,641,323	A 1 - 25
텐트용품(비닐 방수포, 밧줄, 비닐 지붕 덮개, 손전등, 기름 램프)	230,500,840	B 1 - 10
생활 필수품(수건, 비누, 샴푸, 칫솔, 치약, 세제, 담요, 사롱용 천)	88,916,035	C 1 - 7
의약품	4,115,140	D 1 - 3
문구용품	2,993,050	E 1 - 2
잡화(현수막, 교통비, 연료, 전화 및 팩스요금, 선풍기, 인화비, 건전지, 위로금 등)	22,623,224	F 1 - 13
총계	529,789,612루피아 (미화 57,586달러)	



미국 캘리포니아

사랑의 태양이 모두를 두루 비추다

로스앤젤레스 뉴스그룹 (원문 영어)

‘수프 키친(Soup Kitchens)’은 음식을 먹을 장소가 필요한 실업자와 그 가족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제공한다. 1년 52주 동안 1주일에 5일 개방하는 이곳에서 하루에 남녀노소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식사를 하곤 한다. 또한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부활절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특별히 제공된 저녁 식사를 하고 간다.

황금시대 3년(2006년) 5월 26일 로스앤젤레스 센터의 사형사저들은 이곳 ‘수프 키친’에 260인분의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 제공했다. 볶은 국수, 나물, 채식 닭고기, 신선한 샐러드와 함께 이 사람들이 좀처럼 구하기 어려운 생수도 제공했다. 스승님의 테이프를 틀자 관리인 중 한 사람이 “이곳 분위기가 무척 좋게 느껴지는군요. 오늘 이렇게 와 주셔서 기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대안적인 삶’ 전단을 받은 부관리인도 “멋지군요! 이 전단을 스캔해서 아들에게 보내야겠어요. 아들은 캘리포니아 웨스트우드에서 있는데 분명히 이 전단을 보고 좋아할 거예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스승님의 아프리카 및 유엔 강연이 담긴 두 장의 CD도 받았는데, “이 CD에서 뭔가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라며 고마워했다. 다른 직원들은 따끈따끈한 도시락을 가리키며 “아주 맛있어요. 우리는 이런 음식들을 좋아해요.”라고 말했다. 점심 식사를 하는 동안 스승님의 비디오를 틀어 주자 사람들이 대부분이 좋아하면서 식사를 하는 동안 비디오를 주의 깊게 시청했다. 스승님의 테이프에서 발산되는 평화로운 에너지로 분위기가 매우 편안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층 더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행복한 사람과 고통받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이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사랑을 비추시는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





위대한 성인의 세심한 사랑을 목격하며

포모사 시후 장주

스승님은 항상 바쁘시다. 특히 전세계를 여행하시는 강연을 하고 어울락 난민을 보살펴야 했던 초창기에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일정이 빠듯했다. 그렇지만 스승님은 일이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모든 사람들의 내적 갈망을 결코 소홀히 하신 적이 없다.

황금시대 3년(2006년) 2월 필리핀 중부의 남레이테(Leyte) 섬이 산사태로 초토화되자 이를 크게 걱정하신 스승님은 동수들에게 피해 지역에 가서 구호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셨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잡지 164호 참조) 그와 아울러 필리핀 기자인 조 래드 산토스(Joe Lad Santos) 씨도 방문하라고 하셨다. 몇 년 전 스승님께서 어울락 난민을 위한 청원을 하기 위해 필리핀에 가신 적이 있었는데, 그는 스승님께서 필리핀 정계 인사들과 여러 차례 만나시는 자리에 함께 동석했던 기자들 중 한 사람이었다. 이미 10년도 지난 일이었지만 스승님은 오랜 친구를 잊지 않고 계셨다.

스승님은 전에 산토스 씨로부터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해 만화 사업을 하고 싶다는 말을 들으셨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에게 특별히 25,000달러를 주시며 그의 일을 후원해 주라고 하셨다. 산토스 씨는 3월 24일 스승님의 기부금을 받고 기쁨과 놀라움에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이메일을 통해 스승님의 은총에 진심으로 감

사하는 마음을 전했다. 그는 6월에 다시 한번 이메일을 보내 다음과 같이 알려왔다. “만화 사업이 현재 매우 활동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몇 차례 개발 단계를 완성했습니다. 만화의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로 구성되어 진행되는 이 일은 기술자나 변호사, 약사, 회계사 또는 정밀 과학 분야와 같은 다른 전문직 처럼 진행이 빠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스승님은 최근 필리핀 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그의 이상에 대해서도 물으셨다. 스승님의 애정 어린 관심을 알게 된 그는 그 당시 스승님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의 이상과 재정상의 문제로 학업을 마치지 못한 가난한 학생들을 안타까워하며 말씀드린 적이 있긴 했지만 스승님께서 여러 해가 흐른 지금까지도 그 말을 기억하고 계시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다.

올해 6월 12일 산토스 씨는 장학금에 관한 일을 스승님께 보고하면서 세 명의 가난한 대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려면 매년 89만 페소(미화 16,761달러)가 필요하다고 알렸다. 이에 스승님은 즉시 그에게 그 돈을 보내시고 앞으로 최소 5년 동안 후원해 주시겠다

고 약속하셨다. 6월 15일에 스승님의 기부금을 받은 산토스 씨는 우리에게 스승님의 도움이 가뭄 속의 단비처럼 학생 3명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했다. 올해 등록금을 내야 하는 마감일이 6월 23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 장학금 사업은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필리핀 학생들이 대학 공부를 마치고 사회의 짐이 아닌 국가의 빈곤 지원 계획에 도움을 주

는 모범 시민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승님께서 물질적·영적 측면에서 모든 중생들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 언제나 유형·무형의 일을 하고 계신다. 우리 제자들은 스승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스승님께서 이따금씩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일을 통해 중생에 대한 스승님의 사려 깊고 세심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 ★

매체 보도 

워크엔드 발리타

2006년 4월 29일-5월 2일

미국에서 발행되는 필리핀 신문

(원문 영어)

칭하이 무상사의 박애행에 각인되어 있는 사랑과 무아

[아테시아(Artesia)] 며칠 전 우리는 미국 내 필리핀 교포 운동가들이 다른 동료 지지자들 함께 5월 1일 로스앤젤레스 시내에서 열린 연합 향의 집회에 합류한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 집회는 역사상 '시위 운동의 어머니'로 길이 남을 것이다. 우리가 주말판 기사에 보도했듯이 벽과 공중전화 부스, 그리고 비벌리 대로(Beverly Blvd.)와 템플 스트리트(Temple Street)와 같이 복잡한 교차로의 빈 공간 어디에서든 수많은 공고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연합 향의'라고 필리핀어로 적힌 이 플래카드에는 이 시위에 앞장선 단체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렇다. 모든 민족들이 가장 적절한 행사에 함께 모여 미 연방 상원에서 곧 의결될 이민법 개정안에 대해 공통된 우려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모습에서 자유란 무엇인지 톡톡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뜨거운 주제에 대해서는 잠시 보류해 두기로 하자. 우리는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와 연락했을 때 긍정적인 소식을 들었다. 이 단체는 모범적인 인도주의자이며 자연 재해 이재민들에 대한 관심으로 존경과 찬사를 받고 있는 칭하이 무상사가 이끌고 있다. 우리가 이 존경스러운 박애주의자를 접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녀는 몇 년 전 쉬라인 강당(Shrine Auditorium)에서 자선 음악회를 개최했으며(당시에도 본 기고가가 독점 보도한 바 있다.) 수차례에 걸쳐 필리핀의 이재민들을 도왔다. 그녀의 최근 지원 활동을 통해 우리는 필리핀 동포에 대한 그녀의 사랑이 조금도 줄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2월 18일 당시로 돌아가 보자. 비극적인 그날 아침, 남레이테(Southern Leyte) 섬 세인트 버나드(St. Bernard) 근교에 있는 긴사우곤(Ginsaigon) 주민들은 느닷없는 산사태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마을 전체와 수업 중이던 초등학교가 그대로 흙더미에 파묻혔다. 보도에 따르면 1,800명의 주민이 사망했고 수천 명이 집을 잃었다고 한다. 재난이 닥쳤을 당시의 상황을 상상해 보라. 마을을 덮은 흙더미는 무려 30피트(약 9미터)나 되었다! 이것이 물이었다면 임기 응변이 뛰어난 사람은 헤엄쳐서 목숨을 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30피트나 되는 진흙이었으니 그 속을 누가 뚫고 나올 수 있었겠는가?

필리핀 및 국제 구호 단체와 칭하이 무상사가 파견한 구호 팀은 산사태 이재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고자 즉시 미화 7만 2천 달러를 기부했다. 특히 이 협회의 구호 팀이 진흙더미에 깔린 생존자를 탐지하는 정교한 기계를 가져온 것은 빠트릴 수 없는 일이다. 이들은 또한 음식과 물, 텐트, 의료용품, 의류, 담요 등 이재민들에게 시급한 필수품도 나눠 주었다. 재난 현장은 보기만 해도 가슴 아팠지만 또한 눈물겨울 정도로 감동적이었다. 필리핀인들에 대한 사랑으로 그들의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 준 머나먼 이국 땅의 이 여인의 모습이 필리핀 국민들의 가슴에 깊이 아로새겨졌다.

다음은 필리핀 국민들의 감사 인사이다.

“우리 학생들과 산사태 이재민들에 대한 칭하이 무상사의 지원에 정말 감사드리고 기쁩니다.” ~산 후안(San Juan) 국립 고등학교 레이첼 R. 케바르(Rachel R. Cuevar) 교장.

“친애하는 칭하이 무상사님께.

저는 저희 필리핀 국민들을 대신해서 스승님께서 우리 필리핀 사람들, 특히 현재 큰 재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랑과 축복, 호의에 대해 신실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친애하는 칭하이 무상사님, 저는 언제까지나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위한 당신의 넘치는 사랑은 영원토록 우리 가슴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조 래드 산토스(Joe Lad Santos) 기자.

“안녕하세요, 칭하이 무상사님.

친구들을 마닐라로 파견해 세인트 버나드의 산사태 이재민들을 도와주신 데 대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필리핀인들을 위해 쏟아 주신 스승님의 노력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머지 않아 마닐라에서 스승님을 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필리핀 자선 복권 협회(Philippine Charity Sweepstakes Office) 전임 회장 마누엘 모라토(Manuel L. Morato). ★



2. 레이테 산사태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서 가져온 구호 물품.

3.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가 여러 대의 트럭에
물품을 싣고 산사태 생존자들에게 가져다 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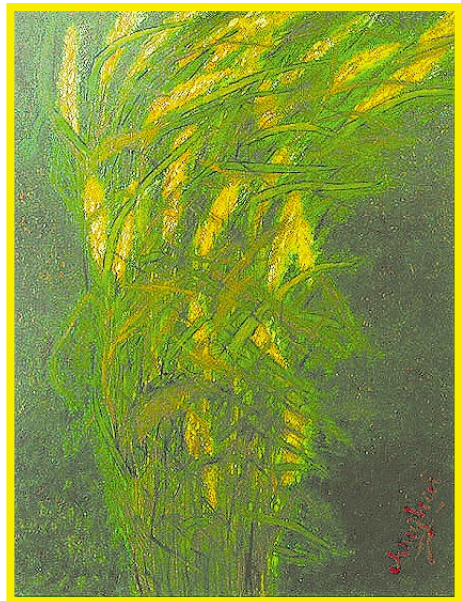
1. 전세계적인 박애행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칭하이 무상사는 아카디아(Arcadia)의 공식 사무소에서 자신의 최근 활동에 대한 내용을 매체에 제공했다. 그녀는 『발리타(Balita)』지 기자에게 올해 2월 필리핀 남레이테의 긴사우곤(Ginsaigon) 마을 전체와 초등학교가 산사태로 매몰됐을 때 이 이재민들을 돕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단순한 기쁨’을 깊이 체험하다

이농 사저 (원문 중국어)

농장에서 일할 때면 항상 에너지로 충만해지는 느낌이다. 내 체험으로 봤을 때 농부들은 농장에 ‘일’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재충전’을 하러 가는 것이다. 이 식물과 대지의 ‘기’와 ‘맛’은 사람에게 고양되는 느낌을 주고 세상 일을 잊게 해준다.

농장 일을 통해 나는 스승님의 그림 ‘단순한 기쁨’에 대해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됐다.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는 바람에 누운 풀포기가 왜 ‘단순한 기쁨’으로 불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유기농 농사꾼이 된 어느 날 문득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날 나는 일을 마치고 한가하게 앉아 쉬면서 무의식적으로 오불을 외웠다. 선선한 바람이 나를 스쳐지나가고 온몸이 무아지경으로 도취되었다. 기쁨이 가슴 깊은 데서 천천히 차 오르는 순간 갑자기 내가 부드러운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그 풀이 된 것처럼 느껴졌고 잔잔한 행복과 만족감으로 충만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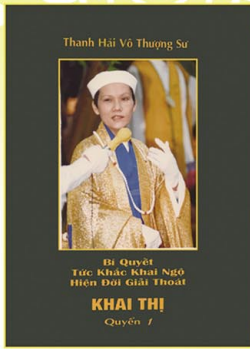
스승님의 그림은 바람의 움직임과 풀의 한가로운 아름다움을 묘사한 것일 뿐 아니라, 바람을 맞은 풀의 느낌도 표현하고 있다. ‘만물 동일체’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화법으로 그릴 수 있었는가?

스승님은 예전에 한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농담하신 적이 있다. “그 어떤 것이든 하나의 근원에서 태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서 태어난 겁니다. ... 나비도 나이고 모기도 나이며 개미의 속에도 내가 있습니다. 꽃과 다른 그 어떤 것도 나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가 놀고 싶어하기 때문이지요!” (MP3 CR-09 ‘최고로 완벽한 자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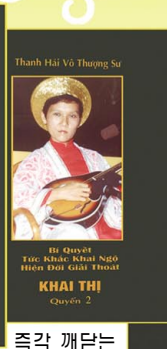
‘신’에 대한 인식이 보다 깊어지면서 나는 스승님의 농담이 ‘창조자와 피조물이 하나’라는 체험을 가리킨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내가 농부가 되고 나서 얻은 깨달음이자 체험이었다. ★

청하이 무상사 영성 서적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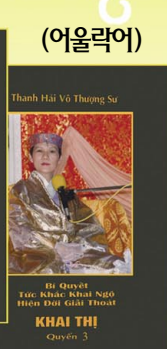
말과 행동으로
깨달음을 전하는
살아 있는 큰스승의 가르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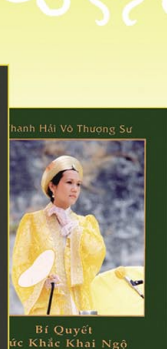
즉각 깨닫는 열쇠(1)



즉각 깨닫는 열쇠(2)



즉각 깨닫는 열쇠(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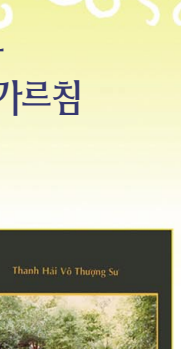
즉각 깨닫는 열쇠(4)



즉각 깨닫는 열쇠(5)



즉각 깨닫는 열쇠(6)



즉각 깨닫는 열쇠(7)



즉각 깨닫는 열쇠(8)



즉각 깨닫는 열쇠(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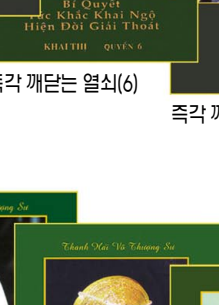
즉각 깨닫는 열쇠(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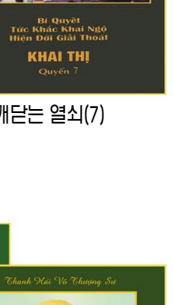
즉각 깨닫는 열쇠(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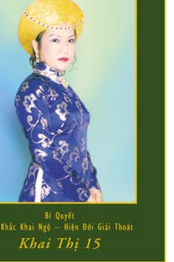
즉각 깨닫는 열쇠(12)



즉각 깨닫는 열쇠(13)



즉각 깨닫는 열쇠(14)



즉각 깨닫는 열쇠(15)

(중국어)



즉각 깨닫는 열쇠(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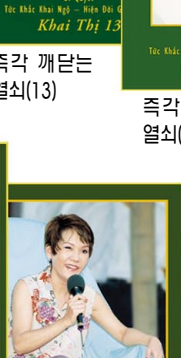
즉각 깨닫는 열쇠(2)



즉각 깨닫는 열쇠(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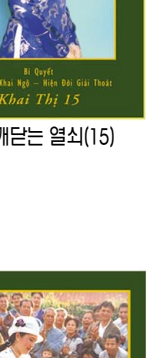
즉각 깨닫는 열쇠(4)



즉각 깨닫는 열쇠(5)



즉각 깨닫는 열쇠(6)



즉각 깨닫는 열쇠(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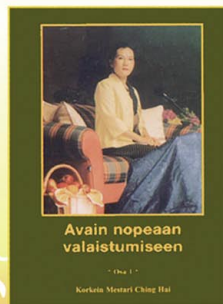
(핀란드어)



즉각 깨닫는 열쇠(8)



즉각 깨닫는 열쇠(9)



즉각 깨닫는 열쇠(1)

자세한 목록을 보시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library>

칭하이 무상사 영성 서적 시리즈

(티베트어)



즉각 깨닫는 열쇠(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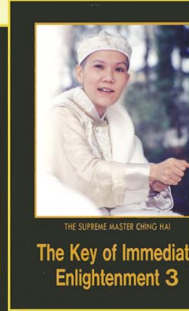
(영어)



즉각 깨닫는 열쇠(1)



즉각 깨닫는 열쇠(2)



즉각 깨닫는 열쇠(3)



즉각 깨닫는 열쇠(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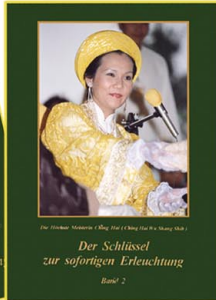


즉각 깨닫는 열쇠(5)

(독일어)



즉각 깨닫는 열쇠(1)



즉각 깨닫는 열쇠(2)



즉각 깨닫는 열쇠(1)



즉각 깨닫는 열쇠(2)



즉각 깨닫는 열쇠(3)



즉각 깨닫는 열쇠(4)

(헝가리어)



즉각 깨닫는 열쇠(1)

(인도네시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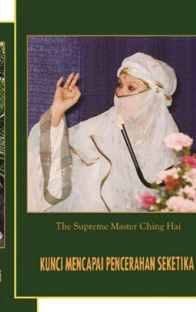
즉각 깨닫는 열쇠(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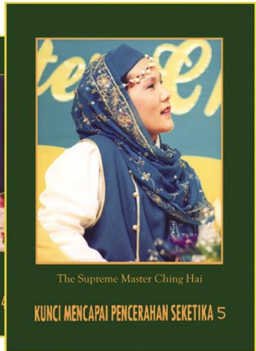
즉각 깨닫는 열쇠(2)



즉각 깨닫는 열쇠(3)



즉각 깨닫는 열쇠(4)



즉각 깨닫는 열쇠(5)

(스페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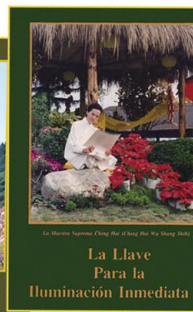
즉각 깨닫는 열쇠(1)



즉각 깨닫는 열쇠(2)



즉각 깨닫는 열쇠(1)



즉각 깨닫는 열쇠(2)



즉각 깨닫는 열쇠(3)

칭하이 무상사 영성 서적 시리즈

(한국어)



칭하이 무상사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즉각 깨닫는 열쇠 제1권

즉각 깨닫는 열쇠(1)



칭하이 무상사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즉각 깨닫는 열쇠 제2권

즉각 깨닫는 열쇠(2)



칭하이 무상사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즉각 깨닫는 열쇠 제3권

즉각 깨닫는 열쇠(3)



칭하이 무상사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즉각 깨닫는 열쇠 제4권

즉각 깨닫는 열쇠(4)



칭하이 무상사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즉각 깨닫는 열쇠 제5권

즉각 깨닫는 열쇠(5)



칭하이 무상사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즉각 깨닫는 열쇠 제6권

즉각 깨닫는 열쇠(6)



칭하이 무상사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즉각 깨닫는 열쇠 제7권

즉각 깨닫는 열쇠(7)



칭하이 무상사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즉각 깨닫는 열쇠 제8권

즉각 깨닫는 열쇠(8)



칭하이 무상사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즉각 깨닫는 열쇠 제9권

즉각 깨닫는 열쇠(9)



칭하이 무상사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즉각 깨닫는 열쇠 제10권

즉각 깨닫는 열쇠(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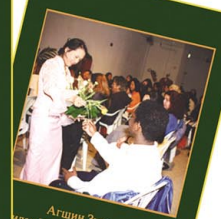
칭하이 무상사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즉각 깨닫는 열쇠 제11권

즉각 깨닫는 열쇠(11)



Агшин Зуур
Билэг Нээгэхийн Түлхүүр 1
Цаглахгүй Долоо Багш Чин Хай

즉각 깨닫는 열쇠(1)



Агшин Зуур
Билэг Нээгэхийн Түлхүүр 6
Цаглахгүй Долоо Багш Чин Хай

즉각 깨닫는 열쇠(6)

(태국어)



กุญแจสู่การรู้แจ้งในทันที เล่มที่ 1 อนุตตรจรรย์รังไข่

즉각 깨닫는 열쇠(1)



กุญแจสู่การรู้แจ้งในทันที เล่มที่ 2 อนุตตรจรรย์รังไข่

즉각 깨닫는 열쇠(2)



กุญแจสู่การรู้แจ้งในทันที เล่มที่ 3 อนุตตรจรรย์รังไข่

즉각 깨닫는 열쇠(3)



กุญแจสู่การรู้แจ้งในทันที เล่มที่ 4 อนุตตรจรรย์รังไข่

즉각 깨닫는 열쇠(4)



กุญแจสู่การรู้แจ้งในทันที เล่มที่ 5 อนุตตรจรรย์รังไข่

즉각 깨닫는 열쇠(5)



กุญแจสู่การรู้แจ้งในทันที เล่มที่ 6 อนุตตรจรรย์รังไข่

즉각 깨닫는 열쇠(6)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Nyckeln Till
Omedelbar Upplysning 1

즉각 깨닫는 열쇠(1)

(스웨덴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즉각 깨닫는 열쇠(1)



즉각 깨닫는 열쇠(1)



즉각 깨닫는 열쇠(2)



LOS PROVERBOS de la Maestra Suprema CHING HAI VOLUMEN I

감로보어 (스페인어)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Aphorisms

새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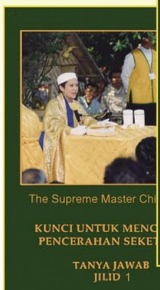


구판

감로보어(구판)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영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칭하이 무상사 영성 서적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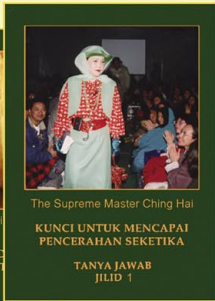
(인도네시아어)



문답록(1)



문답록(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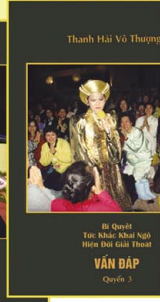
문답록(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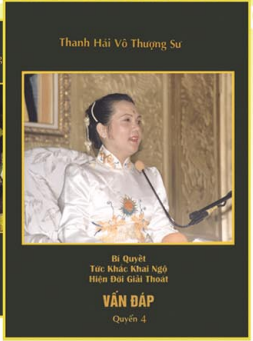
문답록(1)



문답록(2)



문답록(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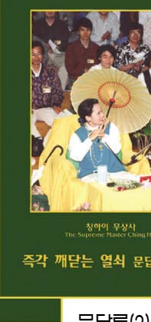


문답록(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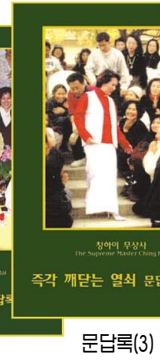
(한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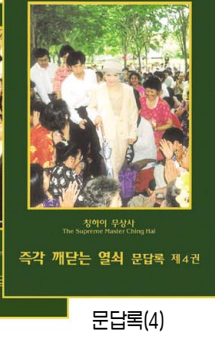
문답록(1)



문답록(2)



문답록(3)



문답록(4)



문답록(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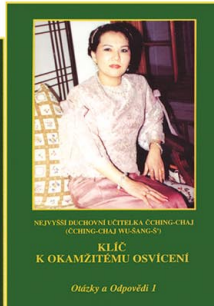
문답록(2)



문답록(3)

(중국어)

(체코어)



문답록(1)



문답록(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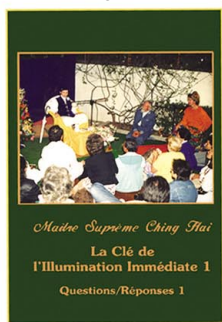


문답록(1)



문답록(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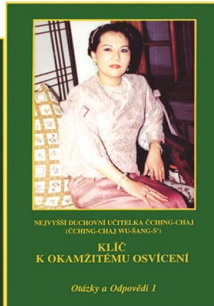
(프랑스어)



문답록(1)



문답록(1)



문답록(1)



문답록(1)



문답록(1)



문답록(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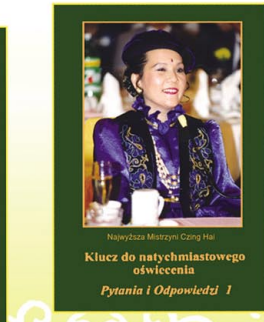
(불가리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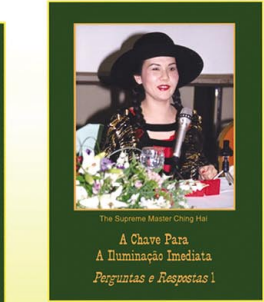
문답록(1)



문답록(1)



문답록(1)



문답록(1)



문답록(1)

(포르투갈어)

(일본어)

칭하이 무상사 영성 서적 시리즈

(영어, 중국어)



1993년 세계 순회 강연집(1-6)



(1)



(2)



(3)



(4)



(5)



(6)

(중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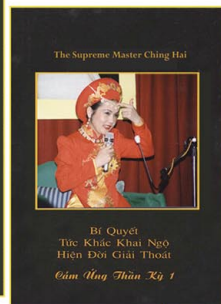
새 디자인



신기한 감응(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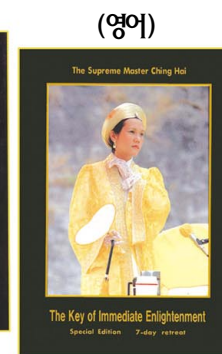
신기한 감응(2)



신기한 감응(1)



신기한 감응(2)



즉각 깨닫는 열쇠
선철 특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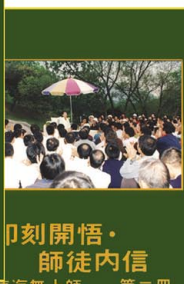
즉각 깨닫는 열쇠
선철 특별판

(중국어)

새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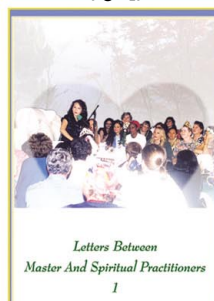
사제지간의 편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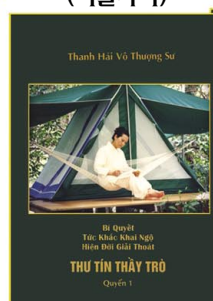
사제지간의 편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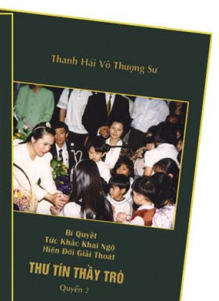
사제지간의 편지(3)



사제지간의 편지(1)



사제지간의 편지(1)



사제지간의 편지(2)

(영어)

(어울락어)

(스페인어)

새 디자인

구판



사제지간의 편지(1)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중국어, 영어, 어울락어, 한국어,
일본어, 태국어, 스페인어)



삶을 다채롭게
(영어, 중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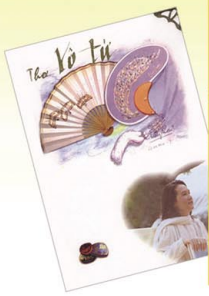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중국어, 영어, 어울락어, 한국어,
아랍어, 불가리아어, 프랑스어, 독
일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인도네
시아어, 이탈리아어, 체코어, 폴란
드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스페
인어, 터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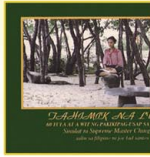
칭하이 무상사 영성 서적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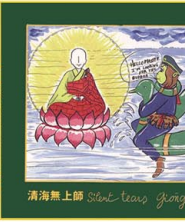
무자시
(어울락어)



무자시
(중국어, 영어)



침묵의 눈물
(벨리핀어, 스페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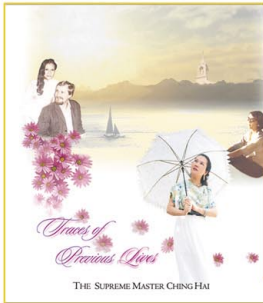
침묵의 눈물
(포르투갈어,
중국어/ 영어/ 어울락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침묵의 눈물
(한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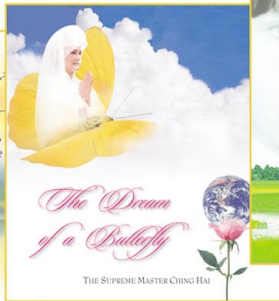
침묵의 눈물
(중국어/ 영어)



전생의 발자취
(어울락어, 영어)



그 옛날
(어울락어, 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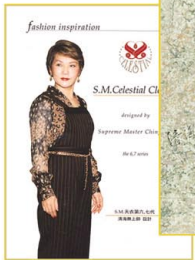
나비의 꿈
(어울락어, 영어)



조약돌과 황금
(어울락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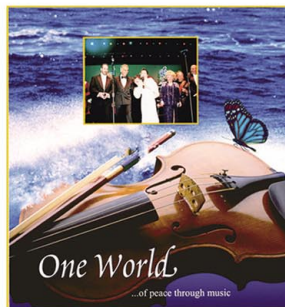
잃어버린 기억
(어울락어, 영어)



SM 천의 앨범
-제6대, 제7대 시리즈
(중국어/ 영어)



칭하이 무상사 예술 작품집
(어울락어/ 중국어/ 영어)



음악으로 하나 된 평화의 세상
(중국어/ 영어/ 어울락어)



무상 주방(2)
-가정식 선집
(중국어/ 영어)



무상 주방(1)
-국제 채식 요리집
(중국어/ 영어/ 어울락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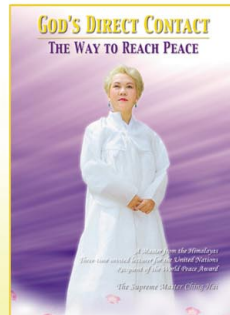
쉽게 수행하는 비결
(중국어, 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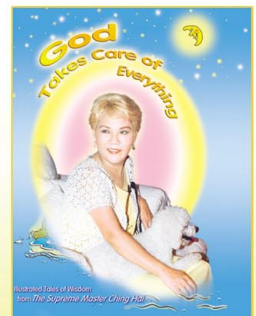
후광이 너무 꼭 껴요!
-칭하이 무상사의
깨달음이 담긴 유머집
(중국어/ 영어-CD 포함)



신과 인류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통한 교훈
(중국어, 영어)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
-평화의 길
(중국어, 영어)



신은 모든 것을 돌보신다
(지혜 만화집)
(중국어, 영어, 한국어, 어울락어,
일본어, 프랑스어)

다음 명단은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는 훌륭한 나라에 있는 연락인과 연락처입니다.
여러분의 지역에 연락인이 없다면 우리 본부나 가장 가까운 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전세계 연락처

P.O.Box 9, Hsihu, Miaoli 36899, Formosa, R.O.C.
P.O.Box 730247, San Jose, CA 95173-0247, U.S.A.

■ 아프리카 ■

★ 앙골라: 센터/ 244-923-338082/ luandacentre@yahoo.com
★ 베냉: 센터/ 229-21-383982/ smbenin@yahoo.fr
★ 부르키나파소: 와가두구 센터/ 226-50-341704/ smburkinafaso@yahoo.fr
★ 카메룬: 두알라 센터/ 237-3-437232/ smcameroon@hotmail.com
★ 콩고민주공화국: 칸사사 센터/ 243-810583010/ blessedcongo@yahoo.fr
★ 가나: 센터/ 233-277607-528/ smghanac@yahoo.com
★ 케냐: 센터/ 254-726944744/ smoothgoing@gmail.com
★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 Mr. Eric Razahidah/ 261-33-1115197/ hidahraza@yahoo.fr
★ 모리셔스:
포트루이스/ Mr. Liang Dong Sheng/ 230-2566286
포트루이스/ Ms. Josiane Chan She Ping/ 230-242-0462/ smchmauritius@intnet.mu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센터/ 27-83-952-5744/ capetowncentre@yahoo.com
요하네스버그/ Mr. Gerhard Vosloo/ 27-82570-4437/ ghvosloo@mweb.co.za
요하네스버그/ Ms. Khena Refiloe Truelove/ 27-83-5014853/ emzinikababa@yahoo.com
★ 토고:
팔리메/ 센터/ 228-4-410-948
로메/ 센터/ 228-2-222-864/ smtogo@yahoo.com
로메/ Mr. David Chine/ 228-2-215-551
★ 우간다: 캄팔라/ Mr. Samuel Luyimbaazi/ 256-7764-9807/ semazima@yahoo.com

■ 아메리카 ■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Ms. Mabel Alicia Kaplan/ 54-11-4545-4640/ regresandoacasas25@yahoo.com.ar
★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Ms. Adalina da graca munhoz/ 591-3-3301758/ adamunhoz@hotmail.com
트리니다드/ Mr. Wu Chao Shien/ 591-4625964
★ 브라질:
벨렝/ Mr. Wei Cheng Wu/ 55-91-32234424, 55-91-3274661/ belemcenter@yahoo.com.br
고이아니아/ Mr. & Mrs. Erwin Madrid/ 55-62-3941-4510/ erwinserrano@terra.com.br
레시페/ 센터/ recifecenter@click21.com.br
레시페/ Ms. Maria Vasconcelos de oliveira/ 55-81-3326-9048/ mariaoliveira_cultural@click21.com.br
레시페/ Ms. Monica Tereza Nogueira/ 55-81-8742-3431, 55-81-3304-0452
상파울루/ 센터/ 55-11-5904-3083, 55-11-5579-1180/ br_center@yahoo.com.br
★ 캐나다:
에드먼튼/ Mr. Brian Hokanson/ 1-780-444-6568
에드먼튼/ Mr. & Mrs. Dang Van Sang/ 1-780-963-5240/ anh2sd@hotmail.com
런던/ 센터/ 1-519-933-7162/ uniself@yahoo.com
몬트리올/ 센터/ 1-514-277-4655/ smchmontreal@sympatico.ca
몬트리올/ Ms. Euchariste Pierre/ 1-514-481-9816/ p_euchariste1@sympatico.ca
몬트리올/ Mr. Hung The Nguyen/ 1-514-494-7511/ thehungnguyen@sympatico.ca
오타와/ Mr. Jianbo Wu/ 1-613-829-5668/ jianbowu2002@yahoo.ca
오타와/ Ms. Jean Agnes Cambell/ 1-613-839-2931/ jean.quanyin@gmail.com
토론토/ 센터/ 1-416-503-0515
토론토/ Ms. Dlep Hoa/ 1-905-828-2279/ hoadlep0723@yahoo.com
토론토/ Mr. & Mrs. Lenh Van Pham/ 1-416-282-5297/ hiepham@rogers.com
토론토/ 연락인 사무실/ torontocontact@yahoo.ca
밴쿠버/ Ms. Li-Hwa Liao/ 1-604-541-1530/ jsung2277@yahoo.ca
밴쿠버/ Ms. Shella Coodin/ 1-604-580-4087/ qycontactperson@yahoo.ca
밴쿠버/ Ms. Nguyen Thi Yen/ 1-604-581-7230/ yentinguyen2002@yahoo.com
★ 칠레:
라세레나/ Mr. Esteban Zapata Guzman/ 56-51-451019/ laserenacenter@hotmail.com
산티아고/ 센터/ 56-2-6385901/ chilecenter@yahoo.com
산티아고/ Mrs. Millaray Lizana Lizana/ 56-2-4544278/ millaraynoemi@yahoo.com
산티아고/ Mrs. Jacqueline Barrientos/ 56-2-3147786/ jackybarrientos@gmail.com
★ 콜롬비아: 보고타 센터/ 57-1-2712861/ luzdelsonido@yahoo.com
★ 코스타리카:
산호세/ 센터/ 506-2200-753

산호세/ Ms. Laura Chen/ 506-3632-748/ lauracmesa401@hotmail.com
★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Ms. Edith Sagrario Ochoa/ 504-2250120
★ 멕시코:
멕시코 시티/ Ms. Sonia Valenzuela/ 1-928-317-8535/ valenzuela_sonia@hotmail.com
멕시코 주/ 연락인 사무실/ 52-55-5852-1256/ texcenter@gmail.com
몬테레이/ Mr. Roque Antonio Leal Sufo/ 52-8-18104-1604/ monterreycenter@yahoo.com.mx
★ 나카라과:
마나과/ Ms. Pastora Valdivia Iglesias/ 505-248-3651/ pastora7iglesia@yahoo.com
★ 파나마:
파나마/ 센터/ 507-236-7495
파나마/ Ms. Maritza E. R. de Leone/ 507-260-5021/ mrleone2@yahoo.com
★ 파라과이:
아순시온/ Ms. Emilee Cespedes Gimenez/ 595-21-523684/ ec_py2002@yahoo.com.ar
★ 페루:
아레키파/ Mr. Julio Cardenas Pelizzari/ 51-54-453828/ qyarequipa@yahoo.com
쿠스코/ Ms. Patricia Kross Canal/ 51-84-232682/ cuscoentro@yahoo.com
리마/ Mr. Edgar Nadal & Ms. Teresa de Nadal/ 51-1-4667737/ edyter@viabcp.com
리마/ Mr. Victor Carrera/ 51-1-2650310
푸노/ Ms. Mercedes Rodriguez/ 51-54-353039/ punocentropetu@yahoo.es
투루하요/ Mr. & Mrs. Raul Seugra Prado/ 51-44-221688/ rsp_trujillo@hotmail.com
★ 미국:
★ 애리조나: 센터/ 1-602-264-3480
★ 애리조나: Mr. & Mrs. Kenny Ngo/ 1-602-404-5341/ kennynngoaz@hotmail.com
★ 아칸소: Mr. Robert Jeffreys/ 1-479-253-8287/ bobedj@cox.net
★ 캘리포니아:
프레스노/ Ms. Frances Lozano/ 1-559-322-9793/ estudios62301@yahoo.com
로스앤젤레스/ 센터/ 1-951-674-7814
로스앤젤레스/ Mr. & Mrs. Tsung-Liang Lin/ 1-626-914-4127/ tlin54@hotmail.com
로스앤젤레스/ Mr. Gerald Martin/ 1-310-836-2740/ gmartin0999@hotmail.com
로스앤젤레스/ Ms. Chiem, Mai Le/ 1-714-924-5327/ smlw31@yahoo.com
세크라멘토/ Mr. & Mrs. Hieu De Tu/ 1-916-682-9540/ saccenter@gmail.com
샌디에이고/ 센터/ 1-619-280-7982/ quanyinsd@juno.com
샌디에이고/ Mr. & Mrs. Tran Van Luu/ 1-619-475-9891
샌프란시스코/ 센터/ khoaluong@aol.com
샌프란시스코/ Mr. & Mrs. Khoa Dang Luong/ 1-415-753-2922
샌프란시스코/ Mr. & Mrs. Dan Hoang/ 1-415-333-9119/ sfcenter@hotmail.com
세인트루이스/ Ms. Sophie Lapaire/ 1-650-464-8066/ Margorifico@yahoo.com
세인트루이스/ Mr. Loc Petrus/ 1-510-813-2300/ petrulst2k4@gmail.com
★ 플로리다:
★ 플로리다:
케이프코랄/ Mr. & Mrs. Thai Dinh Nguyen/ 1-239-458-2639/ CapeCoralCenter@Gmail.com
케이프코랄/ Ms. Trina L. Stokes/ 1-239-433-9369/ moonwater33957@yahoo.com
올랜도/ Mr. Michael Stephen Blake/ 1-407-333-0178/ smch_orlando@yahoo.com
★ 조지아: Mr. James Collins/ 1-770-294-1189/ georgiacenter@hotmail.com
★ 조지아: Mr. Roddell Pleasants/ 1-678-429-7958
★ 조지아: Ms. Kim Dung Thi Nguyen/ 1-404-292-7952
★ 하와이: 센터/ 1-808-735-9180/ hawaiictr@hotmail.com
★ 하와이: Mrs. Dorothy Kaomi Sakata/ 1-808-988-6059/ DorothySakata@aol.com
★ 일리노이: Mr. Tran, Cao-Minh Lam/ 1-773-506-8853/ caominhtran@yahoo.com
★ 인디애나: Ms. Josephine Poelintz/ 1-317-842-8119/ joslepos@sbcglobal.net
★ 캔자스:
프랭크퍼트/ 센터/ kycenter2000@yahoo.com
프랭크퍼트/ Mr. & Mrs. Nguyen Minh Hung/ 1-502-695-7257/ Fuji.Nguyen@ky.gov
★ 루이지애나: Mr. John L. Fontenot/ 1-504-914-3236/ jfontenot@hotmail.com
★ 메릴랜드: Mr. Nguyen Van Hieu/ 1-301-933-5490/ marylandcenter@yahoo.com
★ 메사추세츠:
보스턴/ 센터/ 1-978-528-6113/ bostonctr17@yahoo.com
보스턴/ Ms. Gan Mai-Ky/ 1-508-842-0262

보스턴/ Mr. & Mrs. Huan-Chung Li/ 1-978-957-7021

* 미시간: Mr. Martin John White/ 1-734-327-9114/ mading02000@yahoo.com

* 미네소타: Ms. Quach Ngoc/ 1-612-722-7328/ quachmn@yahoo.com

* 미주리: 물라/ Mr. & Mrs. Genda Chen/ 1-573-368-2679/ gchen@umr.edu

*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Ms. Helen Wong/ 1-702-242-5688

* 뉴멕시코: Mr. & Mrs. Nawarskas/ 1-505-342-2252/ nawarskas@comcast.net

* 뉴저지: 센터/ 1-973-209-1651/ NJCenter@gmail.com

* 뉴저지: Mr. Hero Zhou/ 1-617-794-8282/ yb_zhou@hotmail.com

* 뉴저지: Ms. Lynn McGee/ 1-513-377-2375/ lynn.mcgee@yahoo.com

* 뉴저지: Ms. Bozena Chetnik/ 1-732-986-2907/ bozena_chetnik@yahoo.com

* 뉴욕:

뉴욕/ Mr. & Mrs. Zhihua Dong/ 1-718-567-0064/ dong@physics.columbia.edu

로체스터/ Ms. Debra Couch/ 1-585-256-3961/ dcouch@rochester.rr.com

* 노스캐롤라이나: Mr. & Mrs. Huynh Thien Tan/ 1-704-535-3789/ northcarolinacenter@hotmail.com

* 오리건:

해밀턴/ Mr. & Mrs. Vu Van Phuong/ 1-513-887-8597/ ohiocenter@yahoo.com

* 오클라호마: Mr. & Mrs. Tran Kim Lam/ 1-405-632-1598/ ltran2292@yahoo.com

* 오리건:

포틀랜드/ Mr. & Mrs. Minh Tran/ 1-503-614-0147/ oregon_center90@yahoo.com

포틀랜드/ Ms. Youping Zhong/ 1-503-257-2437/ youping320@yahoo.com

* 펜실베이니아: Mr. & Mrs. Diep Tam Nguyen/ 1-610-529-3114/ DiepAshleyPa@aol.com

* 펜실베이니아: Mrs. Ella Flowers/ 1-215-879-6852

* 텍사스:

오스틴/ 센터/ 1-512-396-3471/ jidawu@yahoo.com

오스틴/ Mr. Dean Duong Tran/ 1-512-989-6113/ trandungdean@yahoo.com

달라스/ 센터/ 1-214-339-9004/ DallasCenter@yahoo.com

달라스/ Mr. Tim Mecha/ 1-972-395-0225/ t.mecha@comcast.net

달라스/ Mr. Weidong Duan/ 1-972-517-5807/ water96@yahoo.com

달라스/ Mr. Jimmy Nguyen/ 1-972-206-2042/ jimmyhnguyen@yahoo.com

휴스턴/ 센터/ 1-281-955-5782

휴스턴/ Ms. Carolyn Adamson/ 1-713-6652659/ cadamson@houston.rr.com

휴스턴/ Mr. & Mrs. Charles Le Nguyen/ 1-713-922-1492/ cuc-le@houston.rr.com

휴스턴/ Mr. & Mrs. Robert Yuan/ 1-281-251-3199/ ryuan@houston.rr.com

샌안토니오/ Mr. Khoi Kim Le/ 1-210-558-2049/ lethong@hotmail.com

* 버지니아: 센터/ 1-703-941-0067

버지니아버지/ 센터/ 1-757-461-5531/ llem_je23502@yahoo.com

버지니아버지/ Mr. & Mrs. Hua Phi Anh/ 1-703-978-6791/ anhhi@hotmail.com

* 워싱턴:

시애틀/ Mr. Ben Tran/ 1-425-643-3649/ benptran@aol.com

시애틀/ Mr. Edward Tan/ 1-206-228-8988/ edtan@usa.com

* 와이오밍: Ms. Esther Mary Cole/ 1-307-332-7108/ sumaemo@yahoo.com

★ 푸에르토리코:

카리/ Mrs. Disnalda Hernandez Morales/ 1-787-262-1874/ disnalda@caribe.net

■ 아시아 ■

★ 포모사:

타이베이/ 센터/ 886-2-2706-6168/ tpe.light@msa.hinet.net

타이베이/ Mr. & Mrs. Loh, Shih-Hung/ 886-2-27062628/ shloh@ndmctsg.hk.edu.tw

미야오리/ Mr. & Mrs. Chen, Tsan-Gin/ 886-37-221618

미야오리/ Mr. Chu, Chen Pei/ 886-37-724726

가오슝/ Mr. & Mrs. Zeng, Huan Zhong/ 886-7-733-1441

★ 홍콩:

홍콩/ 센터/ 852-27495534

홍콩/ 연락인 사무실/ 852-26378257/ sm_hongkong@yahoo.com

★ 인도: 캘커타/ Mr. Ashok Sinha/ 91-33-2655-6741/ shiva@cal.vsnl.net.in

★ 인도네시아:

발리/ 센터/ 62-361-231-040/ smch_bali@yahoo.com

발리/ Mr. Agus Wibawa/ 62-81-855-8001/ wibawa001@yahoo.com

자카르타/ 센터/ 62-21-6319066/ smch-jkt@dn.net.id

자카르타/ Mr. Tai Eng Chew/ 62-21-6319061/ cte@envirotec.co.id

자카르타/ Ms. Lie Ik Chin/ 62-21-6510715/ herlina@ueli.com

자카르타/ Ms. Murniati Kamarga/ 62-21-3840845/ hai@cbn.net.id

자카르타/ Mr. I Ketut P. Swastika/ 62-21-7364470/ ketut@sinarmas.co.id

달랑/ Mr. Judy R. Wartono/ 62-341-491-188/ yudi_wartono@telkom.net

달랑/ Mr. Henry Soekianto/ 62-341-325-832

메단/ Mrs. Merinda Sjaluddin/ 62-61-4514656/ smch_medan@hotmail.com

수라바야/ 센터/ 62-31-5612880/ ahimsasb@indosat.net.id

수라바야/ Mr. Harry Limanto Liem/ 62-31-594-5868/ harry_l@sby.dnet.net.id

요코하카르타/ Mr. Augustinus Madyana Putra/ 62-274-411-701/ tadianingtyas@yccos.com

★ 이스라엘: Mr. Yaron Adari/ yadari@freeuk.com

★ 일본:

군마/ Ms. Hiroko Ichiba/ 81-27-9961022/ divinalv@mth.biglobe.ne.jp

도쿄/ Ms. Yukiko Sugihara/ 81-90-6104-5770/ lotus@sky.plala.or.jp

도쿄/ Ms. Yoshie Takeda/ 81-90-3963-0755/ y-plus@f6.dion.ne.jp

★ 대한민국:

출판사/ 042-543-9250/ chinghaikpi@yahoo.co.kr

영동/ 센터/ 054-532-5821/ hounr121@yahoo.co.kr

서울/ 센터/ 02-577-2158/ goldenseoul@yahoo.co.kr

서울/ 조영원/ 011-9670-5839/ seoulyoungwon@yahoo.co.kr

부산/ 센터/ 051-334-9205/ chinghaibusan@hanmail.net

부산/ 송호준/ 051-903-4552/ 011-599-4552

부산/ 황상원/ 051-805-7283

대구/ 센터/ 053-743-4450/ chinghaidaegu@hanmail.net

대구/ 김이현/ 053-633-3346

대구/ 한선화/ 053-746-5338

대구/ 차재현/ 053-856-3849

대전/ 센터/ 042-625-4801/ smdaeeon@yahoo.co.kr

대전/ 도봉화/ 042-471-0763/ dbhs44463@yahoo.co.kr

전주/ 센터/ 063-274-7553/ shc5824@hanmail.net

전주/ 산현창/ 063-254-5824

광주/ 센터/ 062-525-7607

광주/ 조경대/ 061-394-6552/ smgwangju@naver.com

인천/ 센터/ 032-867-5351/ llightundinchon@yahoo.co.kr

인천/ 이재문/ 032-244-1250

안동/ 센터/ 054-821-3043/ smandong@hanmail.net

안동/ 김삼태/ 010-3929-1859

청주/ 센터/ 054-673-1399

★ 라오스:

비엔티안/ Mr. Somboon Phetphommasouk/ 856-21-415-262/ sobophet@yahoo.com

★ 마카오:

마카오/ 센터/ 853-532231/ mcdilove@yahoo.com.hk

마카오/ 연락인 사무실/ 853-532995

★ 말레이시아:

알로르세타르/ Mr. Chiao-Shui Yu/ 60-4-7877453

조호르바루/ Mr. & Mrs. Chi-Liang Chen/ 60-7-6622518/ supreme2@tm.net.my

쿠알라룸푸르/ 센터/ 60-3-21453904/ kismch@yahoo.com

쿠알라룸푸르/ Mr. Phua Kai Liang/ 60-12-3073002/ kinet23@yahoo.com

페낭/ 센터/ 60-4-2285853/ pgsrmch@streamyx.com

페낭/ Mr. & Mrs. Lim Wah Soon/ 60-4-6437017

★ 몽골:

울란바토르/ Ms. Erdenechimeg Baasandamba/ 976-11-310908/ baasandamba@yahoo.com

바나르/ Mr. & Mrs. Gursad Bayarsalkhan/ 976-121-21174

★ 미얀마: Mr. Sai San Aik/ 95-1-667427/ ssalss@mptmail.net.mm

★ 네팔:

카트만두/ 센터/ 977-1-4254-481/ chinghaikathmandu@hotmail.com

카트만두/ Mr. Ajay Shrestha/ 977-1-4473-558/ ajayshta@hotmail.com

포카라/ 센터/ 977-61-531643

포카라/ Mr. Bishnu Neupane/ 977-984-60-36423/ neupanebishnu@hotmail.com

★ 필리핀: 마닐라/ 센터/ 63-917-474-9845/ manilach@hotmail.com

★ 싱가포르:

싱가포르/ 센터/ 65-6741-7001/ chinghaik@singnet.com.sg

싱가포르/ 연락인 사무실/ 65-6846-9237

★ 스페인:

콜롬보/ Mr. Lawrence Fernando/ 94-11-2412115/ samantha_nbt@zeynet.com

★ 태국:

방콕/ 센터/ 66-2-674-2690/ bkck66@gmail.com

방콕/ Ms. Laddawan Na Ranong/ 66-1-8690636, 66-2-5914571/ edasnlad@stou.ac.th

차앙마이/ Ms. Sriwan Supatrchamnian/ 66-50-332136/ sriwanli@gmail.com

콘렌/ 센터/ 66-43-378112

■ 아시아 ■

★ 오스트리아:

비엔나/ 센터/ 43-699-12272892/ Chinghaik@gmx.at

비엔나/ Mr. Nguyen Van Dinh/ 43-2955-70535

★ 벨기에:

브뤼셀/ Ms. Ann Goorts/ 32-472-670272/ qybelgium@yahoo.com

브뤼셀/ Mr. Ellen De Maesschalk/ 32-486-242248

★ 불가리아:

소피아/ Mr. Ruslan Staykov/ 359-2-8575358/ wwwruslan@yahoo.com

플로브디프/ Mrs. Miglena Bozhikova/ 359-32-940726/ chinghaiplovdiv@yahoo.com

★ 크로아티아/ Mr. Zeljko Starcevic/ 385-51-251081/ zeljstar@inet.hr

★ 체코:

프라하/ 센터/ 420-261-263-031/ czech-center@spojenisbohemy.cz

프라하/ Mrs. Marcela Gerlova/ 420-608-265-305

★ 덴마크: Mr. Thanh Nguyen/ 45-66-190459/ my@webspeed.dk

★ 핀란드:

헬싱키/ 센터/ 358-50-596-2315/ helsinkicenter@yahoo.com

★ 프랑스:

알사스/ Ms. Despretz Anne-Claire/ 33-3-89770607/ arclai@infonie.fr

아르데슈/ Ms. Reynet Jeanine/ 33-4-75376232

몽펠리에/ Mr. Nguyen Tich Hung/ 33-4-67413257/ tich.hung@infonie.fr

파리/ 센터/ 33-1-4300-6282

파리/ Ms. Lancelot Isabelle/ 33-1-7069-3210/ ilancelot@celestialfamily.net

★ 독일:

베를린/ Mr. Grigorii Guinzbourg/ 49-30-5498-6147/ Grigorii.Guinzbou@gmxd.de

베를린/ Ms. Thi Hoa Hoang/ 49-30-3083-4712/ Pureocean@web.de
 뒤스부르크/ 연락인 사무실/ 49-203-4846374/ ngoc-thao.nguyen@gmx.de; dusseldorfcenter@hotmail.com
 함부르크/ 연락인 사무실/ 49-58115491/ HamburgCenter@gmx.de
 뮌헨/ Ms. Johanna Hoening/ 49-8170-997050/ ChingHal@aol.com
 뮌헨/ Ms. Kang Cheng/ 49-89-3616347/ lovesource8@yahoo.de
 ★ 그리스:
 아테네/ Ms. Vicky Chrisikou/ 30-210-8022009, 30-6944-470094/ luckychrisikou@yahoo.gr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Mr. Kamlung Cheng/ 31-647838638/ kamlung27@hotmail.com
 ★ 헝가리:
 부다페스트/ 센터/ 36-1-363-3896/ budapestcenter@gmail.com
 부다페스트/ Mr. Lehel Csaba/ 36-20-2400-259/ clehel@gmail.com
 부다페스트/ Gabor Soha/ 36-20-221-5040/ gabor.soha@gmail.com
 ★ 이탈리아:
 페스카라/ Bettina ADANK/ 39-085-454-9184/ bettina.adank@fastwebnet.it
 ★ 아일랜드:
 더블린/ Mr. & Mrs. Bernard Leech/ 353-1-6249050/ dublinquanyin@yahoo.co.uk
 ★ 노르웨이:
 오슬로/ Ms. Marte Hagen/ 47-64978762, 47-92829803/ marte.hagen@gmail.com
 ★ 폴란드:
 슈체친/ Mrs. Grazyna Plociniazak/ 48-91-4874953/ ginal@wp.pl
 바르샤바/ Ms. Elzbieta Ukleja/ 48-22-8367814/ elzbieta_q1@yahoo.com
 ★ 포르투갈:
 레이리아/ Mr. Antonio Jose Vieira Caldeira/ 351-2625-97924/ alcoa_center@hotmail.com
 ★ 루마니아: 부차레스트/ 센터/ bucharestq@yahoo.com
 ★ 러시아:
 모스크바/ Mrs. Leera Gareyeva/ 7-095-732-08-32/ moscowcenter@rambler.ru
 ★ 슬로베니아:
 루블랴나/ 센터/ 386-1-518-2542/ quanyin@siol.net
 루블랴나/ Mr. Janez Pavlovic/ 386-41-320-268/ janez.pavlovic@siol.net
 마리보르/ Mr. Rastislav Alfonz Kovacic/ 386-3-581-4981/ rast05alfonz@yahoo.com
 ★ 스페인:
 마드리드/ Ms. Lidia Kong/ 34-91-547-0366
 마드리드/ Mr. Claudio Octavio Silva Zuniga/ 34-667090831/ claudiosilvachile@yahoo.es
 빌라카/ Mr. Wang Ya-King/ 34-95-235-1521
 발렌시아/ Vegetarian House/ 34-96-3744361
 발렌시아/ Mr. Yu Xi-Qi/ 34-96-3301778/ valenciachinghai@yahoo.es
 ★ 스웨덴:
 앙겔홀름/ Mrs. Luu Thi Dung/ 46-431-26151/ Angelholmswe@yahoo.com

오레/ Ms. Viveka Widlund/ 46-647-32087/ smchsweden@yahoo.se
 스톡홀름/ Mr. Mats Gigard/ 46-8-882207/ mats.gigard@telia.com
 ★ 스위스:
 제네바/ Ms. Feng-Li Liu/ 41-22-797-3789/ fengli@lo.org
 제네바/ Ms. Klein Ursula/ 41-22-369-1550/ ursula_klein@bluewin.ch
 ★ 영국 연방:
 * 잉글랜드:

인스워치/ Mr. Shahid Mahmood/ 44-1473-436961/ shahidocean@hotmail.com
 런던/ 센터/ 44-2088-419866/ pni@matters19.freemove.co.uk
 런던/ Mr. Nicholas Gardiner/ 44-2089-773647
 런던/ Mrs. C Y Man/ 44-1895-254521/ chuk_yee_man@hotmail.com
 스톡홀름/ Mrs. Janet Weller/ 44-1782-866489/ j.weller4@ntlworld.com
 서리/ Mr. C. W. Wo/ 44-1293-416698/ stmchw@hotmial.com
 * 스코틀랜드:
 애든버러/ Mrs. Annette Lillig/ 44-131-666-0319/ lillig2002@yahoo.co.uk

■ 오세아니아 ■

★ 호주:
 애들레이드/ Mr. Leon Liensavanh/ 61-8-8332-6192/ leonadelaide@hotmail.com
 브리즈번/ 센터/ briscentre_en@yahoo.com.au
 브리즈번/ Mr. Gerry Bishshop/ 61-7-3901-6235
 브리즈번/ Mrs. Tieng Thi Minh Chau/ 61-7-3715-7230/ ctieng_briscentre@yahoo.com.au
 브리즈번/ Mr. & Mrs. Yun-Lung Chen/ 61-7-3344-2519/ dlch136@hotmail.com
 캔버라/ Mr. Hoang Khanh/ 61-2-6259-1993/ smcanberra@hotmail.com
 멜버른/ 센터/ melbsmch@aol.com
 멜버른/ Mr. & Mrs. Rob Nagtegaal/ 61-3-5282-4431/ rosrobbery@aol.com
 멜버른/ Mr. Phong Minh Tan Do/ 61-3-9850-2553/ phongloveme@yahoo.com
 멜버른/ Mr. Alan Khor/ 61-3-9857-4239/ ckhor@netspace.net.au
 퍼스/ Mr. David Robert Brooks/ 61-8-9418-6125/ daveb@inet.net.au
 퍼스/ Mr. Ly Van Tri/ 61-8-9242-2848
 시드니/ Mr. Ly An Thanh/ 61-2-9823-8223/ anbinh_sydney@yahoo.com.au
 시드니/ Mrs. Kathy Divine/ 61-2-9891-5609/ universallove22@yahoo.com.au
 테즈메이니아/ Mr. Raymond Dixon/ 61-3-62314420/ ray_jule@bigpond.net.au
 ★ 뉴질랜드:
 오클랜드/ Mrs. Noelyne No Thi Ishibasi/ 649-277-9285/ takahide@extra.co.nz
 오클랜드/ Mr. Peter Morrin/ 64-9-579-2452/ ptr@ihug.co.nz
 오클랜드/ Mr. Chang Jen-Hor/ 64-9-2749298/ changjenhor@yahoo.com
 크라이스트처치/ Mr. Michael Lin/ 64-3-343-6918/ nzchchsmch@yahoo.com.au
 해밀턴/ Mr. Glen Vincent Prime/ 64-21399934/ hamnzcont@yahoo.co.nz
 넵슨/ Ms. Sharlene Lee/ 64-3-539-1313/ shale@ihug.co.nz

* 전세계 연락처는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최신 연락처를 확인하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 www.Godsdirectcontact.org.tw/eng/cp/index.htm](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cp/index.htm)

TV 프로그램 '예술과 영성' 비디오테이프

이메일: TV@Godsdirectcontact.org

SM 경서팀

이메일: divine@Godsdirectcontact.org

팩스: 1-240-352-5613/ 886-949-883-778

(스승님의 책을 각국 언어로 번역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수행 상담소

이메일: lovewish@Godsdirectcontact.org

팩스: 886-946-730-699

SM 보석 주식회사

이메일: smcj@mail.sm-cj.com

전화: 886-2-8791-0860

팩스: 886-2-8791-1216

<http://www.sm-cj.com>

온라인 천상의 상점

<http://www.thecelestialshop.com>

뉴스그룹

이메일: lovenews@Godsdirectcontact.org

팩스: 1-801-740-9196/ 886-946-728-475

포모사 타이베이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전화: (886) 2-8787-3935

팩스: (886) 2-8787-0873

<http://www.smchbooks.com/>

대한민국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chinghaikpt@yahoo.co.kr

전화: 042-543-9250

팩스: 042-543-9258

(영어나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실 수 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대한민국 청하이 무상사 무상예술 연락처

이메일: hounmri21@yahoo.co.kr

전화: 054-532-5821

팩스: 054-532-5822

(천의, SM 보석, 해피요기, 만세등, 그림... 등의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영동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시집

오랫동안 기다려 온 『전생의 발자취』

중국 어판, 드디어 출간!

(양장본 및 페이퍼백)

『전생의 발자취』는 스승님께서 진리를 찾기 위해 히말라야로 가기 전 전세계 여러 나라에 머물며 쓰셨던 시들을 수록하고 있다. 스승님은 섬세한 필치와 생생한 상상력을 통해 인간의 희로애락과 전쟁으로 야기된 우여곡절과 슬픔을 묘사하심으로써 이 세상의 무상함과 열정의 허망한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

『전생의 발자취』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인 ‘사랑’은 스승님이 쓰신 사랑의 시들을 모은 것이다. 이 시들은 완전한 사랑과 끝없는 갈망을 후회 없이 온 마음을 다 바쳐 추구한 시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으며 그녀의 성스러운 내적 품성은 시의 행간에 역력히 드러나 있다. 두 번째 부분인 ‘전쟁’에 포함된 많은 시들은 혼란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과 세상에 대한 시인의 연민과 자비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전쟁을 접하고 그 피해자들의 무력함과 불안을 목격하면서 이 성인은 그저 눈물로 시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감동적이고 장엄한 이 『전생의 발자취』는 전쟁을 겪은 시인의 개인적 경험과 사랑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느끼는 행복의 노래, 그리고 세계 여러 곳에 남겨진 그녀의 발자취를 모두 아우르고 있다. 전세계 모든 중국어권 독자들이 이 뜻 깊고 진귀한 시를 음미할 기회를 갖길 바란다. ★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CD

CD-CG09 (중국어)

수행자의 생활 모습

1988. 11. 26. 포모사 시후 단체명상

내용 요약:

스승님께서 ‘히말라야에서 온 큰스승’이란 칭호를 얻고서 천을 사기 위해 누더기 법복과 짚신을 신은 채 천 가게에 나타나셨던 이야기와 택시를 탔을 때 겪은 재미있는 일들과 같은 초창기에 있었던 많은 우스운 이야기들을 회상하신다. 스승님은 또한 대부분의 출가 수행자들이 절에서 사는 것과는 달리 왜 당신과 출가승들은 검소한 텐트에서 사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다. 말씀 중에 스승님은 재가 제자들의 수행 생활에 매우 큰 관심을 보이시며 그들의 일에 대해 상세히 물으시고 그에 따라 귀한 충고도 해주신다. 이 밖에 스승님은 진정한 출가인은 왜 사람들의 공양을 받지 말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며 공양이 안 들어올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다. 또한 제자들이 행복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수행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조언도 많이 해주신다. ★



스승님의 최신 그림



정교한 삶



축복 과일

위 그림들은 스승님이 최근 그리신 작품 중 일부로서 현재는 판매하지 않습니다.